

제주의 민묘

김유정, 손명철

차 례

- I. 묘지의 기념비성
- II. 한국의 장묘제도와 의례 공간으로서의 묘지
 - 1. 장묘제도의 역사적 고찰
 - 1) 신라의 능묘
 - 2) 고려의 능묘
 - 3) 조선의 능묘
 - 2. 의례 공간으로서의 묘지
 - 1) 유교와 의례
 - 2) 의례공간으로서의 묘지
- III. 제주 장법(葬法)의 역사적 전개
 - 1. 조선시대 이전
 - 2. 조선시대 제주의 장법
- IV. 제주 민묘의 유형
 - 1. 민묘의 개념 및 범주
 - 2. 제주 민묘의 형태
 - 1) 제주의 방묘(方墓)
 - (1) 고조기 묘
 - (2) 제주의 입도시조 묘
 - 2) 제주의 원묘(圓墓)
 - (1) 통훈대부 고이지 묘
 - (2) 현마공신 김만일 묘
 - 3) 용묘(龍墓)
 - (1) 원주후인 변공지묘
 - (2) 유인부씨의 묘
 - 3. 제주 민묘의 배치형태
 - 1) 단묘(單墓)
 - 2) 쌍묘(雙墓)
 - 3) 합묘(合墓)
 - 4. 제주의 민묘구조
 - 1) 봉분(封墳)
 - 2) 광중(壙中)
 - 3) 용미(龍尾)

- 4) 지절(階節)
- 5) 산담
- 6) 외장

V. 제주의 산담 문화

1. 시·공간을 넘어선 대지 예술(Earth Art)로서의 산담
2. 제주 산담의 역사적인 조성 배경
3. 산담의 공간개념
4. 제주 산담의 유형
 - 1) 전방후원형(前方後圓形)산담
 - 2) 부등변사각형(不等邊四角形)산담
5. 산담의 축조방법
6. 산담의 구조
 - 1) 올래
 - 2) 정돌
 - 3) 어긋돌
7. 산담의 미학
 - 1) 산담의 자연미
 - 2) 산담의 조형미

VI. 제주 민묘의 석물

1. 망주석
2. 비석
3. 상석
4. 돌잔
5. 돌벼루
6. 장명등
7. 주가석, 향로석, 축관석
8. 혼유석
9. 토신단
10. 문관석
 - 1) 제주 문관석의 특징
 - 2) 문관석의 분류
 - (1) 한반도형 문관석
 - (2) 제주형 문관석
 - (3) 문관·동자 혼합형 문관석
11. 동자석

VII. 제주의 장묘문화

1. 토롱(土壟)
2. 출타해서 죽은 사람의 장례
3. 죽은 혼사(死婚)
4. 아이의 장례
5. 함박제
6. 빗돌(碑石)마련
7. 개판(蓋板)마련
8. 철리(遷移)
9. 이장된 묘의 석물처리
10. 골충(古冢)
11. 새각담

VIII. 문화 유산으로서의 제주민묘

<참고문헌>

I. 묘지의 기념비성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은 인류 전사(全史)에 걸쳐 가장 중요한 의문 중 하나이다. 이것이 철학의 문제든 종교의 문제든 간에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의문에 충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이 물음은 영원히 해답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의 운명적 공명(共鳴)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삶의 가치가 중요한 만큼 죽음의 무게 또한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천착하게 되고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 현실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삶이 가져다주는 희열을 맛보기 위해 희망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절망에 빠져들기도 한다.

죽음의 문제는 곧 삶의 문제이다. 삶의 빛이 강렬할수록 죽음의 그늘은 더욱 짙게 드리워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위해서 삶의 과정 속에 의례를 행하며 존재의 슬픔을 여과시킨다. 슬픔을 기쁨으로 전화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의례를 통해 정화되고, 오래도록 기억되기 위해 기념되기를 원한다.

죽음을 오래도록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산 자의 소망이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 있을 때의 소망에 불과하다. 죽은 자는 단지 산 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이미지일 뿐 그것은 분명 환영(幻影)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묘지는 왜 출현했을까? 보다 오래도록 자신의 존재를 이승에 남기고 싶은 욕망의 지표로 묘지는 존재한다. 묘지의 출현이 상징과 표식, 그리고 기념비성을 띠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묘지에는 정치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영생을 꿈꾸며 죽은 후 보복적인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 단단한 지하갱을 만든 진시황의 묘지나 북방의 초원 어딘가에 자신의 시신을 깊숙히 숨긴 칭기스칸, 언제라도 살아 일어날 것같이 우상화된 레닌의 미라는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이를 뒷받침해준다. 경제적인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묘지이다. 조선의 왕릉과도 같이 지배자의 묘지는 전국에서 산역꾼을 징발하여 수개월에 걸쳐 건설할 정도로 거대한 역사(役事)의 산물이며, 제주의 민묘처럼 연고가 없거나 재력이 없을 때 만들어지는 이름모를 외담묘같이, 초라한 무덤 또한 이와 무관하지가 않다. 묘지는 살아있을 때의 존재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한다.

또한 묘지는 문화적 산물이기도 하다. 묘지는 매장을 선호하는 민족의 문화적 혼적으로서 화장(火葬), 풍장(風葬), 조장(鳥葬) 등 민족마다 장법이 다르기도 하지만, 사후 세계를 보는 관념에 따라 문화 환경이나 풍토적 차이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묘지는 조성된 순간부터 금기(禁忌)와 숭고(崇高)의 지표를 동시에 갖기도 한다. 금기는 사자(死者)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형성된 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숭고란 사자의 존재를 특정한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자가 되면 모든 과거의 일은 업적이거나 칭송의 차원으로 흐르게 되고, 그와 관계된 사건들은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그가 행한 부정적인 일들은 공공연하게 비판적 시선을 제거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묘지의 역할이 산 자들의 삶을 더욱 유리하게 해주는 사회적 기능이 있는 한, 그 곳에서 행하는 제례는 망자에 대한 단순한 회상이나 추억으로 끝나지 않는다.

묘지의 기념비성이란 살아생전의 사자(死者)의 사회적 권력과 그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가족공동체, 혹은 사회적 공동체적인 갈망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그 기념비성은 결코 의례와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례를 통해 강화되고 보장되도록 승계(承繼)되는 것이다. 의

례는 죽은 자를 현실의 생(生)에서 보다 한 차원 높여주는 성스러운 행위이다. 의례의 중심에는 항상 사회적 지배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으며, 의례야말로 그 이데올로기를 존속시키는 사회적 장치가 된다. 의례를 통해서 가족, 혹은 공동체 사회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벌의 우월감과 개인의 카타르시스를 누린다. 그러므로 의례의 대상이자 의례의 중심에 있는 묘지는 훌륭한 조상의 공덕과 업적을 기리고 이를 회고하는 교훈의 공간이 된다. 그 교훈의 공간이야말로 다른 집안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묘지는 의례를 수행하는 자들의 기념비적인 가치를 지니면서 도덕적으로 승화되고 숭배된다. 그러므로 묘지는 그 자체가 기념비이다. 묘지는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가치가 구현된 의례의 결과물로서 묘비에는 학행(學行)과 이력(履歷)과 훈업(勳業)이 서술되며, 뜻이 아름다운 것은 칭송되고, 악한 점은 대개 거론치 않는다.¹⁾ 묘지는 기념비성을 강조하기 위해 석물로 화려하게 장식되며, 생존 시 사자(死者)의 사회적 권력이나 계급적 지위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표현된다. 묘지는 예사상이 물질로 구현된 의례(儀禮)의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기념비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 유교의 예사상은 조선후기에 와서 조상숭배라는 본질적인 현실성을 넘어서 지나친 겉치레로 가문의 권위와 문벌의 정치성을 띠게 된다. 예사상을 전파하는 가묘와 묘지에서 의례를 통해 자신들의 혈통과 가문을 숭배케 하는 것이다. 건립된 의례공간은 하나의 자랑스러운 상징물로 남아 예사상의 본질적 핵심인 충효사상의 이데올로기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중앙집권화에 이바지하였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예사상의 전파 과정은 중앙집권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성리학의 교육 공간인 향교의 발 빠른 설립에서 보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문맹과 야만의 교육적 교화라는 측면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새로운 사상과 그에 기반(基盤)한 통치력의 집중화를 위해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로서 변방의 모든 풍속과 문화적 차이를 하나의 유교문화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정치적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향교가 이론적으로 유교의 학문을 전파하는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라면, 의례공간은 그것을 실천하고 증명하고 세습하는 현장이었던 셈이다. 그러기 때문에 의례공간에 모셔진 훌륭한 조상들과 그것을 기리는 후손들은 제례 의례를 통해 정신적으로 교감하며, 이 법통은 지역 공동체 사회의 입지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생산하는 혈연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결국 가문과 혈통의 이데올로기를 통합하는 가묘와 묘지라는 의례공간은 가족 내에 기능하는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치적 장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리글(Riegl, A)이 ‘계획적인 기념물’(intentional monument)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분명한 목적 아래 조성된 의례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의례공간들은 기념비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기념비는 이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자극을 주어 기념비가 기념하고 있는 가치를 따라 배우게 하고, 기념비의 활력과 정신으로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한다.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는 “기념비 건축은 원래 사회적 질서의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이 질서를 보증해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람들에게 이를 강요하기까지 한다. 단순한 상징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주인이 돼버렸다”라고 비판적으로 보기도 한다.²⁾

특히 묘지의 기념비성은 시대와 조건에 따라 상징적으로 굴절되거나 변형되면서 발전해 왔다. 익히 아는 것처럼, 묘지는 원래 인류의 사체처리 방법으로 인류의 출현과 함께 여러 형

1) , 2000, 《국역 사계전서》, 419쪽, 서울:민족문화추진회.

2) 우홍, 2001, 《순간과 영원-중국고대의 미술과 건축》, 김병준 옮김, 29쪽~79쪽, 서울:아카넷.

태로 존재해 왔다. 그러던 것이 자연을 대하는 인간 인식의 변화, 사회공동체의 등장, 종교의 발달 등의 영향으로 삶과 죽음의 끈이 더욱 단단하게 융합되면서, 삶의 기반을 사후 세계의 영속으로 가져가려는 수많은 상징적 행위들이 역사 속에서 명멸하였다. 인류의 장법(葬法)이 말해주는 것처럼, ‘모든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순간과 영원의 관계, 집단과 개인의 관계, 세대간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대중 전체와의 관계를 따져 보게 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죽음은 산자의 입장에서 가치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고 죽음의 의례인 장법은 죽은 자보다 산 자를 위한 의식임이 드러나게 된다.³⁾

결국 산 자를 위해 세우는 상징물로서 묘지는, 산 자가 죽은 자에 대해 베풀 수 있는 ‘계획적인 기념물’이며, 이런 기념물을 세우는 상징적 행위는 산 자의 지위와 품위를 죽은 자를 통해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사회제도와 문화적 가치체계들의 기념비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II. 한국의 장묘제도와 의례 공간으로서의 묘지

1. 장묘 제도의 역사적 고찰

장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족, 환경, 시대마다 실로 다양한 형태들이 발달해 왔다. 그 중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보편적인 장법은 토장(土葬)인데, 토장은 시신이 직접적으로 흙과 닿기 때문에 사람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장법이다. 그리고 돌을 쌓아 시신을 가리는 적석총(積石塚)은 구덩이 없이 시신을 그냥 놓고 돌로 덮는 장법으로서 토장법과 함께 가장 오래된 원시적인 장법 중 하나이다. 이런 장법은 추운 지방에서 주로 행하는 장법인데 시베리아 초원지대에서 널리 보급되었고, 바이칼 지방에서는 신석기 시대 초기부터 나타나 기원후 약 3천년 동안이나 유행했으며,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적석총도 이 시베리아에서 남하해 온 전통이라고 믿어진다. 그리고 석관(石棺)을 이용한 장법인 석관묘는 빈부나 계급적 차이를 유추할 수 있는 묘제이며, 석곽(石槨)은 관을 넣는 돌로 된 곁을 말하는 것으로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를 거쳐 기본적인 고대 묘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정상적인 죽음이 아닌, 병사(病死)나 횡사(橫死)에 주로 쓰이는 항아리를 이용하는 장법인 옹관묘제(甕棺墓制)는 주로 어린 아이의 시신을 처리하는 특수한 장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정 지역의 유행을 보이면서 삼국시대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토광목곽묘(土壙木槨墓)는 청동기 시대 후기부터 초기 철기 시대에 걸쳐 새로 퍼진 특수한 묘제인데, 장방형의 광(壙)을 파고 판자나 각재로 상자형의 목곽을 짠 것이며, 내부에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목관을 넣고 그 위에는 봉토를 올리고 있다. 이 토광목곽묘는 고대 북아시아에서 유행된 목곽분(木槨墳)의 전통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위만조선이나 낙랑군 시대의 권력자들의 무덤에 나타난다.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라고 하면 문헌상 삼한시대이고, 이 시기는 역사상 과도기라는 이유에서인지 혹은 실질적인 왕국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인지 거대한 봉토분의 발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구려의 고분은 크게 석총(石塚)과 봉토분으로 나뉜다. 원래 고구려 족의 무덤은 석총인데 강가나 땅을 파기 힘든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묘제이다. 고구려의 석총은 압록강 만주

3) , 2001, 《죽음의 얼굴》, 고양성 옮김, 27~28쪽, 서울:예문.

유역과 평양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으며 고구려 말기까지 존속된 묘제이다. 석총은 고구려 초기에는 간단한 적석묘로 시작되었던 것이 5세기에 와서는 거대한 피라미드형 석총으로 발전하였고, 이와 같이 한편에서는 봉토분이라고 부르는 토총(土塚)이 발전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토총은 석총에 비해 오히려 중국적인 것이다. 기원 1~2세기 요동반도나 낙랑지방을 통해 중국의 장법을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며 고구려에 귀화한 이들이 고구려에서 중국식 봉토분을 조성하고 있었다. 또한 고구려인들은 평안도 지방으로 진출하면서 중국계 봉토분을 접하게 되었고, 동수묘(357년)의 경우처럼 중국계 벽화의 풍습도 알게 되어 예전의 적석총에다 새로운 봉토분의 양식을 채택하여 두 가지 묘제를 병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벽화분은 당시의 왕이나 유력한 귀족들의 무덤으로서 일류급 분묘였다고 할 수 있다.

백제의 고분은 사실상 고구려 계통을 이어받고 있으며 지역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고신라는 기본적으로 지석묘의 지하구조에서 출발하여, 김해시대의 석곽묘로 이어지는 단장묘(單葬墓) 계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점에서 복장용 석실을 기본으로 하는 고구려·백제의 묘제가 다르다고 한다.⁴⁾

1) 신라의 능묘

신라는 삼국통일 후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그 이유는 삼국통일로 인한 인구의 흡수로 말미암아 노동 생산력이 증가했고,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으로 육로와 해상로를 통해 지리적인 제약없이 국제무역이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상인들이 신라로 오기도 했지만 신라 상인들 또한 활발하게 외국으로 진출하였다. 신라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교역 상황의 증거다. 신라방이란 신라인들이 무역을 위해 당나라의 해안 지역인 양주(楊洲), 초주(楚州), 등주(登州) 등지에 설립한 거류지를 통칭하는데 이곳에 신라 거류인을 관할하는 신라소(新羅所)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등주에는 신라관(新羅館)을 세워 신라에서 오는 사신을 접대했고, 유학생을 유숙(留宿)하게 하면서 교역이 더욱 활발히 진행됐다.

신라방은 9세기 중엽 해상왕 장보고(張保臯)가 해상 무역을 주도하면서 크게 번창했다. 9세기 후반 헌강왕 때의 부유한 향락 생활은 이런 활발한 국제무역의 결과였고 신라시대의 활발한 국제무역은 서라벌의 번영을 가져온 긍정적 요인이었다.⁵⁾

신라 왕릉의 형식 구조를 살펴보면 6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봉토만 있고 호석이 없는 형식, 봉토 밑에 자연석을 장치한 형식, 봉토 밑에 가공석으로 석축(石築) 호석(護石)을 돌리고 가공 장판석(長板石)을 기대어 놓은 형식, 능 전방(前方) 좌측에 능비(陵碑)만 세운 형식, 봉토 밑에 판석으로 호석(護石)을 쌓고 탕주(撐柱)에 십이지상(十二支像)을 양각한 형식, 봉토 밑에 판석으로 호석을 쌓고 십이지상을 배치하고 석사자(石獅子), 문인석, 무인석, 석화표(石華表), 능비(陵碑)를 설치한 형식 등이다.⁶⁾

모든 석상들이 그렇듯 그 석상들은 항상 당시의 시대적 미감과 감각에 의해서 탄생한다. 한국의 경우 능묘 앞에 문인석과 무인석을 좌우로 배치하는 형식은 통일신라 때부터 시작된다. 이런 능묘제도는 중국 한나라 이래의 유습으로서 조선시대까지 줄곧 이어지게 된다. 신라의 능묘 석상들은 약 8세기 전반~9세기 전반에 걸쳐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 시기에 만

4) , 1999, 《한국의 고분》, 55쪽~78쪽,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5) 이덕일, 2003, 《살아있는 한국사》, 306~308쪽, 서울:휴머니스트.

6) 문화재관리국, 1975, 《문화재대관-사적편》, 97쪽~99쪽, 서울:삼화인쇄주식회사.

들어진 능묘 조각들은 사실적인 고전미를 보여주는 신라시대 전성기의 조각들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능묘 석상을 살펴보자. 신라 원성왕(元聖王, 재위 784~798)의 능으로 알려진 경주 패릉(掛陵)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능묘다. 패릉이 원성왕(元聖王)의 능이라는 설은 가까운 거리에 송복사지(崇福寺址)가 있고 송복사의 비문과 송복사와 능의 위치로 보아, 패릉은 원성왕의 능으로 보고 있다. 원성왕은 신라 제38대 왕이며 김씨이다. 이름은 경신(敬信)이고 내물왕(奈勿王)의 12세손이다. 14년 재위 기간 동안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두고 벽골제(碧骨堤)를 증축하는 치세를 남겼다. 14년 12월에 돌아가 시자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능은 토함산 서쪽 洞鵠寺에 있는데 지금의 송복사(崇福寺)다’라 하였고,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유명(遺命)에 의하여 奉德寺 남쪽에서 화장(火葬)을 지냈다’고 기록돼 있다.

경북 월성군 외동면 패릉리에 소재하는 패릉(掛陵)은 송림이 울창한 가운데 트인 공간에 원형토분의 능침이 있다. 봉분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神道) 입구 쪽에 석사자 2쌍, 문인석 1쌍, 무인석 1쌍, 석화표(石華表)가 마주보고 서 있다.

이와 같은 석물의 배치는 736년경 성덕왕릉에서 갖추어졌지만 패릉의 석물들이 훨씬 조각수법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이 자유롭고 활달한 십이지상, 능숙한 석조기술을 보여주는 석사자, 문·무인석상의 사실적인 조각 수법은 어느 왕릉의 석상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패릉의 문·무인석상은 풍모 자체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오랫동안 무인상은 단지 서역인 정도로만 알려졌는데 근래에 와서 이 문·무인석상은 위구르와 이란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패릉의 문인석상을 <삼국유사>에 나오는 하서국인(河西國人)을 빗대어 위구르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무인석상을 중국에서 호인(胡人)이라고 부르던 이란인의 ‘눈은 움푹 파이고 코가 우뚝한(深目高鼻)’ 안면 특징과 사산왕조의 복식의 특징을 들어 문인석은 위구르계이며, 무인석은 이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⁷⁾

패릉의 문인석상은 매우 안정적이고 근엄한 기운이 도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정적인 자세로 바로 서있는 상이다. 이국인 풍모인 이 상은 비례가 안정적으로 처리되었고, 선각(線刻)이 매우 부드러우며 서 있는 자세가 자연스럽다. 특히 안면 표현의 사실성은 인물의 성격과 특징, 인종의 풍모를 잘 드러내 준다. 무인석상은 당의 도용(陶俑)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호인상(胡人像)과 유사하다. 깊이 파이고 부릅뜬 눈, 힘이 들어간 눈썹과 미간, 위로 솟은 코, 바람에 날릴 듯한 턱수염, 역동적인 몸체와 단련된 근육질의 팔뚝을 보더라도 전형적인 무사상임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으며 칼을 든 모습에서 불교 신장상의 역동성과 위엄을 느낄 수 있다. 통일신라의 능묘 수호신이 왜 이국인인가는 당시의 사회적인 조건을 말해준다. 미술사학자 권영필은 신라문화는 ‘고신라 시대부터 북방성을 지닌 서역풍(스키타이, 헬레니즘)이 강했으며, 통일신라는 주로 당과의 교섭을 통해 서역계통(이란의 사산왕조)을 받아들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당(唐)을 선진모델로 삼고 있었던 신라는 당의 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당연했으며, 진평왕 43년(621) 처음으로 당에 사신을 파견한 이후 멸망 때까지 약 300년간 150여회의 조공사(朝貢使)를 파견했다.

특히 통일신라의 성덕왕(聖德王, 재위 702~737)때 집중적인 교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8세기 전반기는 통일신라의 최고의 전성기일 뿐만 아니라, 그 시기는 바로 당도 이란문화 등 외래문물 흡수에 심취해 있던 황금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원성왕 때 신라에 온 북방사자 ‘하서국인’들의 존재도 이러한 대외교섭의 테두리 속에서 이해되어야하며

7) , 1997, 《실�크로드 미술-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 230쪽, 서울:열화당.

이들이 신라인들로 하여금 이국 용모의 능묘 인물상을 제작하는 데 직접적인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⁸⁾

흥덕왕(興德王, 재위 826~836)은 신라 제42대 왕으로서 이 왕의 능은 신라 역대 왕릉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진 대표적인 신라 왕릉이다. 이 왕릉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왕비와 합장되었다고 한다.

이 능묘 사방에는 각각 석사자 한 마리씩이 배치되었고 신도 입구 쪽 전방에 문·무인석 1쌍씩을 마주 배치하고 있으며, 거리를 두고 석화표(石華表) 1쌍을 세웠다.

이 왕릉의 석물들의 양식을 살펴 보면, 십이지상의 조각 수법은 원성왕릉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수준이 떨어진다. 석사자의 배치는 성덕왕릉의 형식을 따라 봉분 사방에 배치했고, 전면에 문인석과 무인석 배치는 성덕왕릉과 원성왕릉과 같으며 이의 문·무인석을 모방하였음이 역력하다.⁹⁾

이런 사실은 능묘제도가 통일신라에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해준다. 결론적으로 당나라를 통해 중국의 능묘제도를 정착시킨 통일신라시대의 능묘제도는 이후 조선시대까지 계승되면서 시대마다 특징 있는 석인상을 만들어 냈다.

2) 고려의 능묘

고려는 무력적 방법과 회유로 신라와 후백제, 그리고 지방 봉건세력들을 귀순시켰다. 935년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 항복하였고, 같은 해 후백제 견훤이 고려로 망명했으며 이듬해에 후백제가 멸망했다. 발해의 이주민(移住民)들이 926년 이후 계속 고려로 이주해 왔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통일왕조를 건설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자처하여 국호를 고려로 썼으며, 10세기말 북진정책을 펴 청천강 유역까지 국경을 넓혔다. 또한 신라의 전통을 이어받으려고 신라 귀족들을 우대했으며 신라왕실의 여자를 비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태조의 통일은 안정적인 통일은 아니었다. 그 통일은 대립되는 정권의 소멸일 뿐 여전히 지방의 성주들은 후삼국의 혼란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반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여전히 지방호족들은 사병을 거느리며 세력을 유지했다. 태조는 이들과의 타협과 연합 속에 정권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¹⁰⁾

10세기 초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여 신축성 있는 외교정책과 적극적인 군사 활동으로 3차례에 걸친 거란 침략을 물리친 것은 고려의 자존적인 승리였고, 이후의 역사발전과 미술문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는 종교적 색채의 미술이 선명한 시기이다. 특히 불교 교리가 고려왕조의 지배적인 사상이 되면서 불교 미술이 성황을 이루었으며 유교, 풍수지리설 등이 부활하면서 종교 미술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11~12세기 미술은 안정된 정세와 경제, 문화 분야의 성과를 토대로 급속히 발전하게 된다. 인류역사상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으며, 고려자기, 비단, 종이, 먹, 붓 등 수준 높은 수공업제품을 만들어 활발하게 송, 거란, 여진, 일본, 아라비아까지 대외무역을 전개했다. 더불어 귀족적인 취향이 발전하면서 형식적인 미의식의 기운이 움텄다. 한편으론 미술의 현실적인 반영의 노력도 병행하면서 전개되고 있었다.

13세기 초~14세기 말 고려왕조가 멸망하기까지 미술은 어려운 시대적 조건을 넘어야만 했다. 원나라의 침략으로 고려는 국운의 위기를 맞이했고, 왜구의 약탈행위에도 맞서야만

8) 책, 163쪽.

9) 문화재관리국, 같은 책, 112쪽.

10) 이기백, 1990, 《한국사신론》, 143~147쪽, 서울:일조각.

했다. 특히 14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불교미술과 대치되어 유교미술이 시대적 조류로 되었다.

고려시대의 조각으로는 불상, 불탑, 부도 등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고려불화 등의 회화, 공예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비해 조각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못했다.

고려시대의 능묘는 크게 왕릉, 귀족 및 상류계급의 분묘, 일반분묘, 승려의 분묘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다시 구조상으로 석실묘, 석관묘, 토광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왕릉과 귀족들은 석실묘를, 일반인들은 간단한 석곽묘나 토광묘를 쓴 것으로 보여진다.

고려시대의 왕릉은 개성을 둘러싼 산악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 개성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고도는 해발 100m 정도에 있다. 고려 33왕 중 능의 소재가 확실한 것은 공민왕 현릉(玄陵, 1374)을 포함한 19능이다.

고려의 왕릉은 시대 변화에 의해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으나 비교적 원형 보존 상태가 좋은 현릉(獻陵, 975), 소릉(1274), 7릉군을 통해 살펴보면, 능역은 대략 동서 18m 남북 36m 정도의 장방형 구역의 3면에 돌담을 돌리고, 다시 구역 안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낮아지는 4개의 단을 만들어 그 최상부에 능과 상석, 망주석, 제2단에 장명등을 사이에 두고 문석인을, 제3단에 무석인, 제4단에는 정자각과 능비를 세웠다.

능 봉분 자체는 높이 3~5m 정도, 직경 6~9m로 신라 왕릉처럼 봉토 아래쪽에 면석(面石)과 12지 호석(護石)을 둘렀고, 돌난간과 석수가 배치되어 있다.¹¹⁾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에 자리 잡은 공민왕릉은 왕비인 노국공주가 죽은 후인 1365년부터 1372년에 만들었다. 이 능은 고려시기 다른 왕릉의 무덤형식을 그대로 본 따고 있으나 쌍분(雙墳)으로 만들어졌고, 규모가 가장 크며 여러 가지 장식조각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예술적 수준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이 특색이다.

고려의 문·무관석은 이전 시기의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다보니 개념적인 석상에 머물렀다. 고려 말기에 이르러 공민왕릉의 석상들은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 양상을 보여주었다. 공민왕릉의 석상들이 진일보한 예술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석상들이 그의 생존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공민왕 자신이 재능 있는 화가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공민왕릉의 문·무관석은 3~3.5m의 크기이며 가운데 단에 문석인 2쌍과 바로 아랫단에 무석인 2쌍이 생동감 있게 마주 보고 서 있다. 공민왕릉의 문·무관석들이 고려의 다른 왕릉에 비해 인체 비례나 자세, 동세가 자연스럽고 선각처리가 부드럽다. 문관석은 긴 소매를 늘어뜨리고 정면을 향해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섰다. 노국공주의 무관석은 한 쌍은 허리에 칼을 차고 손을 가슴 위로 모아 쥔 형상이며, 다른 무석인 한 쌍은 칼을 배 아래에 세운 형상인데 전체적인 표현이 매우 정교하다. 공민왕릉의 생동감 있는 문·무관석들은 고려시대 능묘 석상 중 가장 조형적 수준이 높은 석상으로 기념비성과 장식성을 조화롭게 맺어주고 있으며 중세 무덤조각들 중 가장 우수한 조각으로 평가받고 있다.¹²⁾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의 도상을 통해 살펴보면 다른 왕릉의 문·무석인들은 공민왕릉의 석상들에 비해 얼굴이나 몸체가 개념적으로 처리되어 장승이나 벽수의 형상에 가까운 것들도 있다. 이 문·무석인들은 각주형태의 통석에 얼굴부분을 크게 윤각 처리하고 몸체로 내려와서는 간단한 의습선(衣褶線)에 긴 홀을 잡은 모습만을 새겨 넣은 극히 단조로운 형식을 보여준다. 몇몇의 왕릉 석상을 제외하고는 입석형태에서 출발한 고졸미(古拙美)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11) , 같은 책, 202~209쪽.

12) 조선미술가동맹, 《조선미술사》, 201~208쪽, 서울:한마당.

이런 경향은 사대부 묘에서도 나타난다. 고려 문신 정몽주(鄭夢周, 1337~1392) 묘의 문석인은 복두를 썼고 눈이 투박하게 크며 손은 작고 홀은 크게 표현되는 고졸미를 보여준다. 강화도에 있는 백운거사 이규보(李奎報, 1168~1241) 묘는 원묘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던 명성과는 달리 묘지의 치장은 소박한 편이다. 그의 묘에는 석양이 둘, 문석인 둘이 지키고 있을 뿐, 평범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 문석인 눈이 보다 크게 강조되어 있고 입석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경기도 포곡면 신원 3리 신원저수지 위쪽에 위치한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무신이었던 이애(李薺, 1363~1414)·경신공주(慶愼公主) 묘는 방형의 묘이며 기단이 둘러져 있다. 이 방형묘는 계체석(階砌石)이 2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계·중계·하계로 구분되는 묘제 형식이다. 경신공주는 태조의 8남 5녀 중 맏딸이다. 왕족인 경신공주와 1등 공신으로 책봉되었던 이애를 예우한 묘제로 추정된다.¹⁴⁾

이 묘지의 석인은 병것을 쓴 무인으로 큰 윤곽만을 강조하며 만들어진 석상이다. 이 석상은 고려시대 의상을 입은 석상으로 돌하르방의 형태적 특성의 근원을 유추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고려시대 능묘조각들의 두 양상은 먼저 공민왕릉의 석상 형식을 계기로 사실성에 바탕을 둔 조각이 조선시대 능묘조각의 형식미에 직접 영향을 끼쳤고, 개념적이고 단조로운 입석형태의 문·무석인상 형식은 오히려 조선시대 장승·벽수와 같은 민간 신앙적인 조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선의 능묘

이성계는 고려말기에 새로 등장한 신진 세력으로 여러 차례 전쟁에서 공로를 세웠다. 그는 최영과 더불어 명장으로 불리는 장수로서 위화도 회군 후 정도전 등을 위시한 신흥 사대부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정권을 쥐면서 사대부 관료들의 추대를 받아 조선 왕조를 건설하였다. 태조 이성계(太祖, 1392~1398)는 국호를 조선(朝鮮)이라 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겨 새로운 왕조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한양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 정치에 실권을 쥔 사대부 출신의 개국공신들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라는 회의기관을 중심으로 권력을 모으고 유교적인 이상정치를 표방하며 자신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법전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과 《경제육전(經濟六典)》을 만들어 정치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개국공신들의 정치는 마치 고려 귀족정치의 재현과도 같은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로는 국왕과 아래로는 다른 많은 사대부들이 불만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이방원(太宗)의 정도전(鄭道傳) 숙청이었다. 태종(太宗, 1400~1418)은 부왕 태조와 개국공신들이 세자로 책봉한 동생 방석(芳碩)과 그의 스승 정도전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태종은 사병(私兵)을 혁파하여 병권을 집중시켰고, 정치의 실무를 분산시키기 위해 육조(六曹) 체제의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시행하였고, 이 체제를 반영하여 《경제육전》을 보완하여 《원육전(元六典)》과 《속육전(續六典)》을 만들게 되었다.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世宗, 1418~1450)은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여기에 우수한 학자들을 배속시켜 중국의 고전과 제도를 연구케 하여 국가의 정치체제를 정비하였다. 그 결과 집현전 학자들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되었다.

이런 정치적 변화는 세조(世祖, 1455~1468)의 반발을 불러왔고 세조는 일부 불평 사대부

13) , 1999,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921~939쪽, 서울:圖書出版 民族文化.

14) 용인시사편찬위원회·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01, 《용인의 분묘문화》, 255쪽.

의 도움을 받아 조카인 단종(端宗, 1452~1455)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단종을 위시하여 정적(政敵)이 되는 김종서, 황보인 등과 사육신을 살해하였다. 세조는 중앙집권체제의 기본이 되는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을 시작하고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성종 16년(1485)에야 반포시행하게 되었고 이로써 회의기관에서 보다는 왕과 신하들에 의해 국가 정치가 실현되는 조선왕조 통치체제의 기틀이 완성되었다.¹⁵⁾

동구릉(東九陵)은 사적 제139호로 태종 8년(1408) 9월 태조의 건원릉(健元陵)을 위시하여, 현릉(顯陵; 제5대 문종과 그의 비 현덕왕후 권씨의 능), 목릉(穆陵; 제14대 선조와 그의 비 의인왕후 박씨의 능), 휘릉(徽陵; 제16대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조씨의 능), 숭능(崇陵; 제18대 현종과 그의 비 명성왕후 김씨의 능), 혜릉(惠陵; 제20대 경종의 정비 단의 왕후의 능), 원릉(元陵; 제21대 영조와 그의 계비 정순왕후의 능), 수릉(綏陵; 추존 문조와 그의 비 신정왕후의 능), 경릉(景陵; 제24대 헌종과 그의 비 효현왕후 김씨와 계비 효정왕후 홍씨의 능으로 한 언덕에 3쌍의 능) 등 9릉 17위의 왕과 왕비가 안장되어 있다. 동구릉이라 명명된 것은 철종 6년(1855) 8월 26일 수릉(추존 문조, 순조의 장남)을 9번째로 모신 이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동오릉(東五陵), 동칠릉(東七陵)으로 부른 기록이 전한다. 태조 이성계의 능은 동구릉에서도 중앙 깊숙한 곳에 있다.

태조의 건원릉은 고려 공민왕(恭愍王)과 노국공주(魯國公主)의 현정릉(玄正陵)의 능제를 기본으로 만들었다. 문무석인의 크기는 220~230cm 내외이다. 건원릉은 삼면(三面)의 곡장(曲牆) 안에 봉분을 쌓고 봉분 중앙에 상석과 장명등, 좌우에 망주석 한쌍을 두었다. 바로 한 단 밑으로 문석인과 문석인 뒤로 석마를 세웠고, 다시 한 단 아래 무석인과 석마를 세웠다. 그러나 병풍석의 문양이나 문석인, 무석인 등의 양식에서 고려 현정릉의 영향을 느낄 수 있지만, 석호(石虎), 석양(石羊), 장명등, 난간석주는 새로운 양식을 도입하여 새 왕조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했다.¹⁶⁾

건원릉의 문석인은 복두를 쓰고 두 손을 공복에 집어넣은 채 가슴 밑으로 공손하게 모아 쥔 형태다. 비교적 작은 눈은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으며 다시 음각 선으로 눈동자를 묘사하였다. 의습선(衣褶線)은 크고 단조롭게 표현되어 있고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문석인 뒤로는 토실토실하게 보이는 석마가 대기하고 있다. 무석인은 투구를 쓰고 풍성한 수염을 안정적으로 늘어뜨리고 여유 있는 자세로 칼을 세우고 서 있는 형상이다. 눈에는 힘이 들어가 있어 의기가 보이고, 굳게 다문 입 때문에 볼에 근육이 섰다. 갑옷의 표현은 세밀하여 실제감을 느낄 수 있다. 칼자루를 짚은 손의 표현방법은 우연하게도 제주의 동자석 중 18세기의 동자석들에서 동일한 표현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건원릉을 위시한 조선초기의 문·무석인들은 고려의 양식을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능인 헌릉(獻陵)에서 석물 양식과 조각 수법이 퇴화되어 갔다. 이 왕릉 이후부터 얼굴과 몸통이 비대해지고 신체비례가 불균형을 이루고, 눈은 아주 크고 불쑥 튀어나온데다 중근동 지역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 선조의 능인 목릉(穆陵)에 이르러 실제 사람의 체격과 비슷한 모양을 갖추게 되고 숙종의 명릉까지 이어진다.¹⁷⁾

조선왕조의 능묘제도는 석물에 중심을 둔다. 석물은 산자의 염원을 담고 죽은 왕이 언제나 살아생전의 권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념비성을 띤다. 돌은 오래전부터 영생의 상

15) , 같은 책, 221~237쪽.

16) 한국문화원편집실, 1995, 《왕릉》, 21~30쪽, 서울:한국문화원.

17) 은광준, 2004, <석물, 영혼을 위로하고 진리를 밝히는 돌>, 《한국의 석조문화》, 415쪽, 서울:다른 세상.

정으로 여겨진 만큼 돌이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을 엄두에 두어 왕릉의 석물이 제작됐을 것이다. 이러한 왕릉의 석물 전통이 사대부나 민간에 와서 비록 그 규모가 제한되었지만, 이런 돌의 영생력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 조선시대의 무덤 석상의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나 민묘의 동자석의 전통은 바로 왕릉의 석물 전통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왕릉에는 동자석을 세운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미미하다. 간혹 동자석이라고 명명된 석상이 대군 묘에 있지만 금관 조복을 입은 문석인을 축소한 형상일 뿐 조선시대 동자석의 형상과는 거리가 멀다.

분명 사대부의 묘나 민묘의 동자석은 왕릉의 석물을 그대로 세울 수 없다는 신분의 제한 때문에 새롭게 변형되어 만들어진 것들이다. 사대부묘의 석물이 대체로 문석인 한 쌍과 동자석 한 쌍, 혹은 문석인 한 쌍이거나, 동자석 한 쌍만의 형식이 주가 되는 것을 볼 때 동자석은 분명 왕릉에 다가갈 수 없는 신분의 벽 때문에 생겨난 석상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사대부나 민묘의 석상들은 조선 전역에 분포되어 지역마다 색다른 풍토성을 남기며 어느 시대보다도 수가 많고 다양한 조선시대의 석물 전통을 만들어 내었다.

제주도의 무덤 석물 또한 크게는 조선시대 능묘제도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서 발전하지만, 본토의 석물 형식에서 비껴가는 양식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제주형 석물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전통을 ‘모방변형’이라 부를 수 있는데 ‘모방변형’이란 석공이 “형상적인 것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하나, 재료상의 커다란 상이성과 조각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원형(原形) 모방이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때 그 석물은 원형과는 전혀 다른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정착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주의 석상은 바로 기공이 많은 현무암이라는 재료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석공들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모방변형’이 되어 새로운 석상 양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모방변형’의 개념과는 반대로 ‘창조적 변형’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모델링의 모작(模作) 단계를 뛰어넘는 창작자의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지칭한다. 기존의 양식을 고루하게 답습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형식실험 단계인 이 ‘창조적 변형’은, 외형적 리얼리티를 중시하기보다는 인간의 내면적 정신세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현대 조각의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2. 의례공간으로서의 묘지

1) 유교와 의례

유교는 조선조의 국가 종교로서 강력한 중앙집권을 이루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조선조 유교의 중심사상이 되는 성리학은 고려 후기 안향(安珦) 등에 의해 전파되었다. 고려 후기 성리학은 처음 《小學》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실천윤리를 중요시하는 면에서 수용되었다. 그러나 점차 인생과 우주의 근원을 형이상학적으로 해명하는 철학적인 국면이 발전하였고, 정치적인 도덕으로는 군신(君臣)의 의(義)를 강조하고, 이단(異端)을 배척하였다. 공덕사상(功德思想) 중심의 불교에도, 사장(詞章)과 훈고(訓誨) 중심의 유교에도 만족할 수 없는 신흥사대부들은 이 같은 성리학을 그들의 정신적 지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성리학의 전파는 불교배척의 기운을 조성하였다. 처음에는 불교자체를 배척한다기보다 불교사원의 폐해나 승려의 비행들을 공격하였지만, 정도전 등은 불교 자체를 인간이 윤리를 무시하고 나라를 해치는 것이라 하여 이를 극력 배격하였다. 이들은 비단 불교뿐만 아

나라 친족혼(親族婚)이라든가 지나친 향락 등에 대해서도 공격하였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여 가묘(家廟)를 세우고 상장제례(喪葬祭禮)에서 불교의식을 폐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의 일이었다.¹⁸⁾

덧붙이면 조선왕조가 유교를 국가 종교로 채택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고려말 사원 경제의 비대화와 문란에 따른 중소 지주의 신분적 배경을 가진 신진 사류(士類)나 무인(武人)출신의 이익의 잠식과 군자(軍資)획득의 곤란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중심인물이 이성계였으며, 그 밑에서 조준(趙浚)과 정도전(鄭道傳)과 같은 강경파의 주장이 새로운 정권의 이데올로기로서 적극적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고려, 조선조의 지배종교의 교체는 사회적인 필연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작위(作爲)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이 옳을 것이다.¹⁹⁾

그러나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유학은 원시유학(原始儒學)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고, 유교적 세계관이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정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했으며, 조준의 전제개혁이라든지 정도전의 제도개혁은 국가의 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지극히 실용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정도전의 척불론(斥佛論) 역시 국가종교로서 유교의 제도적 확립을 위한 소극적 대안이었지 하층민의 종교적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적극적 시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조선조 건국 당초의 이러한 종교 정책은 조선시대를 관류하는 지식층의 구제론(救濟論), 즉 성리학자 및 그를 추수하는 지성인들의 거경궁리(居敬窮理)에 입각한 천도(天道)라는 이상의 추구하고 민중적 종교의식의 이분화를 가져오는 단초가 된다. 즉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유교 이념의 강제는 민중의 풍부한 상상력에 의한 세계관의 구성과는 대응하는 것이며 국가종교가 이러한 민중의 종교의식을 수렴하는 데는 형식화된 제율(制律)로써만은 불가능했다는 것이 조선시대의 역사적 경험이었다.²⁰⁾

한편, 조선전기의 지배구조는 업적중심의 양반관료의 지배체제였고 따라서 특수신분의 우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으므로 특수주의라 할 수 있다. 또한, 통치 목표(goal)는 중앙집권의 강화에 따른 직접 지배의 형태인 것이다. 모든 군현(郡縣)에는 반드시 중앙관리(京官)가 직접 파견되어 권력의 지방적 분산을 미리 방지하였다.

양반중심의 지배구조는 특수주의와 업적주의를 특질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권력의 중앙집중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권력이 권력의 집중이라는 국면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체제의 지방적 지배는 신분 계급을 막론하고 백성의 의식구조나 세계관을 모두 중앙의 한군데로 수렴하고 아울러 성리학적인 관급(官給)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²¹⁾

결국 성리학적인 보편주의 이상은 가족주의적인 귀속의식을 더 한층 공고히 함으로써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통합을 강화하게 된다. 《가례(家禮)》는 바로 그것의 구체화된 표현이며, 혈통중심의 가족주의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봉당(朋黨)이나 서원(書院)의 발전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주의는 현실 원리에 입각하여 성리학의 계제(階梯) 질서적인 명분론의 보편

18) 위 의 책, 225~226쪽.

19) 황선명, 1985, 《조선종교사회사연구》, 320쪽, 서울:일지사.

20) 위의 책, 33쪽.

21) 위의 책, 42쪽.

타당한 세계관으로 나타난다. 성리학의 명분론 - 과거 관료제 - 양반관료의 지배구조 - 혈통·가족주의는, 특수주의 - 소속주의라는 조선시대의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완결체계이며 스스로 폐쇄적인 제약성으로 인해 계급적 선민의식을 강화하는 대신, 배타적인 고립주의를 고수함으로써 조선시대의 문화 일반은 물론 제종교의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신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는 다름 아닌 ‘의례(儀禮)’였다. 지배구조의 계제(階梯)적 편성원리를 뒷받침하는 관념 형태가 바로 유교의 종교적 특질인 의례인 것이다. 또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심화한 것이 성리학이다.

우선 국가의례는 혈통에 기반을 둔 왕권의 신성불가침성을 천명(天命)에 의하여 보증 받는 제의적(祭儀的) 절차인바 양반 사대부 신분층의 가족의례의 모형((母型)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가족의례를 통해서 혈통의 확인과 비양반(非兩班) 신분층과의 계층적 차별상을 확인하고 지배구조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임을 깨닫는다.²²⁾

2) 의례공간으로서의 묘지

앞서 의례는 조선시대의 지배구조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관념형태이며 이데올로기 국가장치임을 확인하였다. 장철수는 《韓國의 冠婚喪祭》에서 실제적이며, 제의(祭儀)로서 표현되는 의례와 행위는 모두 의도적이며, 자발적이며, 반복적인 것으로 양식화된 상징적인 신체행위라 한다. 그러한 행위들이 우주적 구조나 신성한 존재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의례(儀禮)라 부르고 있으며, 그렇지 않고 신도들끼리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예절(禮節)’이라고 불러 구분하고 있다. 의례와 예절은 종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규범적 형태와 관계 속에 인간의 신체적 행동을 의도적으로 개입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으로 하여금 개인적 자아를 초극(超克)시켜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공동체 사회의 지속적인 형태와 진정한 행태 속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는 의례와 예절을 통해서 집단생활을 위한 개인의 행동구조를 나타내주고 있다.²³⁾

유교의 의례는 크게 관혼상제(冠婚喪祭)로 나뉜다. 관혼상제는 ‘예(禮)’를 바탕으로 한 성리학 이념의 실천적 제도로 《주자가례(朱子家禮)》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한 것이다. 유교의 의례는 그 성격상 제례로 행위화 되었다. 제례를 통해 사회의 갈등은 물론 자손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례(祭禮)란 신의 뜻을 받아 복을 비는 의례이지만 일반적으로 유교에서는 조상신에 대한 의례를 뜻한다. 그러므로 유교의 제례에서는 죽음을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여 죽음의 세계를 신성한 세계로 생각하면서 조상제례(祖上祭禮)를 행한다. 조상제례는 바로 죽음의 신성한 세계를 확인해주는 의례행위로서 혈연과 가문의 자존을 온존시키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조상제례가 행해지는 장소인 정침(正寢), 가묘(家廟), 묘지(墓地)는 신성한 공간이 된다.

제례를 치르는 공간은 하나의 성역과도 같다. 유교적 질서에서는 살림집이 생활공간과 의례공간으로 공용되다가 태종 1년(1401) 법이 제정되면서 가묘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다시 말해 살림공간에 공존하던 의례공간이 가묘의 설립으로 새로운 성리학적 공간으로 분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22) 책, 44~49쪽.

23) 장철수, 1995, 《한국의 관혼상제》, 16쪽, 서울:집문당.

조선시대의 유교적 공간을 분류해 보면 ‘수기공간(修己空間)’과 ‘의례공간(儀禮空間)’으로 나눌 수 있다. ‘수기공간(修己空間)’이란 유교식 가르침을 받들기 위한 일상공간으로서 성인에 이르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성인에 이르는 방법이란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인데, 거경(居敬)이란 배움에 임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의 준비태도이며, 궁리(窮理)는 사물의 이치를 객관적으로 고찰한다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말한다.²⁴⁾

따라서 의례공간이란 유교식 제례를 거행하는 공간으로 국가적으로는 종묘사직이며, 민(民)의 입장에서는 가묘와 무덤이다. 이 가묘와 무덤은 유교적 생활공간의 한 차원에 존재하면서도 조상숭배를 위한 의례공간이기 때문에 매우 신성시된다.

묘지의 다른 말로서 무덤은 어원적으로 볼 때 ‘묻다(埋)’라는 동사의 어간 ‘묻’에 명사화 접미어 ‘임’이 맞춤법 규정에 따라 ‘무덤’으로 표기된 것으로서 ‘죽(死)’+‘임’이 ‘주검’으로 표기된 것과 같은 예이다.²⁵⁾

무덤의 한자말인 묘지를 지칭하는 말로는 墓, 墓所, 墳, 封, 封墳, 塋, 園, 陵, 所, 山, 山所, 墳墓, 塚, 丘 등이 있다. 묘지란 사체처리를 위한 매장시설이자 사자(死者)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물이다. 그러므로 묘지는 문벌과 집안의 정치적 권세를 나타내는 일종의 기념비성(monumentality)을 띠기도 한다. 묘지의 규모는 곧 권세의 상징이며, 암묵적인 정치적 과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묘지는 사자들의 집이자 영혼의 안식처이다. 유교에서의 죽음은 조상이 살아 있는 것처럼 단지 장소만 이동한 것으로서 단번에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무덤을 ‘거처’라는 의미의 집 택(宅)자를 써서 음택(陰宅)이라거나 유택(幽宅)이라고 하여 조상에 대한 예(禮)를 생존 시처럼 갖춘다. 음택은 양택(陽宅)에 조응하는 말로 두 말 할 것도 없이 죽은 사람의 집을 말한다. 유택의 유(幽)는 명택(明宅)의 명(明)에 대비되는 말인데 숨다, 그윽하다, 어둡다, 저승, 귀신 등을 나타내므로 흔히 음택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음택, 유택은 양택, 명택과 함께 인간의 삶이 죽음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조상을 ‘禮’로 받들고 그 실천 덕목인 효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손들은 무덤의 터를 고를 때에도 온갖 정성을 쏟아 길지(吉地)를 택한다. 길지(吉地)는 죽은 자를 위해 길한 자리와 길한 방위로 집자리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다. 직접적으로는 길지를 택하는 이유가 죽은 이를 위한 지역방위설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살아있는 후손들을 겨냥한 지역방위설이기도 했던 것이다.²⁶⁾

따라서 이런 행동의 배경에는 길지를 택해 조상을 잘 위하면 동기감응(同氣感應)하여 자손에게 무사안녕(無事安寧)과 발복(發福)을 가져다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곧, 조상을 위한다는 것은 그 집안의 길흉화복(吉凶和福)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인해 투장(偷葬), 암장(暗葬)의 극단적 행동으로까지 확대되어 결국 무덤자리를 놓고 집안 간 싸우는 ‘산송(山訟)’으로 번지게 된 사례도 많다. 이 산송(山訟)이야말로 조상숭배사상의 극단적인 표현이었던 것이다.

묘지에서 행해지는 제례의 종류는 홍석모(洪錫模)의 《東國歲時記》 三月 ‘한식(寒食)’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4) , 장동수, 1994, 《마을숲》, 120쪽, 서울:열화당.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쪽, 서울:웅진출판.

26) 김열규, 2002,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97쪽, 서울:궁리.

한양 풍속에 무덤에 올라가서 제사를 올리는 풍속은 설날 아침, 한식, 단오, 추석에 행한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풍속을 좇는 가풍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한식과 추석 때 성행한다. ... 공자가 묘를 바라보며 때에 따라 제를 지내는 것을 택하였으므로 이른바 묘제는 이로부터 나온 것이다. ...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은 계절에 지내는 제사이며, 이에 조정에서 동짓달을 더해 다섯 절(節)의 제사가 된 것이 우리의 풍속이다.²⁷⁾

이와 같이 묘지에서 행해지는 제례가 계절별로 다섯 종류이며, 묘제의 시작을 공자의 행동에서 본받아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 크게 제례로는 집안 종손이 4대조 조상만을 모시는 기제사(忌祭祀)와 설날과 추석에 차례와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종손의 5대 이상의 조상을 위한 묘제(墓祭) 또는 시제(時祭)가 있다. 묘지에서 제사지내는 것을 묘제라고 부르는 데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단지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그 종류나 형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묘지에서 지내는 묘제란 어떤 지역에 문중을 형성하고 있는 씨족(氏族)마을 성원들이 그 문중의 중시조(中始祖)나 입향시조(入鄕始祖)를 시작으로 해서 5대조 이상의 조상을 위해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²⁸⁾

이런 묘제나 시제는 신분 위세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향촌사회에서의 지배계층은 양반이며 이 양반 안에서도 여러 등급이 있다. 좀 더 훌륭한 양반이 되는 조건 가운데 중요한 것은 ‘훌륭한 조상’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곧 이 신분 위세의 중요한 요건은 훌륭한 조상을 자랑하고 내세우며 그 벼슬한 조상과 자손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시제는 바로 이 신분 주장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지닌다.²⁹⁾ 무덤의 크기나 석물 수효 또한 이와 같은 ‘신분 위세’의 표시이니 곧 ‘신분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성호(星湖) 이익(李瀾)은 《星湖僿說》 〈염철론(鹽鐵論)〉에서 묘지의 지나친 치장이 효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집안 뽐내기라고 지적한다.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장사는 지내지만 봉분도 만들지 않고 나무도 심지 않았으며, 정침(正寢)에서 제사지내고 사당의 위패도 없었는데, 후세에 와서는 서인의 봉분도 그 높이가 반 길이나 되어 사람이 숨을 만하며, 오늘날의 부유한 자는 흙을 쌓아 산더미처럼 만들고, 나무를 줄지어 심으니 숲을 이룬다. 그리고 부모 생전에는 사랑과 공경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모가 죽으면 무덤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을 서로 뽐낸다. 비록 슬퍼하는 마음은 없을지라도 장사를 두텁게 지내고 폐백을 무겁게 하는 것을 효도로 삼는다.³⁰⁾

다시 성호(星湖)는 “효자의 정리(情理)는 한계가 없는 것이기에 가난한 집안에서 부귀한 자를 본떠서 한 가지라도 갖추어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겨 힘겨운 것을 돌보지 않고 겉으로만 화려하게 하는 것”이나 “국상(國喪)에 있어 임금의 사사로운 뜻에 맡겨 재정을 낭비하고 금은보화(金銀寶貨)를 산릉(山陵)에 채워 백성의 삶을 해롭게 하는 것 또한 옳은 일이 아니” 라고 말하고 있다.³¹⁾

유교의 예사상은 조선후기에 와서 많은 유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본질적인 현실성에

27) , 1995, 《한국세시풍속기》, 162~163쪽, 서울:집문당.

28) 임돈희, 1996, 《조상제례》, 22~23쪽, 서울:대원사.

29) 위의 책, 28쪽.

30) 李瀾, 1998, 《성호사설 精選》, 鄭海廉 編著, 162~163쪽, 서울:현대실학사.

31) 위의 책, 284쪽.

도 불구하고 지나친 겉치레로 문벌의 권위와 정치성을 띠면서 변질된다. 그러므로 의례공간인 가묘와 묘지는 혈통과 가문을 숭배케 하고 이의 전통을 계승하게 하는 하나의 상징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그곳에 모셔진 훌륭한 조상들과 그것을 기리는 후손들이 제례를 통해 심리적으로 교감하며, 이 법통은 지역 공동체 사회의 입지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생산하는 혈연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곧 가문과 혈통의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을 강화시키는 의례공간이야말로 개인과 가족을 국가의 한 이념으로 묶는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로 기능한다.

III. 제주 장법(葬法)의 역사적 전개

1. 조선시대 이전

지석묘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장제의 하나이다. 고인돌 또는 돌멘(Dolmen)이라고도 부르며,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된 거석문화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은 땅속이나 땅위에 시신을 안치할 석곽(石槨)을 짜 만들고 그 위에 커다란 덮개돌인 상석(上石)을 올려놓은 돌로 된 묘지인 것이다. 지석묘는 유럽, 인도, 동남아, 중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전라남도 지방인 경우 1만 3천기라는 다량의 지석묘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어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다.

제주도에서 발견된 지석묘는 현재 200기가 넘지 못하며 원래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석묘는 대체로 해발 100m 미만의 해안 지역에 분포하며 제주시를 중심으로 서북부와 서남부에 주로 분포한다. 그리고 동남부는 드물게 분포하며, 동북부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한 구역에 5기 이상 분포된 지석묘군의 주요 유적으로는 제주시 용담동, 오라동, 외도동, 광령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등이다. 제주도의 지석묘는 형식상 비탈면을 이용하여 매장 시설 일부가 지하에 존재하는 반지상형(半地上型)이 많은 편이며, 외형상의 형태, 특히 지석의 고임상태와 매장시설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하면 제주도 지석묘는 지하형과 반지하형, 그리고 지상형이 있다.

탐라를 국가의 시작으로 추정하는 고고학적 자료는 제주시 용담동 철기부장(鐵器副葬) 적석묘역(積石墓域)의 목곽묘가 있다. 이 목곽묘는 대체로 탐라의 인구성장이 급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광지리식 토기의 등장과 같은 시점으로 기원 2세기대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이 묘역은 1984년 제주시 용담동 월성마을에서 발견되었는데 지금까지 알려졌던 지석묘와는 달리 적석으로 된 묘역 내에 석곽묘와 옹관묘로 구성된 복합묘유적(複合墓遺蹟)으로 조사되었다. 이 곳에서 조사된 유구(遺構)는 석곽묘 4기, 단독 옹관묘 및 합구식(合口式) 옹관묘 6기이다. 이 유구 주변에는 철제 장검 2점, 단검 1점, 철모(鐵鉢) 1점, 끌형 무기 2점, 도끼 5점을 포함한 다량의 철기와 유리구슬 목걸이 등이 부장되어 있었다. 특히 철모(鐵鉢)는 한반도 출토 단봉식(短鋒式) 세형동모(細形銅矛) 형식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철제무기 세트류는 기원 2세기대의 영남 지역 고분출토품과 유사하여 당시 해로를 통한 문물의 유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³²⁾

32)

, 2001, 《濟州의 歷史와 文化》, 69쪽~85쪽, 서울:통천문화사.

그러나 이 시기 이후에는 이상하리만큼 탐라국의 묘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탐라국시대에서 고려 말까지 탐라국의 왕릉, 고려시대의 성주의 능·민묘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 문제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의 장묘제도는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약간의 고려시대 방묘를 제외하고는 제주인의 죽음의 문화에 대한 실체가 거의 없는 편이다. 사실 제주의 들녘에는 수많은 묘지가 있지만 대개가 조선시대의 묘지로서 조선시대 예사상의 영향 아래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당시 변방에 까지 미친 조선 성리학의 ‘예사상’은 한반도 전 영역의 통치 구조를 완성하고 타 종교의 탄압을 통해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상장(喪葬)의례는 곧 효(孝)를 시작으로 충(忠)에 이르는 조선 유학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반적으로 오늘날까지 봉분의 맥을 이어주는 한반도의 장법은 삼국시대를 기점으로 보면, 신라시대의 봉토분으로부터 시작된다.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신라시대의 장법은 봉토분에 호석(護石)을 두르고 사자상이나 문무인 석상을 세우는데, 이런 문화적 연원은 중국 전한(前漢)시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다시 고려시대가 되면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火葬)이 널리 보급되었으나 매장(埋葬) 또한 병행하여 성행하였다. 고려시대는 방묘와 원묘가 동시에 존재한다. 특히 공민왕과 노국 대장공주의 무덤은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의 건원릉의 모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시대 왕릉은 모두가 건원릉의 법도를 따르게 되었다. 방묘는 원묘와 더불어 조선 초기까지 한반도 전역에 보급된 묘지 형식이다. 그리고 원묘는 제주에서는 조선 중기까지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제주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묘는 문경공 고조기묘, 경주김씨 입도조 묘지 등이며, 대표적인 원묘는 태안현감을 지낸 고이지의 무덤이다. 제주의 무덤은 대다수가 조선시대 용묘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후기의 무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장법은 어떠했을까?

고려시대 한반도에서는 매장과 화장이 사체처리 방식으로 널리 이용되었고, 가난한 사람 중에는 간혹 풍장(風葬)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화장은 고려시대 지배층에서 널리 이용되었고, 일반 서민의 경우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관도 없이 구덩이에 시신을 매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는 사체를 그대로 땅에 두고 그 위에 풀을 덮어 인적이 없는 산야에 방치해 두는 풍장(風葬)이 간혹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1124년(인종 2년)에는 가난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관청에서 장례비용을 지급하여 주도록 하기도 하였다.³³⁾

조선시대의 백일탈상(百日脫喪)의 풍속은 고려시대의 유습(遺習)으로 “원래 부모의 상을 당하면 관리는 관직을 그만두고, 상례를 집행해야 하는데, 고려시대에는 관리들에게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라 참취 3년과 자취 3년은 각각 100일, 자취 1년은 30일, 대공 9월은 20일, 소공 5월은 15일, 시마 3월은 7일의 휴가를 주었다. 또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각 1일, 대상·소상제에 7일, 담제에 5일의 휴가를 주어 3년 상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러한 약식 3년 상이 허용된 오복제도의 취지는 벼슬살이를 통해 경제생활을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족(士族)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분묘를 삼년 동안 지키는 지배층이 없지는 않았으나 분묘를 지키는 일이 워낙 고된 일이라 매우 특별한 일로 인식되었다. 오히려 사족(士族)·관인(官人)들은 부모상에 따른 100일 동안의 휴가에 따라 백일 만에 상

33) , 1997,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70~173쪽, 서울:청년사.

복(喪服)을 벗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00일의 휴가는 본래 관직자를 위한 것이었으나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100일 만에 상복을 벗자 재야사족(在野士族)들이나 서민들도 추종하게 되었다.³⁴⁾

고려시대의 탐라의 장법을 추측해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례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입은 옷을 수의 삼아 땅을 조금 파서 관곽(棺槨) 없이 평장으로 장사를 지낸 까닭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 제주에 사찰이 많았던 것으로 미루어 불교적인 화장법이나 몽골로부터 100년 가까이 지배당한 경험이 있어 북방 몽골의 평장법(平葬法)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 시기에는 제주에 남아 있는 고려 시대 방묘에서 볼 수 있듯이 산담이 둘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는 산담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산담은 조선시대에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고 유교문화가 정착되면서 장묘제도에도 토착성이 결합되면서 탄생하는데, 한반도부에서는 흙으로 곡장(曲牆)을 만들어 무덤을 보호했다면, 제주의 묘지는 현무암석이 많은 지질·풍토적인 영향 때문에 돌로 산담을 만들어 묘지를 보호한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 제주에 묘지가 없는 것에 의문을 느낀 김인호(金仁顥) 선생은 ‘7세기 후반에 유리도라(儒李都羅), 도동음률(徒冬音律), 서기 676년 9월에 일본에 간 탐라왕 고여(姑如)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탐라국 태자 말로(末老), 1029년(현종 20년) 고려에 온 탐라세자 고오노(孤烏弩) 등’ 이 사서(史書)에는 나오지만 이들의 묘지가 없는 것에 대해 가설로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제주의 장법을, ‘가매장한 다음 봉분을 만들지 않는 오끼나와(沖繩) 장법과도 유사한 ‘生殯埋之後 上不起墳’에서 찾고 있다. ‘生殯埋之後 上不起墳’이란 말 그대로 제주의 가매장 전통인 생빈놀이 유사하다고 하면서, 그런 가매장후 남은 뼈를 주워(洗骨) 모아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장(平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에 고려시대 민묘가 없는 까닭은 ‘일반인인 경우 15세기 초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풍장(風葬)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⁵⁾

2. 조선시대 제주의 장법

제주에 유교식 상장(喪葬) 제도가 시작된 시기는 조선 초기로 추정된다.

《세종실록(世宗實錄)》 2년(1420) 정월 경신(21일)

전 주부(注簿) 문방귀(文邦貴)는 이곳 풍속이 삼년상(三年喪)을 행하지 않지만, 병술년(태종 6년 1406년)에 아버지가 죽으니 3년 동안 무덤을 지키고(守墳), 상제(喪制)를 모두 가례(家禮)에 따라서 효도의 기풍(氣風)을 세웠다. 제주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수분자(守墳者)가 3인이요, 3년상을 행한 자가 10여인이다.³⁶⁾

《태종실록(太宗實錄)》 11년(1411) 11월 병술(29일)

전 총제(摠制) 고봉례(高鳳禮)가 죽었다. 고봉례는 제주인이다. 임금이 몹시 슬퍼하여 대언(代言)에게 명하기를 “이 사람이 과인(寡人)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멀리 친척을 떠나와서 벼슬하므로 대단히 불쌍히 여겼다. 지금 죽었으니 내가 몹시 슬프게 여긴다. 상장(喪葬)의 제구를 모두 부의(賻儀)하라” 하였다. 양전(兩殿)이 모두 제사의 부의로 종이 150권과 축(燭) 10자루, 쌀과 콩 40석과 관곽을 하사하였

34) 책, 177~179쪽.

35) 金仁顥, 1997, 《韓國 濟州 歷史·文化 뿌리學》, 664쪽~666쪽, 서울:宇鏞出版社.

36) 朝鮮王朝實錄中耽羅錄編纂委員會, 1986, 《朝鮮王朝實錄中耽羅錄》, 59쪽, 제주:제주문화방송.

다.³⁷⁾

《태종실록(太宗實錄)》 13년(1413) 6월 무오(11일)

제주 도안무사(都安撫使) 윤임(尹臨)이 효자(孝子) 절부(節婦)로서 포상(褒賞)할 만한 자를 아뢰었다.
:“1. 전 직장(直長) 문방귀(文邦貴), 제공(提控) 양심(梁深), 생원(生員) 고득중(高得宗) 등은 부친상을 당하자 묘소 곁에다 여막을 지어 처음으로 3년 상을 시행하니 온 고을이 감동하고 사모하였습니다.
... 하니 계문을 의정부에 내렸다.”³⁸⁾

이 실록으로 미루어 ‘3년 상이 없었던 제주의 풍속’이 조선초기부터 유교식 장례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종실록(世宗實錄)》 2년(1420) 정월 경신(21일)일의 기록은 조선 개국 이후 처음으로 제주에 유교식 매장제도가 적용되었음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이 기록에 의하면, 태종 6년(1406년)에 주부(注簿) 벼슬이었던 문방귀가 부친(父親) 상례(喪禮)를 가례(家禮)에 따라 행하였고, 분묘를 3년이나 지키는 유교식 제도를 이행하여 제주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방귀는 3년 상을 행하지 않는 제주의 풍속을 깨고 처음으로 유교식 3년 상을 치른 사람으로, 후에 효자(孝子)의 포상(褒賞)에 상신(上申)된다. 조선 개국이 1392년의 일이니 개국 후 14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1411년 고봉례가 죽자 임금이 슬퍼하면서 그의 아들 고득중(高得宗)에게 관곽을 하사한 때 보다 이미 5년이나 앞서 유교식 제도를 수용한 문방귀는 제주의 풍속을 바꾼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마땅하다.

제주의 장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내야 할 내용들이 많지만 아무튼 문방귀가 유교식 장제(喪葬制)를 받들기 이전에는 제주의 장례 풍속은 여러 형태로 존재했을 것이며, 조선초기부터 설령 유교식 장례가 행해졌더라도 그 영향이 곧바로 민간에 두루 미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주도 풍속에는 사람이 죽어 시체를 매장하는 법이 본래 없었다. **시체를 그냥 냇가 골짜기 같은 곳에 내다 버리는 것이었다.** 이런 곳에 기건(奇虔)이 목사가 되어 와서 시체를 관에 넣어 땅에다 매장하는 법을 도민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꿈에 삼백 여명이나 되는 귀신이 나타나서는 기건에게 고마워 절하면서 말하기를 “참으로 고맙습니다. 공의 덕분에 우리들은 들판에서 햇빛과 비바람에 바래질 처지를 면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힘을 모아 공으로 하여금 현명한 자손이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깨고 보니 꿈이었다.³⁹⁾

위 글은 조선시대 제주 목사였던 이원조(李源祚; 1792~1871)의 《耽羅誌》에 기술된 기건(奇虔)목사의 이야기이다. 민족학자(民族學者) 김인호(金仁顥)는 기건(奇虔)목사의 이야기를 문헌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면서 이 기록에는 과장과 왜곡, 허위 등이 내포되어 있어서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이 못되는 자료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이야기 중 제주의 장법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 있어 매우 흥미롭게 바라보면서 새로운 해석을 가한다. 특히

37) 책, 41쪽.

38) 위의 책, 42쪽.

39) 김인호, 1991, <제주에 왜 고분이 없나?>, 《월간제주 5·6월호》, 100쪽, 제주:월간관광제주사.

‘햇빛과 비바람에 바래어질 처지를 면했다(得免暴露)’라는 구절에서 그는 “15세기 초 무렵의 제주도 장례법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得免暴露’란 말은 風葬, 樹枝葬 등이 이때까지도 더러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료(史料)의 하나가 되는 용어”라고 잘라 말한다.⁴⁰⁾

기견(奇虔, ?~1460)의 호는 청파(靑坡), 본관은 행주(幸州)이며, 청백리로 이름이 높다. 세종 때 제주목사를 지냈고 요직을 두루 거쳐 세인에게 칭송을 받은 명환(名宦)이다. 전개(前掲)한 목사의 이야기는 《耽羅誌》 말고도 《耽羅紀年》, 《燃黎室記述》, 《月沙集》, 《增補文獻備考》 등에 실려서 조금씩 변형되어 전해오는데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또한 《增補文獻備考》에 실린 기견의 이야기를 들어 학장(壑葬)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학장(壑葬)은 류큐(琉球)남도에 비교적 최근까지 행해지고 있었던 암굴장과 매우 비슷한 풍속이라고 말하면서, 기견의 이야기 가운데 ‘제주의 옛 풍속이 부모의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계곡 암굴 안에 방치하는 장법(濟州舊俗 不葬其親 死輒委之壑)을 쓴다’는 문구에 주의한다. 그러나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도 “이 한 예만으로 단순히 제주도민 사이에서 이 장례풍습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도서 및 해안 등의 지역에서 이런 장례법을 행하지 않았나 상상된다”고 추측하고 있다.⁴¹⁾

사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말처럼 조선의 벽지(僻地)에서는 음으로 양으로 유교식 매장이 아닌 초장(草葬)을 치렀다는 기록이 1680년 제주어사로 왔던 이증(李增, 1628~1686)의 《南槎日錄》에 보인다.

이증(李增)이 듣던데 “정의(旌義)사람이 근년에 육지에 나갔다가 죽어서 해변에 초장(草葬)하였다가, 지난해 정월에 그의 아들이 시체를 운구(運柩)하러 육지에 나가서 바다 가운데서 표몰하면서도 그 시체를 배에 싣고 오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이 배에 시체를 태웠기 때문에 바람에 표류하게 되었다고 허물하므로 그 시체를 들어다 바다 가운데 던져버렸다고 한다. 참혹하고 불쌍함을 견딜 수가 없다.”⁴²⁾

여러 정황에 의하면, 기견 목사의 이야기는 사실 고대 장법의 한 유형인 학장(壑葬)을 바로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다. 《세종실록(世宗實錄)》 27년(1455) 11월 정축(6일)일의 기록에는 ‘제주에 나병이 유행하여 그 병에 걸린 자가 있으면 전염되는 것을 우려하여 해변(海邊)의 사람이 없는 곳에 두므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암애(岩崖)에서 떨어져 목숨을 끊으니 불쌍하여 기견이 스님으로 하여금 뼈를 거두어 묻게 하고, 삼읍(三邑)에 치병소(治病所)를 두어 이에 치료에 힘썼다’는 내용이 있다.⁴³⁾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전염을 두려워한 제주민들이 나병 환자들의 시신을 거두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이 잘못 와전되어, 마치 그 당시 제주의 장례 풍습이 학장(壑葬)인 것처럼 둔갑하여 기록에 남아있는 듯하다.

학장(壑葬)은 고대의 장법으로, 《묵자(墨子)》 <절장편(節葬篇)>에는 ‘시신을 들에 내다버려 썩기를 기다렸다가 그 뼈를 묻는’ 이차장(二次葬)의 풍속이 전해오고, 《맹자(孟子)》

40) 책, 100쪽.

41) 村山智順, 1996, 《韓國의 風水》, 鄭鉉祐 譯, 359~360쪽, 서울:명문당.

42) 李增, 2001, 《南槎日錄》, 金益洙 譯, 제주:濟州文化院.

43) 朝鮮王朝實錄中耽羅錄編纂委員會, 1986, 앞의 책, 137~138쪽.

<등문공 상편(滕文公 上篇)>에는 부모가 죽자 골짜기에 내다버렸는데 짐승이 시신을 훼손하는 것을 보다 참다못해 삼태기와 나무삽을 가져와 흙으로 시신을 매장하였다. 그 후로 장법을 매장하는 방법으로 고쳤다고 한다. 소전(小篆)의 ‘壑’자는 한 손·한 개의 뼈, 그리고 골짜기 세 부분이 합성되어 만들어졌다. 이 글자의 창제 의미는 야수에 의하여 깨끗하게 갉아 먹힌 백골을 손으로 주워 모으는 곳이 골짜기라는 것이다. 깊은 골짜기는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으므로 시체를 버리기에 좋은 장소이다. 사람들이 골짜기에 가는 것은 뼈를 주워 모으러 가는 것이므로 그런 의미로 글자를 만들었다. 초기에는 손으로 뼈를 주워 모은다는 것만으로도 깊은 골짜기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었으나, 뒤에 오면서 골짜기를 의미하는 ‘谷’을 덧붙여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다.⁴⁴⁾

제주의 장법이 학장(壑葬)으로 비치는 일이 조선조 사회에서는 비밀비재한 것 같다. 특히 한반도 어느 지역보다도 한발(旱魃)과 기근(饑饉)이 심했던 제주는 하루하루의 삶이 처절하기 그지없었다. 기근과의 싸움이 제주목민관의 커다란 과제였다. 연례 없이 찾아오는 기근에, 죽은 시신을 묻을 여유가 없거나 손이 미치지 않아 그냥 방치한 것이 학장(壑葬)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다음의 기록은 기근 당시의 실정을 말하고 있는데 예의보다는 의식주 해결이 무엇보다 먼저 시급한 것임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다.

《현종실록(顯宗實錄)》 12년(1671) 4월 갑신(3일)조에 제주목사 노정이 급보를 올리기를, “본 섬의 굶주린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의 수가 2,260여명에 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귀신 물골이고 닭, 개를 거의 다 잡아먹었고 계속해서 마소를 잡아서 목숨을 연장하고 있는데 사람들끼리 잡아먹을 우려가 당장 박두(迫頭) 했습니다.” 동월(同月)에 전라감사 오시수가 급보를 올리기를 “떠돌아 다니면서 결식하는 백성들이 어린이를 내버려 두는 일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닐곱살 난 아이들이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을 나무에다 비끄러매놓고 가기까지 하는가 하면, 부모와 형제가 눈앞에 죽어도 슬퍼할 줄 모르며 땅에 묻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사람의 의리가 이렇게까지 없어졌습니다.”⁴⁵⁾

또 조선시대 매장문화와 관련해서는 이수광(李睟光, 1563~1629)의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 엿볼 수 있는데 “주민들은 바다로 집을 삼아, 고기 잡고 해초(海草) 캐는 것으로 먹고 사는 업(業)을 삼는다. 해마다 풍랑에 떠내려가거나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많아서 남자로서 매장(埋葬)할 수 있게 되는 자가 적다. 그런 때문에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다.”고 하였다.⁴⁶⁾ 또 제주에 안무어사로 왔던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南槎錄》序에는 “도민들의 무덤 가운데 남자의 무덤은 적고 여자의 무덤은 많으며, 과부는 매우 많고 홀아비는 극히 적다(島民男墓絕少 而女多墓 寡妻甚果多 而鰥夫獨甚少)”는 기록을 남겼다.⁴⁷⁾

이 기록들에 의하면 16세기에는 매장 문화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남자들이 생업을 위해 바다에 나갔다가 빠져 죽는 일이 많아 해류에 떠내려 버리기 때문에 시신을 찾을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제주에는 남자의 무덤보다 여자의 무덤이 많다는 사실을 전해 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기록들이 제주를 다녀간 목민관들의 저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제주가 사면이 바다라는 지리적인 영향과 바람이 많은 기후적인 영향 때문에 남자들의

44) , 1985, 《中國古代社會-文字와 人類學的 透視》, 洪熹, 370~371쪽, 서울:東文選.

45) 김찬흡, 1995, <濟州 三邑 牧民官總覽 3>, 《제주도》 통권 제97호, 370~371쪽, 제주:濟州道.

46) 李睟光, 1998, 《芝峰類說》, 南晚星 譯, 100쪽, 서울:乙酉文化社.

47) 金尙憲, 1985, 《南槎錄》, 朴用厚 譯, 4쪽, 제주:濟州道教育研究院.

해난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자연히 여다(女多)는 삼다(三多)의 한 범주로서 회자되고 있다.

여다(女多)에 대한 기록은 제주에 유배자로 왔다가 다시 제주 목사로 부임하는 곡절을 겪은 조정철(趙貞喆, 1751~1831)의 저서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에 실감나게 그려지고 있다.

그 저서 중 <탐라잡영(耽羅雜詠)> ‘其十六’에는 남소여다(男少女多)의 풍속을 “탐라는 멀리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 것이 예부터 변함이 없고, 테우리(牧子)나 농부나 오막살이에 살아도 부인과 첩을 거느리는 것이 풍습처럼 되었다”고 하면서 당시 “제주의 인구를 남자는 5만여 명, 여자는 7만여 명(耽羅遙在海之中 男少女多古今 同牧子 薈屋下一妻一妾自成風 時男口爲五萬餘 女口爲七萬餘)이라고 부기(附記)하고 있다. 이런 그의 글을 보면, 이수광이나 김상헌이 활동했던 시대로부터 약 200년이나 지난 조선말기까지도 남소여다(男少女多)의 사회적 여건은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⁸⁾

‘당오백 절오백’이라는 말은 제주의 융성했던 종교·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불교식이거나 무교식이거나 한때 융성했었을 제주의 상장제례(喪葬祭禮) 문화는 여러 형식을 달리하면서 일시에 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문헌이 없어 사실적인 접근이 어려운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현존하는 기록들이 대개 조선조 정사(正史)이거나 유학자들의 저술만 전해오는 관계로, 고려시대 제주 풍속에 대한 사실적인 증명은 그야말로 추론에 맡길 수밖에 없다.

1530년 중종 때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조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밭머리에 무덤을 만든다(田頭起墳) : 상을 치르고(治喪) 백일(百日)이면 상복(喪服)을 벗고 밭머리를 조금 파고 무덤을 만든다. 간혹 삼년상을 행하는 자도 있다. 풍속이 지리 풍수(地理風水)와 복서(卜筮)를 쓰지 않고 또 부처의 법도 따르지 않는다.⁴⁹⁾

조선 숙종 때 제주 목사로 와 불사(佛舍)와 신당(神堂) 파괴를 주도했던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저서 《남환박물관(南宦博物)》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간행된 지 170여년 뒤라 그런지 장례 풍속이 확연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전두기분(田頭起墳) : 地誌에 의하면, 치상(治喪)하고 백일에 대략 상례를 마치고 밭머리를 조금 파서 무덤을 일으킨다. 간혹 3년 상을 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풍속에 지리복서(地理卜筮)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부도법(浮屠法)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삼년상은 사람마다 모두 이를 행하고 있는데 地理卜筮를 혹 사용하는 사람은 업중(業中)으로써 추포 2필씩 징출(徵出)하여, 상평청(常平廳)에 회록(會錄)하는데 이른바 業中이라 한다. 대개 지술(地術)을 가리키는데 이는 반드시 탐라의 옛 관례이다. 그리고 밭머리에 분묘를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옛일이다.⁵⁰⁾

우선 《新增東國輿地勝覽》이 간행된 16세기에는 백일탈상(百日脫喪)하였고 삼년상을 치르

48) , 1824, 《靜軒瀛海處坎錄》, 280쪽.

49) 민족문화추진회, 1993, 《新增東國輿地勝覽》, 이행 외 옮김, 95쪽, 서울:술출판사.

50) 김봉옥, 1993, <李衡祥 編著 南宦博物 2>, 《제주도》 통권 제94호, 314쪽, 제주:제주도.

는 자는 그야말로 만에 하나인데 풍수지리(地術)를 행하지도 않고 화장(火葬)도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마 16세기 초에도 유교식 상·장례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은 듯하며, 그 시기에도 여전히 고려시대 장례 습속이 남아 있고, 또한 경제적인 여건이 미치지 않아 관(棺)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밭머리를 조금 파서(略掘田頭)’시신을 묻는 장법이 세간에 공공연하게 이용된 것 같다.

그러나 정작 18세기가 되면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탈바꿈하여 유교식 장례문화가 완전히 제주에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사람마다 ‘삼년상을 모두 행하고’ 소위 지관(地官)은 상평청(常平廳)에 올 굶은 삼베 두 필의 세금을 내고는 ‘지술(地術)’을 부리고 다닌다. 이제 분묘를 일으키는 곳이 밭머리가 아니라, 명당이라면 어느 산야(山野)라도 마다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지나친 묘지의 치장과 터무니없는 지리술법을 경계하는 실학자들(朴齊家, 鄭尙驥)의 묘지풍수 개혁론이 등장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 비단 우연만은 아니다.

田頭起墳：邑誌에 의하면, 風水卜茆를 쓰지 않고 대강 밭머리를 파서 무덤을 이루었다. 상고하건데 옛날 방묘(方墓)와 원묘(圓墓)가 여기 저기 있으나 별로 밭머리에 붙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뢰배(無賴輩)가 밭(發)한 것인가? 51)

위의 내용은 일제 강점기의 한학자 진재(震齋) 이응호(李膺鎬, 1871~1950)의 저서 《탁라국서(毛羅國書)》의 기록이다. 그에 의하면, 옛날에는 밭머리에 방묘와 원묘를 쓴 곳이 없다고 한다. 고려시대의 묘지 형식인 방묘와 조선 초기까지 유행한 원묘는 밭머리에 있는 것이 없고 주로 산야(山野)에 조성된 것이 많다는 말이다. 그의 이 기록은 밭머리에 무덤을 쓰는 풍습이 적어도 조선시대에 국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밭머리에 분묘를 일으키는 것을 무뢰배의 소행쯤으로 생각하고 있어 전두기분(田頭起墳)의 장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보면, 제주의 장법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나병환자의 병이 옮을까 두려워 시신에게 가까이 가지 못해 그냥 방치하는 것이 학장(壑葬)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었고, 극심한 가뭄에 의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시신 방치라는 풍장(風葬)의 요소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는 제주민들의 일반적인 장법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발생한 시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장법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학장이나 풍장과도 같은 시신의 방치는 물의 오염이나 전염병을 유발시켜 한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고, 또한 유교의 예사상을 통해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조선시대 체제의 성격상 기본적으로 매장 중심의 장법을 권장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제주의 장법은 분명 관곽을 이용한 매장이 확실하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형식이 단지 관곽을 쓰지 않고 ‘땅을 조금 파서(略掘)’ 묻는 약식 장례가 당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행해졌을 법한 장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1901년 제주를 방문한 독일인 지그프리트 겐테(Siegfried Genthe, 1870~1904)는 제주 기행의 첫 인상을, 화산석으로 쌓은 검은 산담에 이상야릇한 감흥을 느끼면서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섬에 사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그냥 뗏목 위에 실어 먼 바다에 띄워 보내어 바람과 파도에 내맡겼다. 오늘날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특정의 불교 풍습을 상기시키는 이런 괴이할 정도로 환

51) , 1976, < 羅國書>, 《濟州年鑑》, 407쪽, 제주:濟州年鑑社.

상적인 이 풍습 대신, 근세에 매장 풍습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어떤 영향 때문인지 들은 바 없다.”고 했다.⁵²⁾

겐테의 이 말을 되짚어보면, 19세기 초까지 제주에 수장(水葬)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겐테가 생각하는 제주의 수장설(水葬說)은 아마도 겐테가 당시 조선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오해인 것 같다. 사실, 겐테의 생각과는 달리 조선의 유교식 매장 습속은 이미 조선 개국 초에 시작되어, 18세기에 이르면 민간에까지 《가례》를 근본으로 한 유교식 장례가 보편화 되어 너무나없이 모두가 매장풍속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인류학자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1915~1970)의 저서 《濟州島》는 1938년 경성제국대학 졸업논문 <제주도-그 사회인류학적 연구>를 보완하여 1966년 도쿄대학에서 출판되었다. 그는 1939년 겨울에 한라산을 올랐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한라산 등반 시 등반대원 마에가와(前川智春)가 왕관릉에서 조난사 당한 아픈 사연도 가지고 있다. 그의 저서 《濟州島》<장식(葬式)>조에는 1930년대 제주의 장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묘자리는 사전에 준비해둔다. 그 묘자리는 산 능선의 발에 만든다. 묘혈(墓穴)은 직경 약 4미터, 깊이 2~2.5미터를 파고 그 밑에 회격(灰隔)을 넣고 물을 뿌려 단단하게 한 다음, 관이 광중(壙中)에 꼭 맞도록 묘혈을 판다. 장례 행렬이 도착하면, 친척들이 곡물을 태운 재를 바닥에 깔고, 근친들이 손수 관을 내려놓고 상주가 명정을 관에 덮는다. 그리고 그 위에 개관을 놓은 다음 점토로 덮고, 상두꾼들이 다시 흙을 덮어 흙 만두 모양으로 봉분을 쌓는다. 그 주변에 화산암으로 돌담을 쌓는다. 개관은 될수록 질 좋고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는데 그 목재의 질에 따라 죽은 사람에 대한 정성의 정도가 있다고 한다. 좋은 개관은 구상나무, 구실잣밤나무, 소나무, 뽕나무 등인데 이들 나무는 썩을 때 골고루 썩기 때문에 시신도 이와 같이 골고루 썩는다고 믿는다. 봉분에는 용미를 만든다.⁵³⁾

IV. 제주 민묘의 유형

1. 민묘의 개념 및 범주

조선시대의 묘지는 크게 능묘(陵墓)와 민묘(民墓)로 구분할 수 있다. 능묘는 능(陵), 원(園), 묘(墓)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능(陵)이란 왕과 왕비, 사후 왕호가 추증된 자의 무덤을 말하며, 원(園)은 왕의 친부모, 왕세자와 그의 비(妃)의 무덤을, 묘(墓)는 대군(大君), 공주(公主), 옹주(翁主), 후궁(後宮) 등의 무덤을 말한다.

그렇다면 민묘는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 중세의 민(民)의 개념이 오늘날 시민사회의 민의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중세사회가 철저한 왕권 중심의 계급사회라는 점에서, 민은 다양한 계급을 포괄하는 개념인 것만은 분명하다.

김석형(金錫亨)의 《조선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중 <양인론(良人論)>에는 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52) 겐테, 2000, <겐테 박사의 한라산 등반기>, 《옛사람들의 登漢拏山記》, 135쪽, 제주:濟州文化院.

53) 泉靖一, 1966, 《濟州島》, 146~147쪽, 日本:東京大學出版部.

양인(또는 양민)은 사회적으로 보통 말할 때는 물론이요, 국가적인 공식적 문헌들에서까지 평민(民)·서민(庶民)·상민(常民)이라고도 많이 불렸다...물론 ‘서인’ ‘서민’ ‘상민’ 또는 ‘상인’ ‘평민’이라는 표현은 그 이전 조선조 시대에 있어서도 법률적 표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때로 노비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었다. 더욱 이 ‘민(民)’이라고만 할 때에는 이를 국가 대 인민 내지는 국민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는 양반들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기록들에는 ‘민’과 거의 언제나 동일하게 쓰여 왔다. 오늘날까지 ‘민’의 훈(訓)을 ‘백성’이라 함이 이를 실증한다...즉 ‘양인’은 백성·민·평민·서민·상민이라고도 비교적 막연하게 표현되었으나, 반대로 백성·민·평민 등의 말 가운데는 양인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신분층까지도 포함되었던 것이다.⁵⁴⁾

김석형의 말에 빗대면, 우리는 쉽게 능묘 가운데 능, 원, 묘의 신분을 제외한 양반계급의 무덤까지를 민묘의 범주로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즉 중세에서는 왕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양반 이하 모두를 왕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민의 개념에 포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이중환(李重煥, 1690~?)의 《택리지(擇里志)》〈총론〉에는 비교적 자세한 신분 규정이 나타나 있어 조선시대의 계급구성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종실(宗室: 왕족)과 사대부는 조정에서 벼슬하는 집이 되고, 사대부보다 못한 신분은 시골의 품관(品官: 품계가 있는 벼슬, 正, 從 1~9품계)으로 중정(中正: 하급관직으로 일정기간 시험 후 등용됨)과 공조(功曹: 司功이라고도 함. 제사, 예악을 맡았던 하급 잡무직) 따위가 된다. 이보다 못한 신분은 사서(士庶), 장교(將校), 역관(譯官), 산원(算員), 의관(醫官)과 지방 한산인(閑散人: 한량, 무인으로서 아직 관직에 임명되지 않은 자)이 되고, 또 못한 신분은 이서(吏胥), 군호(軍戶), 양민 따위가 되며, 여기에서 더 못한 신분은 공사(公私)의 천한 노비이다. 노비로부터 지방아전이 하등신분으로서 한 계층이고, 서열(庶孽) 및 잡색(雜色: 잡무를 맡은 자)이 또 중등 신분으로서 한 계층이고, 품관과 사대부를 한 가지로 양반이라 한다. 그러나 품관이 한 계층이고, 사대부는 또 따로 한 계층이 된다. 또 사대부 중에도 대가(大家)와 명가(名家)라는 한계가 있어, 명목이 많고 서로 통하지 않는다.⁵⁵⁾

조선시대의 신분 규정은 삶과 죽음을 모두 아우르는 영원한 굴레와 같은 것이었다. 신분은 세습되었고, 세습되는 만큼 낮은 계층일수록 그 설움의 깊이도 깊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하층민에게 있어서 신분상승은 일생일대의 소망이었다. 삶에서 억압되었던 신분제도는 죽어서도 무덤의 크기나 석물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상장(喪葬)’조에 보면, 묘지의 구역을 신분에 적용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墳墓는 境內의 區域을 限定하여 耕作과 牧畜을 禁한다. 宗親이면 一品은 四方 各百步를 限界로 하고, 二品은 九十步, 三品은 八十步, 四品은 七十步, 五品은 六十步, 六品은 五十步로 하며, 文武官은 차례로 十步씩을 遞減하고, 七品이하 및 生員, 進士, 有蔭子弟는 六品과 같고 女子는 夫의 官職을 좇는다. ... 京城에서 十里以內와 人家의 百步內에는 埋葬하지 못한다⁵⁶⁾

신분과 품계(品階)에 따라 무덤의 규모도 다르지만 무덤의 모양 또한 다르다. 무라야마 지

54) , 1993, 《朝鮮時代 農民의 階級構成- 》, 168쪽, 서울:신서원.

55) 李重煥, 1994, 《擇里志》, 李翼成 譯, 198쪽, 서울:을유문화사.

56) 法制處, 1983, 《經國大典》, 214~219쪽, 서울:일지사.

준(村山智順)의 《朝鮮의 風水》에는 “왕공(王公)이하 사대부의 분형(墳形)은 대개 원형(圓形)이며, 일반 서민의 그것은 대개 유형(乳形)또는 돌형(突形)을 이룬다.”고 한다.

여기에서 유형(乳形), 돌형(突形), 또는 유돌분(乳突墳)이라는 일반 서민 묘지는, 용묘(龍墓)를 말하는 것으로서 묘의 머리부분에 꼬리처럼 끝이 달려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무덤 형태인 것이다. 고려시대의 토광묘는 방묘(方墓)가 중심이며, 원묘(圓墓)는 조선 초기까지 이어오다 조선중기부터 용묘(龍墓)가 일반적인 봉분이 되었다. 그렇지만, 제주에서는 조선 초기에도 방묘(方墓)가 나타나며, 원묘(圓墓) 또한 간혹 조선 중기까지도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⁵⁷⁾

위에서 살펴본 대로 조선시대는 무덤의 크기를 신분에 따라 결정했다. 물론 고대로부터 무덤의 양식은 변해왔지만 조선시대처럼 신분별로 세세하게 법령으로 규제했던 예는 없었다. 이런 신분적 제약은 뱃속에서부터 무덤까지 적용되어 한번 결정된 신분의 틀은 사회제도적으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세습하면서 살아야만 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조선후기에 오면 신분 상승을 위한 매관매직(賣官賣職)의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가문을 중흥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발품을 팔며 명당을 찾아 나섰다. 얼마나 신분의 굴레가 지독했으면 무덤의 모양에서부터 크기, 부장품(副葬品), 구석물(具石物), 심지어 관곽(棺槨)의 색깔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법하다.

2. 제주 민묘의 형태

1) 제주의 방묘(方墓)

(1) 고조기 묘

제주에는 약간의 고려시대 무덤이 남아있다. 현재 남아있는 대표적인 묘는 문경공(文敬公) 고조기(高兆基, 1088~1157)묘이다.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에 의하면, 고조기는 성품이 강개하였고, 고금(古今)의 경서(經書)와 역사를 많이 읽었으며 특별히 오언시를 잘 지었다. 고려 예종(睿宗) 초기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 2품에 해당하는 중서시랑(中書侍郞)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다. 고려 의종(毅宗) 11년(1157)에 공이 죽으니, 왕이 3일간 조회를 멈추고, 해당 관리에게 명하여 호상하여 주고 시호를 내렸다.⁵⁸⁾

고조기 무덤은 제주시 아라동 2464번지에 있으며 1977년에 무덤으로서는 제주에서 가장 먼저 지방 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되었다. 매년 삼성 춘계 대제 전날인 4월 9일에 묘제를 지낸다. 무덤은 북쪽을 향하고 있으며 장방형(長方形)이다. 무덤의 크기는 앞 변의 길이 3.9m, 뒷변의 길이 3.0m, 측변의 길이 4.8m이며 높이는 1.8m이다. 사방 네 귀퉁이에 현무암 자연석 할석으로 2~3단을 쌓아 올려 봉분을 안정되게 지지(支持)하고 있다.

무덤의 석물은 문인석 2기, 무인석 2기, 석양 2기, 동자석 2기가 마주 보고 있다. 옛 석물은 도굴되었는지 없고 지금의 석물들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석물들이다. 특히 동자석은 20세기 후반기 양식으로 형태는 각주형이며 머리는 민머리 형태에 음각으로 땀기머리를 표현했다. 이 무덤은 고려시대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57) , 1996, 《朝鮮의 風水》, 鄭鉉祐 譯, 359~360쪽, 서울:明文堂.

58) 金惠右, 高時洪 譯, 1994, 《高麗史耽羅錄》, 101~102쪽, 제주:제주문화.

(2) 제주의 입도시조묘(入島始祖墓)

고려시대 무덤 양식인 방묘는 제주에 입향한 입도조(入島祖) 무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고조기 무덤 이외에도 고려(高麗)의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 공민왕(恭愍王) 후기에서부터 이조(李朝)의 새 정치질서가 모색되는 태종(太宗)에 이르는 1400년을 전후한 약 30년간에 걸쳐 불사이군(不死二君)의 충절을 지킨 여말(麗末)의 충신들이 속속 낙향(落鄉)하기 시작, 이 땅은 ‘불복지신(不服之臣)’의 새로운 유배지(流配地)로 탈바꿈했다. 고려의 패망을 고비로 신왕조(新王朝)에 출사(出仕)를 마다하고 끝내 절개(節介)를 지켜 제주에 유배된 대표적인 인물은 좌정승(左政承) 김만희(金萬希, 1314~1404, 일명 景興, 汝雲 또는 月浦, 金海金氏入島始祖)는 곽지악(郭支岳)에, 교리(校理) 이미(李美, 字는 仲仁, 號는 益齋, 慶州李氏入島始祖)는 새 왕조에 협력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죄로 제주향리(濟州鄕吏)로 좌천되었고, 그의 생몰연대는 미상이다. 여말선초의 문신이었던 한천(韓蕡, 호는 怨齋, 淸州韓氏入島始祖)은 가시리(加時里)에 은둔하며 서당과 사창(謝場)을 열었다. 구한말 제주에 유배 온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한천의 인생에다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며 정의현 가시리를 찾아 <한천유허비명(韓蕡遺墟碑銘)>을 남기기도 했다. 한림학사(翰林學士)이며 전라감사(全羅監司)인 강영(康永, 1352~1413, 字는 久芳, 號는 瀛庵, 信川康氏入島始祖)은 조선초에 제주 함덕리(咸德里)에 유배되었다. 이들은 제주 곳곳에 각각 새 터전을 마련해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입도시조(入島始祖)로 추앙받게 된다.⁵⁹⁾

현재 제주에 남아 있는 입도시조의 무덤들은 고려시대의 묘제인 방묘(方墓)로 조성된 것들이 많다. 고려왕조의 충절을 지킨 그들은 당연히 그들의 장례법식을 따랐을 것이다. 입도시조들은 고려의 관리출신으로서 제주도에 낙향하여, 훈학(訓學)과 강사(講射)를 연 것을 볼 때 한 하늘 밑에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그들의 기개로 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나라인 고려시대 예법을 지켰을 것이고, 적어도 조선의 왕권이 제주에 정착되기까지는 이를 전승했을 것이다.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인 고려시대에는 부모상을 당하여서도 백일(百日)만에 상복(喪服)을 벗었고, 삼년상을 행하는 자는 만에 하나일 정도로 극소수였다. 부모의 제사에 있어서도 불식(佛式)으로 소찬(素饌)과 지전(紙錢)을 진설하여 승재(僧齋)라 하여 중을 불러 송경(誦經)하였다.⁶⁰⁾

경주김씨(慶州金氏) 입도시조(入島始祖) 김검룡(金儉龍)은 벼슬이 훈련원 도감(訓練院都監)으로, 그의 아버지는 이조 개국(李朝開國) 1등 공신(功臣)인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 벼슬에 올랐던 익화군(益和君) 김인찬(金仁贊)이다. 김검룡은 그의 세째 아들로써 낙향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김검룡(金儉龍)의 무덤은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속칭 분토전(分土田)에 조성되었고 묘제는 음력 3월 7일이다. 그의 무덤은 고려시대 귀인(貴人)의 묘형(墓型)인 방묘(方墓)이며, 자손 4대까지 그 형태가 이어졌다. 입도 2세 수의부위우군부사정(修義副尉右軍副司正) 김용신(金用信)의 무덤은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산 38번지 번널오름 건좌(乾坐)에, 입도 3세 병절교위용양부위사직(秉節交尉龍驤副尉司直) 김계수(金季粹)의 무덤은 번널오름 건좌(乾坐)에, 그리고 입도 4세 건공장군증통정대부호조참의(建功將軍贈通政大夫戶曹參議) 김자신(金自愼)의 무덤은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 산 83번지 반득전 임좌(壬坐)에 위치해 있다.⁶¹⁾

59) 編著, 1980, 《濟州의 人脈》, 13~14쪽, 太光文化社.

60) 金宗業, 1966, <歷史的으로 본 墳墓의 變遷過程>, 《濟州道》겨울호, 65쪽, 제주:제주도.

61) 慶州金氏益和君濟州派世譜編纂委員會, 1978, 《慶州金氏益和君濟州派世譜券一》, 276쪽, 서울:大耕出版社.

추정하건데, 고려조에는 상·장례의 격식이 유교식보다는 훨씬 간소하였고, 이러한 영향이 제주의 풍속에도 영향을 미쳐 조선조 유교식 제례 속에 혼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결국 제주도에 귀향오거나 낙향한 입도시조 방묘들은 한 축은 고려조의 충절의 상징으로 남았고, 한 축은 새 왕조의 사상적 기운을 타고 유교를 이 땅에 뿌리면서 지방호족으로 대를 이으면서 정착하게 된다. 두 왕조의 문화적 요인들이 제주에 그 뿌리를 내리게 되는 시점이다.

2) 제주의 원묘(圓墓)

(1) 통훈대부(通訓大夫) 고이지(高以智) 묘

제주의 원묘는 무척 보기 드문 묘지의 형태이다. 간혹 들녘에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주의 묘지 형태 가운데 가장 적은 수에 해당한다.

고이지(高以智)의 묘는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에 있다. 낮은 언덕배기에 남향으로 햇살을 받으며 고즈넉하게 앉은 그의 묘지는 알곳은 바람을 피해갈 수 있는 포근한 곳이다. 그의 벼슬은 구비(舊碑)에 의하면 본관은 제주이며 통훈대부(通訓大夫) 장련현감(長連縣監)을 역임하였다. 고득중(高得宗)의 8세손이다. 공(公)의 묘역은 부인과 함께 모셔진 쌍분이다. 공의 봉분은 직경이 5m, 높이가 1.2m에 달하는 비교적 큰 묘지이다. 그의 곁에는 숙부인(淑夫人) 양씨(梁氏)의 묘가 비슷한 크기로 나란히 있다. 공의 생몰(生沒) 연대(年代)는 미상이고, 선조 17년(1584) 태안현감(泰安縣監)을 역임한 것으로 보아 16세기에 만들어진 묘지로 추정된다. 구비(舊碑)는 화강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꽃을 새겼다. 그 비석의 글자는 풍상에 마모되어 백비처럼 보이지 않고, 문양은 정확하게 어떤 꽃의 문양인지 알 수가 없다. 구비(舊碑) 옆으로 16세기에 만들어진 화강석의 문인석 2기가 좌우를 보며 서 있다. 원래 석물이 고루 갖추어져 있었으나 동자석은 오래전에 도굴된 듯 하다. 광무(光武) 연간에 만든 비석이 구비(舊碑)가 같이 서 있다. 그리고 새로 세운 동자석 2기, 무인석 2기, 망주석 2기, 장명등 1기, 귀부이수(龜趺螭首) 1기, 상석 1기가 윤기를 띠며 서 있다.

산담은 규모로 보아 제주지역에서 가장 넓고 긴 산담에 해당한다. 산담은 평균 넓이가 2.7m~2.9m 정도. 높이는 전면 바깥이 1m, 후면 바깥이 40cm. 신문은 트지 않았고, 산담은 겹담에 잡석 채움 방식으로 축조되었다. 산담의 길이는 가로 33.8m, 세로 36m나 되는 대형 묘역이다.

(2) 헌마공신(獻馬功臣) 김만일(金萬鎰) 묘

대표적인 용묘로는 헌마공신(獻馬功臣)인 김만일(金萬鎰, 1550~1632, 字는 重臨)의 묘를 들 수 있다. 김만일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정의현 의귀리 사람이다. 1579년(선조 12년)에 나라의 어려움을 알고 말 500필을 조정에 헌납하여 벼슬이 정2품에 해당하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오위도총관(五衛都總管)에 제수(除授)되었다. 그 후 그의 아들 김대길(金大吉)과 그의 손자 김여(金礪)도 말 200필을 바치니, 당시 제주목사였던 이회(李檜)가 장계를 올려 김대길에게 정6품의 감목관직을 주어 자손 대대로 이를 세습하게 하였다. 그 후부터 계속 3년마다 200필의 말을 조정에 바치게 되었고, 1895년(고종 32) 제도가 개혁되면서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직이 폐지될 때까지 세습이 계속되었다.

김만일의 묘는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773번지 속칭 서위남 마루 자좌(子坐)에 있다. 묘제일은 음력 3월 9일이다. 서위남 마루는 나지막한 동산으로 김만일의 묘는 한가로이 남쪽

을 향하고 있다. 봉분의 높이는 140cm, 지름 480cm. 산담 전면과 후면 길이는 모두 9m 30cm, 측면의 길이는 11m. 산담의 높이는 평균 1m 내외, 산담의 넓이는 150cm, 정사각형에 가까운 산담이다. 봉분 앞에는 너른 상석이 있고, 향로석 하나가 있다. 무덤을 쓴지 370여년의 연륜답게 방부원수(方扶圓首)형 비석은 거의 마모되어 띄엄띄엄 몇 자 판독할 수 있을 뿐이다. 일그러진 입으로 위엄을 세우고자 했으나 그만 웃음이 나올 것만 같은 조면암재의 문관석 2기가 마주보고 있다. 동자석 2기는 한번 도굴되었다가 2002년 11월에 되찾았다. 그 동자석은 2005년에 다시 도굴되어 빈 자리만 쓸쓸히 남았다. 산담 우측에 바로 붙어 만일 공의 아버지 이홍(金利弘) 공의 묘가 있다.

3) 용묘(龍墓)

(1) 원주후인변공지묘(原洲後人邊公之墓)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경작지에 원주후인변공지묘(原洲後人邊公之墓)가 있다. 공의 이름은 여무(汝武)이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봉해졌다. 비문에 의하면, 이 묘지는 건륭(乾隆) 계유(癸酉)년인 1753년 3월에 조성되었다. 봉분의 높이는 95cm, 지름은 410cm, 일반적인 크기의 묘지이다. 산담 전면의 11m, 후면의 길이는 9.2m, 측면의 길이는 13.2m, 산담의 높이는 1m~1.2m 내외, 산담의 넓이는 140cm, 약간 직사각형 끌이며 잡석을 이용한 허튼쌓기 방법으로 쌓았다. 신문은 우측으로 트고, 정돌은 하나 올려져 있다. 무덤의 석물은 방부원수(方扶圓首)형 비석 1기, 동자석 4기가 있는 데 2기는 조면암, 2기는 붉은 색 용암석으로 만들어 세웠다. 부채를 든 문관석은 용암석으로 만들어 산담 구석에 바짝 붙여 세웠다.

이 묘지의 석물의 배치는 망주석이 없는 대신 동자석 2기를 더 세운 것, 석재를 다르게 하여 세운 것, 조면암 동자석인 경우 매우 조형적인 감각이 뛰어나게 만든 것이 매우 특이하다. 약 70m 동쪽에 아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 곳의 석물이 아버지 묘지의 석물을 본떠 만든 것도 주목할 만하다.

(2) 유인부씨(孺人夫氏)의 묘

동쪽으로는 손자봉이 올라다 보이고 서쪽으로는 동거미 오름이 훤히 보이는 별판에 정갈한 묘지가 하나 있다. 봉분은 작은 듯하면서도 선이 고와 무척 아담하게 보인다. 이 묘지는 이장을 하고 광무(光武) 기해년(己亥年)인 1899년에 다시 개장(改葬)한 묘지이다. 봉분의 높이는 90cm정도. 전형적인 제주의 묘지 형태를 띠고 있다. 석물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손가락을 든 동자석 2기와 혼유석, 상석, 비석, 토신단 등이 잘 다듬어서 갖춰져 있고, 신문은 오른쪽으로 터 있다. 그 위에 정돌을 2개 올려놓아 마소의 침입을 막고 있다. 지절(階節)은 기단이 분명하고, 주가석, 향로석, 축판석이 반듯하게 놓여 있다. 묘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어 깨끗하지만 키 큰 갯민들레 무리가 묘지를 침범하고 있다. 그리고 목장 한 가운데에 있는 묘지라 그런지 마소의 침입이 잦은 듯 산담의 돌이 묘지 안으로 떨어져 이리 저리 굴러다닌다. 산담은 매우 유연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산담의 길이는 가로 앞쪽이 11.9m, 가로 뒤쪽이 10m, 측면인 세로가 14m, 높이는 앞쪽 130m, 측면이 40cm 정도로 지형의 굴곡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산담 모퉁이에 어긋돌은 큰 돌과 작은 돌로 서로 의지하듯 받치고 있다. 묘지 좌측에는 잡석 쌓기로 만들어진 일자형 새각담이 산담과 떨어져 북

동쪽에서 오는 사악한 기운을 차단하고 있다.

3. 제주 민묘의 배치 형태

1) 단묘(單墓)

단묘는 말 그대로 홀로 있는 묘지이다. 혼자 묻힐 수밖에 없는 경우나 부부 중 누가 먼저 돌아가서 단묘를 조성하여 산담으로 완성한 형태의 묘이다. 또한 묘지 터 관계 때문에 쌍묘로 조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간혹 단묘들은 가족 관계에 따라 이장하면서 쌍묘가 되는 경우가 많다.

2) 쌍묘(雙墓)

쌍묘는 한 묘역에 2기의 봉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쌍묘는 부부지간(夫婦之間), 부자지간(父子之間), 모자지간(母子之間)이나 조손지간(祖孫之間)에 조성된다. 쌍묘를 만들 경우는 자손들이 미리 부모를 위해서 묘 자리를 준비한 경우에 가능하다. 먼저 사망한 부모의 곁에 처음만큼의 봉분을 만들 수 있는 묘 자리를 남겨 두었다가 후에 살아계신 부모가 운명하면 그 옆에 봉분을 쓴다. 간혹 망자가 ‘죽은 각시(첩)’가 있을 경우 본부인의 뒤쪽에 본부인보다 봉분을 작게 만들어 모시기도 한다.(사진)

3) 합묘(合墓)

합묘는 한 봉분에 부부가 함께 묻히는 묘지를 말한다. 이미 조성된 단묘에는 합묘를 할 수 없고, 합묘를 하려면 반드시 다시 구산(求山)을 하여 이장하면서 합장(合葬)을 한다. 이때 관과 관사이의 구멍을 뚫어 서로 기운이 통하게 한다.(사진)

4. 제주의 민묘 구조

방묘나 원묘에 없는 특이한 구조가 용묘에 있는데, 용묘는 조선시대 가장 널리 조성된 민묘의 형태이다. 제주의 민묘 중 용묘는 크게 봉분과 산담으로 구성된다. 봉분 안에는 시신을 안치하는 광중(壙中)이 있고, 봉분 앞에는 지절과 뒤쪽에는 용미가 있다. 이를 용미지절(龍尾除節, 혹은 階節)이라고 부른다. 산담은 무덤을 보호하는 돌담이다. 드물지만 묘지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防法)으로 산담 밖에, 산담 높이보다 높고 산담 측면 길이만큼 길다랗게 쌓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새각담’이라 한다. 그리고 이 새각담은 산담 위에 다시 외담으로 한 쪽만을 쌓는 경우도 있다.

1) 봉분(封墳)

봉분은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흙을 봉긋하게 쌓아놓은 것을 말한다. 봉분은 시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자의 음택을 표시하는 기능도 함께 한다. 그리고 그 형상이 산과 같다하여 제주에서는 무덤을 ‘산’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진제국(秦帝國)시대에도 황제의 분묘를 ‘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후대에 제왕의 분묘는 모두 ‘산릉’이라 불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수경주(水經注)》 <위수(渭水)>조에는 “진(秦)에서는 천자의 무덤을 산(山)이라 하고, 한(漢)에서는 능(陵)이라 말한다”고 하였다.⁶²⁾

2) 광중(壙中)

시신을 묻기 위해 관이 들어갈 자리를 파놓은 구덩이를 말한다. 관이 들어갈 자리를 파는 것을 개광(開壙)이라 하며, 이 구덩이를 파는 사람을 ‘개광목시(목수)’라 한다. 개광목시는 ‘췌(패철)’를 놓아 사자(死者)의 좌향(坐向)을 바로 정한다. 광중은 관 넓이에 맞게 파며 깊이는 지상에서 80~100cm 정도, 관을 보호하는 개관(蓋板)을 덮으면 거의 지면과 일치한다. 광중을 육지부에서와 같이 깊게 파지 않고 얇게 파는 이유는 제주의 지질이 암반으로 돼 있어 그만큼 토층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의 지관(地官)들은 이 토층을 잘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산터’를 쓰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 비록 좋은 ‘산터’라도 그 속에서 암반이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제주에서는 육지부와 다르게 경작지에 무덤을 쓰는 이유를 토층과 관련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작지는 이미 여러 차례 밭갈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토층을 확보하고 있고, 암반지대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비교적 토층이 두터운 경작지에 ‘산터’를 즐겨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3) 용미(龍尾)

용미(龍尾)는 방묘(方墓)나 원묘(圓墓)에 없는 용묘의 한 부분으로 꼬리처럼 다듬어진 부분을 말한다. 용묘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무덤형태이다. 용묘에는 반드시 용미와 ‘지절(階節)’이 있다. 용미는 망자의 얼굴 바로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무덤에 용미를 만드는 이유는, 비가 올 경우 물이 불어나서 봉분의 흙이 쓸려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빗물을 좌우로 나누어 그 힘을 줄이도록 하는 기능 때문이다. 조선 영조 때 학자인 유중림(柳重林)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초상 치르는 법>조에도 “용미(龍尾)의 좌우는 충분히 잘 다듬어서 물길에 막힘없이 잘 빠지게 해야 새어난 물이 무덤 속으로 침범하는 걱정을 면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용미(龍尾)의 형태는 제주와 육지부가 봉분의 꼬리가 비슷하다. 하지만 육지부에서는 용미가 바로 지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성(莎城)과 붙어 이어지는 것이 제주와는 사뭇 다르다. 사성(莎城)은 다른 말로 곡장(曲牆)이라고도 하는데, 무덤 뒤 용미에서 이어져 좌우 양쪽을 반달모양으로 둘러싸 막고 그 위에 잔디를 입힌 두툼한 토성(土城)을 말한다.⁶³⁾ 제주의 용미는 봉분의 꼬리 부분이 지면에 가까워지면 점차 사라지는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며 산담과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지절(祭節, 除節, 階節, 砌節)

‘지절’은 제절(祭節, 除節)의 와음(訛音)으로 계절(階節), 체절(砌節)하고도 같은 말이다. ‘지절’은 산담 안 봉분의 영역을 구분하며 봉분이 앞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지지(支持)하는 계단 역할을 하기 위해 현무암을 다듬거나 잘 생긴 자연석으로 받쳐서 한 단을 높여 놓은 것을 말한다. 지절은 묘지내의 사자의 집인 봉분을 구분 짓거나 망자를 높여 대우하기 위한 영역의 경계이기도 하다. 이 ‘지절’ 위에는 비석을 세우거나 상석, 혼유석을 놓는 곳으로서 함부로 오르지 못하게 금기되어 있다. ‘배계절’은 지절의 한 단 밀이며, 동자석이나 문인석을 세우기도 하며 후손들이 봉분을 바라보며 제례를 지내는 곳이다. 이 ‘지절’을 경계로 의례 시 사자(死者)와 생자(生者)의 영역이 확연히 구분된다. 그리고 배계절의 공간이 넓을수

62) , 2005, 《중국역대 陵寢제도》, 장인성, 임대희 옮김, 25쪽, 서울:서경.

63) 유중림, 1997, 《산림경제》, 민족문화추진회편, 82~83쪽, 서울:술.

록 벼슬이 높거나 여유 있는 집안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5) 산담

산담은 무덤을 보호하기 위한 음택의 울타리이다. 육지부의 무덤은 곡장(曲牆)이라는 흙 울타리가 있다. 이 곡장은 용미와 바로 연결되어 봉분을 보호하기 위해 뒤쪽에 반원형으로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제주의 산담은 사방으로 부등변 장방형의 돌담을 겹담으로 두르거나 외담으로 원형에 가깝게 무덤 주위를 돌아가며 쌓는다.

6) 외장

‘외장’은 산담 바깥 공간으로 산담을 보호하는 완충 공간이다. 지역에 따라 ‘어장’이라고도 부른다. 제주의 묘지는 밭 가운데 많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경작하는 사람들이 밭을 갈 때 산담을 자주 건드리게 된다. 그러다보면 산담을 쌓은 땅의 기초가 훼손돼 산담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산담을 쌓을 때 사방을 돌아가면서 기존의 경작지 보다 약간 높고 넓게 흙을 쌓아 산담의 기초를 보호한다. 이 외장은 사자(死者)의 공간 영역에 포함되며 발주인 또한 될 수 있으면 이 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놔둔다. 비록 그 외장에 잡초가 있더라도 ‘놈의 산(남의 무덤)’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대로 두며, 매년 음력 팔월 초하루가 되어 ‘벌초’를 할 때 묘지의 친척들이 와서 그 외장의 잡초를 제거한다.

V. 제주의 산담문화

돌담은 제주만이 연출해 낼 수 있는 가장 독창적인 경관을 이루는 것으로 지형에 어울리는 풍토적인 장관을 이룬다. 돌담이야말로 가장 제주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서 보는 이를 놀라게 한다. 돌담에는 밭을 보호하거나 소유의 경계를 짓는 밭담이 있고, 집안으로 몰아치는 강풍을 막기 위해 쌓은 집담과 올래담, 그리고 음택의 울타리인 산담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돌담들은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석상(石像), 석구(石具)와 함께 특이한 제주의 돌문화를 보여준다.

하지만 제주의 돌문화에도 삶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이 동시에 있다. 그러나 항상 삶의 영역은 죽음의 영역과 관계를 가질 때만 서로가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 진리라면 진리다. 말 그대로 죽음의 영역은 삶의 언저리에 늘 존재하는 것으로, 삶의 영역에서는 죽음의 영역을 볼 수 있으나 죽음의 영역에서는 삶의 영역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태이다. 그러므로 삶의 영역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공포의 승화일수도 있거니와, 심리적으로 존재의 무방비적(無防備的)인 체념의 요인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결국 모든 인간의 삶의 문제는 언젠가는 거쳐야 할 죽음에 이르는 경로에서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스스로의 의문이야말로 존재 스스로가 부정하든 긍정하든 늘 자신의 삶의 하이라이트로 남게 된다. 죽음의 문제는 삶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에 새삼 놀랄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의 돌문화를 크게 삶의 문화로서의 돌문화와 죽음의 문화로서의 돌문화로 나누어 보면, 보다 삶의 문화 속에서 죽음의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죽음의 문화 가운데 산담을 하나의 문화적 개념으로 확장하여 산담 문화라는 틀로 정리하게 되면, 제주문화에서 산담문화가 갖는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될 것이

기 때문이다. 즉 음택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돌문화로서 산담을, 죽음의 문화적 영역으로 독립시켜 산 자들의 ‘계획적인 기념비’로 살피고자 함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발담은 발의 경계를, 잣담은 목축의 방목을, 올래담은 바람으로부터 가옥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모두가 삶의 문화적 영역을 위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산담은 단지 돌담이라는 형태로 삶의 문화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돌담 형식에 편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화를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문화적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주의 산담문화는 제주 사람들의 생사관(生死觀)의 응집체이다. 제주의 산담은 단지 돌담의 한 형식인 산담이 아니라, 산담을 경계로 하여 산 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가 구분되기 때문에 죽음의 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된다. 밭이나 목장이 산 자들의 생활영역이라면 산담은 어디에 있든, 죽은 자들의 영역으로서 사자(死者)들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담은 신성한 돌담이며 이승과 저승의 경계지대이다. 따라서 산담은 돌 많은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대지 예술(Earth Art)로 승화되었다.

제주의 문화를 바람의 문화, 돌 문화, 굿 문화, 여성의 문화로 대별해 보면 제주인의 역사적인 삶의 모습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도 죽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주의 산과 들, 밭에 산재해 있는 산담문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앞서 기술했듯이 산담문화는 단지 돌문화의 한 축이 아니라 제주인의 생사관과 공간개념, 조형성을 엿볼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적 산물인 것이다. 산담문화는 나아가 제주인의 상·장례의식의 축조물로서 제주인의 문화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산담문화는 제주인의 죽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자들의 의식과 관념형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특정 시대의 공간을 완성해낸 것이다. 그 공간은 제주인의 삶의 얽힌 갈래를 풀어주는 산 자들의 완성된 공간이며, 현실적으로 동시대인들과 대화하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공존을 꾀하는 신성영역이다. 따라서 산담문화는 제주인의 본향(本鄉) 의식을 반영하며, 그리고 전통적인 의례를 세습해주는 장소로서 기념비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돌문화의 독창적인 공간 개념으로 전환된다.

1. 시 · 공간을 넘어선 대지예술(Earth Art)로서의 산담

1960년대 중반~1970년대 북유럽과 미국에서는 ‘대지미술(Earth Art)’, 또는 ‘환경미술(Environmental Art)’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미술가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미술운동을 전개했다. 이 미술운동은 두 가지 주요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첫째 미술의 상업화에 대한 반대, 둘째 60년대 이후 산업화의 폐단을 목격하면서 부상한 환경운동에 대한 지지가 그것이다. 특히 후자는 ‘땅으로 돌아가자(back-to-the-land)’라는 슬로건 아래 반(反)도시화주의를 선언하고, 지구라는 혹성에 대한 환경적인 정신적 태도를 표방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도시의 현장을 조경하여 그 장소를 예전의 자연적 상태나 선사시대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시도하는가하면, 스톤헨지를 연상시키는 천문학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건축적인 구조물을 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고대의 무덤 봉분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대지 조각을 창조하기 위해, 미국 서부의 사막에서 수 톤의 흙과 바위를 파내어 창작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대지미술가들은 직접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자연자체를 대상으로 작품 활동을 한 것이다. 특히 로버트 스미슨이라는 사람이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에, 바위와 소금결정체로 450m의 길이에 달하게 축조한 <나선형의 둑>은 거대한 장관을 보여주는 대지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대지미술가들은 점차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미술운동을 전개하며 자연과 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자 했다.⁶⁴⁾

제주의 산담은 제주사람들의 미술적인 자각이 발생하기 이전의 노동 생산물로서 대지의 미학이라는 개념과는 상관없이 출현한 거대한 땅의 프로젝트다. 땅을 대상으로 수백 년에 걸쳐 충실하게 쌓아온 이 축조물은 결과적으로 제주의 경관 자체를 바꾸어 놓았고, 제주의 조형적인 인상을 새롭게 각인시켰다. 즉 의도하지 않은 조형물이 누대에 걸쳐 축조되면서 놀랄만한 규모로 확대되어 지금은 온통 제주의 들녘을 하나의 거대한 돌 조형미술관으로 만들어놓았다. 비록 익명의 사람들이 명멸하는 시간 속에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현무암을 가지고 땅에 그린 대역사(大役事) 산담. 한마디로 산담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공동체 미학의 결정체다. 개인의 창작이 개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개인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 반해, 공동체는 공동체의 보이지 않는 윤리와 규약에 의해 공동의 실천을 통해 사회화된다. 이 실천의 사회화 과정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 사회를 관통하는 사상적 맥락을 넘을 수 없는 한계 속에서 표방되지 않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암묵적인 ‘사회적 강제성’ 이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오늘날의 장대한 구조물을 남기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강제성’은 당시 정치적 흐름의 주류였던 유교의 예사상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데 반해, ‘사회적 필요성’은 변방이라는 지리적 여건, 목축으로 대표되는 특수한 산업, 화산섬이라는 풍토적 지질성과 지형성, 변덕스런 섬의 기후, 섬사람들의 심성 등 매우 복합적인 의미가 결합되었을 것이다.

이론적 맥락에서야 산담의 출현은 숭조사상(崇祖思想)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으나, 사회적 필요성이라는 면에서는 산담의 역사과정에서 살필 수 있듯이 제주의 직접적인 현실에 기반을 둔 축조물인 것이다. 또한 이 축조물은 오랜 시간 반복되는 과정에서 미학적인 결합이 필수불가결하게 되는데 그 증거를 살펴보게 되면, 원형산담에서 전방후원산담으로 변화하였고, 그리고 직사각형 산담을 거쳐 부등변 사각형 산담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산담의 형태론적인 면을 살펴보면, 직선에서 곡선으로, 수직에서 예각으로 변화하며, 산담의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진출하고자 하는 듯 ‘산을 등지고 바다로 나아가려는’ 역동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런 의도적인 표현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사물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나 혹은, 반복되는 것에 대한 개성적 표현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산담은 돌담의 일종이나 죽음의 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돌담과 달리 인식된다. 산담의 돌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터부의 요소가 있고, 이유 없이 산담을 함부로 넘어가서도 안 된다. 먼 길을 가다 길을 잃었을 때 산담 안에 자면 그 안의 영혼이 보호해 준다고 믿는 인간적인 따뜻함도 있다. 산담은 농부들에게 매우 기능적인 장소가 되기도 한다. 산담은 농부들의 점심 먹는 장소도 된다. 경작지에는 온통 바람에 날리는 흙뿐이지만, 산담은 돌로 넓게 쌓아 높이가 있고 밭을 바라보며 점심을 먹기에 좋은 장소다. 어떤 때는 급한 대로 간단한 농기구나 물 같은 것을 잠시 보관해 두기도 한다. 아마 묘지의 것은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속설 때문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산담은 제주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의식적인 친연성을 띤다. 500여년의 시·공간을 넘어오면서 산담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해왔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산담은 제주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조성된 대지예술로서, 그 어떤 축조물보다도 대단한 규모이며 자연주의적인 섬의 풍토와 잘 어울리는 환경미술로 생각된다. 어쩌면 자본주의 등장으로 늦게 자각하여 시작한 서구의 대지예술운동보다 산담은 예지한 것처럼 이미 대지를 수놓아버렸

64) 앳킨스, 1994, 《현대미술의 개념풀이》, 박진선 옮김, 69쪽~70쪽, 서울:시공사.

다.

자연환경 속에 꼭 들어앉은 산담. 계절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그 매력 속에 제주인의 삶과 문화를 기억하게 하는 건강한 동력이 있다. 제주에 찾아와 산담을 보며 놀라는 이방인의 표정 속에도 대지예술은 환경적으로 아름답게 머물 것이다.

2. 제주 산담의 역사적인 조성 배경

산담은 제주사람들이 이루어낸 역사적인 기념물로서 화산 땅의 대지예술(Earth Art)이자 장대 웅혼한 대지미학(大地美學)을 탄생시켰다. 한반도에서 볼 수 없는 산담의 진풍경은 한편으로는 사자(死者)를 위한 영혼의 집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산 자를 위한 기념물로 존재한다. 산담 조성은 돌 밖에 없는 땅에서 나고 자란 제주사람들이 조상에 대해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최대의 대역사(大役事)였다.

그렇다면 산담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밭담은 고려시대에 밭의 경계를 구분 짓기 위해 김구 판관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집담은 바람 많은 제주도의 풍토적 환경으로 인해 밭담 보다 더 일찍 형성되었을 것이다. 집을 둘러싼 돌담은 방풍을 위한 벽이기도 하거니와 소유의 경계를 나타내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어느 돌담보다도 일찍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산담은 조선 초기부터 효를 실천하기 위해 무덤을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 것 같다.

그 최초의 산담 형태가 지금의 부등변 사각형의 산담이 아니라 비록 소규모이고 다른 형태 일지라도 봉분 주변에 석곽형태든 원형의 잡담형태든 돌담을 두른 것만은 확실하다.

《세종실록(世宗實錄)》 12년(1430) 병오(9일)일의 기록은 산담과 관련된 내용임을 암시 해 준다.

“제주에 사는 전 교도(敎導) 양심(梁深)이...아버지가 죽으니 여묘(廬墓)하여 예를 다하였습니다. 또 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기더니 어머니가 죽자 또 여묘하려 했는데 형제 친척들이 집이 가난하니 이를 중지하라고 하였지만, 이를 듣지 않고 **몸소 토석(土石)을 지어다가 무덤을 만들고**, 소상, 대상, 담제를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의하여 지냈습니다. 청컨대 정문(旌門)하고 서용(叙用)하십시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묘(廬墓) 3년은 인자상사(人子常事)나 이것이 해외인(海外人)이므로 마땅히 그 효성을 정표(旌表)하라”하니 그대로 따랐다.⁶⁵⁾

또한 《세종실록(世宗實錄)》 13년(1431) 10월 갑진(13일)일의 기록도 이와 유사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인 부사정(副司正) 김비(金庇)는어머니가 죽으니 슬퍼함이 예를 넘었고, 수분(守墳)하고자 하니 형제 친척들은 가난하고, 노복(奴僕)이 없으니 그만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비(金庇)는 듣지 않고, 여막에 살면서 음식 올리기를 생시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소 토석(土石)을 운반하여 분묘를 만들고**, 소상, 대상, 담제를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준하여 하였습니다. 향인(鄉人)들이 그 효행에 감복하였다고 합니다. 청컨대 정표하고 녹용(錄用)하십시오” 하니 그대로 따랐다.⁶⁶⁾

65) 編譯, 1986, 《朝鮮王朝實錄中耽羅錄》, 82쪽, 濟州文化放送.

66) 위의 책, 88쪽.

우리는 위의 기록들을 통해서 조선 초기에는 유교식 상·장례의 지침서라 할 수 있는 《가례(家禮)》의 시행이 관리들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전 교도(敎導) 양심(梁深)이라는 자와 부사정(副司正) 김비(金庇)라는 자가 ‘토석(土石)을 몸소 지어다가 무덤을 만들었다’는 구절은 기록상 제주 산담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흙)는 말 그대로 달구질을 하여 봉분을 쌓기 위한 것이고, 석(돌)은 봉분을 보호하기 위해 에워싸는 담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에 그 규모나 모양이야 어떻든 산담은 15세기부터 출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점차 《가례(家禮)》에 의한 유교식 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자는 포상과 상신의 혜택이 따르고 있으며, 제주는 물 밖의 섬이라 《가례(家禮)》가 시행되는 것이 본토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에 조성된 제주 방묘인 ‘탐라성주고봉례묘추정지(耽羅星主高鳳禮墓推定址)’ 발굴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묘에 석곽을 두른 형태는 내부 토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봉분의 경계를 짓고, 봉토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15세기의 산담의 초기 형태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⁶⁷⁾

그렇다면 산담은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을까?

이응호(李膺鎬)의 《탁라국서(毛羅國書)》 <풍속(風俗)>조에는 ‘묘역위장(墓域圍牆)’이라는 항목이 나온다. 즉 ‘무덤에 돌담을 두른다’는 내용으로 지금의 산담을 말하는 것이다.

무덤에 세 가지 걱정이 있으니 야화(野火)가 미치기 쉬운 것. 우마가 짓밟는 것, 경작하는 것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니, 돌을 쌓는 것은 그 때문에 하는 것이다.(墓有三憂 野火易延也 牛馬踐觸也 耕者稍近也 石築者其所然耳)⁶⁸⁾

기본적으로 산담은 무덤을 보호하기 위한 돌담이다. 조선시대 제주에는 철(鐵)이 매우 귀하였다. 그 이유로 돌밭을 개간하는 데 필요한 농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황무지 경작이 쉽지 않았다. 주로 너른 벌판에 불을 놓아 그 재로 거름을 삼아 씨를 뿌려 거두고, 장소를 이동하는 화전(火田)이 발달해 있었다. 들판에 있는 묘지에 화전의 불이 드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묘지 주위에 담장을 두르게 된 것이다. 또한 제주는 예로부터 목장을 운영하기 좋은 자연적인 여건 때문에 목축산업이 발달하였다. 자연 목장이 많다보니 그 목장의 마소(馬牛)들이 묘지의 좋은 풀을 뜯기 위해 봉분에 오르는데, 봉분은 마소의 무게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거나 흙이 파헤쳐져 보기 흉하게 되어 자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보니, 마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그 자손들이 산담을 쌓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경작지 가까이에 있는 묘지인 경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갈 적마다 묘지의 면적을 점점 갉아먹어 봉분이 위태롭게 되어가자 하나의 방편으로 산담을 쌓아 봉분을 보호하게 된 것이다.

경작지에 무덤을 조성하는 경우는 육지부에서는 볼 수 없는 기현상이다. 제주에서는 지금도 이 전통이 남아 있어서 종종 자신의 밭이나 친인척의 밭에다 무덤을 조성하고 있다. 친인척의 밭에 묘지를 조성할 경우 무덤을 쓰는 댓가로 약간의 터 값을 보상한다. 이 전통에 비추어 보건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밭에 무덤을 조성하는 것은 조상의 무덤을 거의

67) 제주대학교박물관, 1997, <탐라성주고봉례묘추정지(耽羅星主高鳳禮墓推定址)>, 28쪽.

68) 李膺鎬, 1976, < 羅國書>, 《濟州年鑑》, 407쪽, 제주:濟州年鑑社.

일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

제주는 땅 속이 암반 지대가 되다 보니 토층이 얇고 흙이 적어 바람에 씨가 날아가는 등 밭농사하기가 힘에 부치다. 그래서 제주사람들은 부지런히 경작지를 오가며 작물의 생장(生長)과 마소의 침입 여부를 관찰한다. 이의 유래가 ‘밭 돌아본다’ 라는 말을 낳았다. 자신의 경작지를 탈 없이 가꾸기 위해 일상적으로 ‘밭을 돌본다’는 뜻이다. 당연히 자신의 밭은 조상들이 물려준 터전일 것이다. 그 밭에는 몇 대조의 조상무덤과 또는 친인척의 무덤도 있을 것이다. 밭에 가면 언제라도 조상들을 만날 수 있고 기억에 생생한 조상의 무덤을 ‘밭 돌아볼 때’ 같이 돌보면 여러모로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혹 이웃 밭에 있는 무덤에 마소가 들었을 때는 “산에 쇠(牛)들었저!”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웃에 경계하라고 알려주기도 한다. 파종기나 수확기에 점심이라도 들라치면 먼저 조상의 무덤을 향하여 첫술의 고운 밥으로 ‘코시(고시례)를’ 한다. 툼툼이 밭일하다 짬을 내어 무덤의 억새와 같이 묘지 속으로 뿌리가 번어가는 잡초를 뽑기도 한다. 제주사람들은 자신의 경작지에서 자신의 조상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셈이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에게 밭은 삶과 죽음의 현장이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그곳에 자신이 손수 묻은 조상이 있고, 자신이 묻힐 빈자리가 있다. 제주사람들에게 밭은 삶의 현장이기도 했지만 죽음의 끝자리이기도 했다.

이처럼 자신의 조상을 위해 밭머리 무덤에 흔하디흔한 돌로 산담을 두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행위야말로 오히려 당사자를 위한 사전 길땀이와 같은 것이다. 후대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 돌봐줄 것을 기대하면서, 자손들의 암묵적인 동의 를 구하는 풍습의 승계라고나 할까.

재고해보면, 전통사회에서 묘지를 조성했던 곳은 크게 마소가 많은 목장지대, 화전이 가능한 들판, 경작하는 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곳들은 제주사람들의 생활과 긴밀하게 어우러 지는 삶의 현장이어서 산담이 주는 가치는 더욱 크다 하겠다.

3. 산담의 공간개념

제주에서 ‘산담’이라고 부를 때 단순히 봉분을 두른 축조물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산담은 봉분과 죽음의 관념을 포괄하는 일종의 공간지표이며 일상적으로 찾아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간적인 지표를 갖는다. 산 자들에게는 산담은 성(聖)의 요소와 함께 금기의 요소까지 개입된다. 산담의 공간은 산 자들에게 허용되는 청명, 한식날, 벌초, 묘제 등 특정한 날을 제외하고는 찾아갈 이유가 없는 금기의 공간이 된다. 그래서 산담은 산 자들에게는 금기로 규정된 공간이 되며, 그 금기사항으로 인해 일상공간과는 분리된다. 그러므로 그 산담의 사각형 속은 삶의 일상성과는 무관하게 죽은 자들의 자유로운 공간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산담 안(죽은 자들의 공간인 저승)과 산담 밖(산자들의 공간인 이승)을 이어주는 신문(神門)은 전혀 다른 두 개의 공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그렇지만 그 통로는 산자들에게 자유로운 통로가 아니다. 그 통로는 죽은 자들에게 훨씬 자유로운 통로로서, 죽은 자들은 항상 그 통로를 통해 산 자들의 세계로 올 수 있다는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산담의 신문(神門)이나 새각담의 기능으로 볼 때, 산담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소, 사람, 불, 사기(邪氣) 등을 산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의미가 더욱 크다. 그래서 신문에는 산 자들의 집에 있는 대문역할을 하는 ‘정낭’과도 같이 죽은 자들은 정돌을 올려놓는 것이다. 대문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자유로운 통로지만 집밖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선별하면서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집안에서 집밖으로 나가는 것은 주인의

재량이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집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열린 통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들은 죽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를 차단하는 정낭에 불과하지만, 산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산담을 함부로 때를 잊고 찾지 말라는 금기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된다.

제주에서는 망자가 죽고 기일(忌日)이 되면, 하루 전 살아있었을 때를 기점으로 제사를 지낸다. 그 제사를 제주에서는 ‘식계’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식계’날이 되면, 해당 영혼은 저승을 떠나 이승으로 ‘식계’ 먹으러 오는 것으로 관념한다. 사실 그 영혼은 저승으로 관념되는 산담의 신문(神門)을 거쳐 식계날이 되면, ‘자신이 살던 집’이나 ‘자신을 위해 식계’를 모시는 친족의 집으로 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죽은 자들 또한 아주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산 자들의 규약 속에서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약속이 깨지면 항상 문제는 산 자들의 쪽에서 일어나며, 산 자들은 묘지를 이장하거나 조상을 달래는 행사를 거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산담 안의 공간은 평상시에는 죽은 자의 공간으로서 저승인 셈이지만 이 공간은 산 자들의 방문이 허락되는 제례 때에는 다시 나뉘게 된다. 산 자들이 제물을 들고 조상을 기리기 위해 찾아온 날이면 죽은 조상은 지하에서 밖으로 나와 상석 앞에 앉는다. 이제 지상의 세계에서 산 자인 후손과 죽은 자인 조상이 서로 살아있을 때처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제례시간에서는 삶과 죽음의 만남은 동시공존성(同時共存性)을 띠며, 산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살아있을 때와 같은 예의로 죽은 조상을 예우한다. 비로소 저승이라고 관념되는 산담 안에서 일상공간도 없고, 저승공간도 없게 되는 순간이다. 평상시 분리되었던 공간 개념이 제례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제례시간이 끝나면 이런 공간 일치성은 다시 분리되며, 산 자들에게는 금기가 작동된다. 산자들은 산자들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산담을 넘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 대문을 닫는다.

4. 제주 산담의 유형

제주 산담의 형태적 유형에는 4가지가 있다. 원형, 전방후원형, 직사각형, 부등변사각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원형은 전방후원형으로 변했고, 사각형은 부등변사각형으로 변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앞부분은 직선이고 뒷부분은 길쭉한 반원형인 전방후원(前方後圓)형 산담, 사각형이지만 앞부분이 길고 뒷부분이 짧은 부등변사각형의 산담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방후원형(前方後圓形) 산담

앞부분이 직선이고 측면에서 뒷부분까지 잘록한 반원 형태로 둘러진 산담이다. 제주의 산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산담 형태로서 돌 하나씩 쌓고 올라가는 외담 형태로 만들어 진다. 이런 산담을 조성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연고자가 없거나, ‘가남(경제적 여력 없다는 제주어; 필자주)’이 없는 경우, 환경적으로 돌이 부족한 산야에 묘지를 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산담은 봉분 조성과 더불어 장례 당일에 주변의 돌들을 모아다가 바로 완성한다.

이런 형태는 산담의 초기 형태이며 임시로 둘러놓은 것같이 외담으로 쌓아 마소가 들기 쉽다. 단순히 묘지의 보호만을 생각해서 봉분을 중심으로 돌담을 쌓기 때문에 면적을 적게 차지하며 산담 안에서 제를 지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의례공간을 배려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대략 높이는 50cm~60cm를 넘지 않으며, 자연석 그대로를 이용한다. 밭담 쌓듯이 돌과 돌

을 물려 쌓는 방식으로 바람구멍을 살려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쌓는다. 이런 묘지에는 비석이나 상석, 토신단 등의 묘지석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런 산담은 영혼의 길인 ‘올래(神門)’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구조적으로 외담(홀담)을 쌓아서 올래내기가 불가능한 때문이다. 그리고 돌담의 축조는 봉분의 선을 따라 산담을 쌓게 되는데 봉분이 원형이면 원형의 산담을, 봉분에 약식으로라도 용미지절(龍尾階節)이 있으면 그 용미지절의 선을 따라 전방 후원식 산담을 쌓게 된다.

2) 부등변사각형(不等邊四角形)산담

이 산담은 사각형의 산담이 발달해서 정착한 산담이다. 산담 앞 변과 뒷 변이 1.2:1.0 정도의 비율을 가진 부등변 사각형의 산담이다. 이 산담은 ‘접담(접담)’으로 만들어지며 제주 산담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신문, 어긔돌, 토신단 등 산담의 구조를 골고루 갖추고 있으며, 묘지의 석물 또한 다양하게 갖춘 형태로 나타난다.

정리하면, 산담은 봉분이 있고난 후에 출현하였다. 산담의 고형(古形)을, 15세기에 만들어진 탐라성주고봉례묘추정지(耽羅星主高鳳禮墓推定址) 방묘에서 보듯이 봉토가 무너지지 않게 봉분 외곽으로 석곽형태의 돌담을 두른 것이 초기의 산담 형태일 가능성이 크고, 다음에 서서히 봉분에 맞게 둘러진 원형, 그리고 전방후원형에서 발전하여 지금의 사각형의 산담으로 변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주의 유교식 장묘제도가 15세기에 들어 왔고, 봉분을 만드는 매장제도의 초기 계몽기이고, 벼슬아치가 아니면 장례비용을 마련할 수도 없는 경제적인 처지 때문에 산담은 커녕 봉분의 조성도 어려웠다는 것을 감안하면, 산담의 기능은 단순히 무덤 보호의 기능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그래서 산담은 처음에는 외담으로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 봉분을 따라 담을 쌓다가, 갈수록 목마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마소의 수효가 점차 늘어나게 되자 마소가 산담을 쉽게 넘지 못하도록 산담을 넓게 쌓아 지금의 모습의 산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원형이나 전방 후원 산담은 지금도 경제적인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의 묘, 자손이 없는 여성의 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의 묘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산담은 가문의 위세(威勢)의 한 표현이기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산담은 곧 무덤의 보호에서부터 시작되어 가문의 기념비성까지 담아내는 상징적인 축조물이 된 것이다.

5. 산담의 축조방법

산담은 장례당일 쌓을 수도 있고, 흙으로 둥그렇게 봉분만 쌓았다가 이후에 경제적인 여건이 될 때 두르기도 한다. 사실 장례 당일에 산담까지 쌓으려면 ‘산역시(山役事)’ 할 인력이 많이 동원돼야 한다. 장지가 멀리 있는 경우 적어도 ‘산담접(산담계)’까지 필요하여 장례와 관련한 조직이 두 ‘골’은 있어야 당일에 완성할 수 있다. 겹담으로 쌓는 산담은 경제적인 부담과 인력이 많이 동원되는 큰일이었다. 그러나 외담인 경우 인력이나 돌의 수량이 많이 들지 않아 주변의 돌들을 모아다 바로 쌓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겹담으로 만들어진 산담의 축조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전형적인 제주의 산담은 양쪽으로 ‘접담(접담)’을 쌓고 그 가운데 잡석 채움 방식으로 축조한다. 먼저 봉분 주변에 산담의 크기를 정한다. 옆 변 길이 평균 40자(尺), 앞 변 넓이 35자(尺)정도에 산담 넓이 3~4자(尺) 만큼 실로 매어 기준을 잡는다. 정해진 산담 넓이에 해당하는 폭으로 깊이 10cm가량 흙을 일률적으로 걷어내어 돌이 잘 들어앉을 수 있게 한다. 그

리고 잡석 가운데 실한 돌들로 좌우에 기준을 잡듯이 굽을 놓으며 가운데는 비워둔다. 산담 양옆의 돌담을 계속 쌓아가면서 그 가운데는 잔돌들로 채워나간다. 돌들은 주변에 쌓아두었던 돌무더기인 ‘머들’을 허물거나 발 구석에 모아 둔 잡석벽(雜石壁)인 ‘잣백’을 허물어 산담의 속을 채운다. 특히 산담 앞 변의 양 쪽 끝은 앞변 중앙보다 높게 쌓아 완만한 곡선을 내어 유연하게 흐르는 산담 선을 만든다. 신문(神門)은 ‘정시(지관)’가 일러준 대로 막히지 않은 방향으로 트고, 긴 돌을 조금 다듬은 정돌을 그 위에 올려 놓는다. 산담 네 귀퉁이에는 정초석 역할을 하는 팥돌인 ‘어긋돌’을 놓아 산담 귀퉁이를 지지해준다. 속설에는 이 어긋돌은 망자의 사위들이 직접 운반하여 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긋돌 운반이 일종의 산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사위를 내세우는 풍습이 있다.

겹담의 산담은 대체로 앞부분이 높고 뒷부분을 낮춘다. 이는 섬땅의 지형지세(地形地勢)가 해안 쪽으로 기울어 있어서 이런 지형을 이용하여 돌담을 쌓기 때문이다. 특히 산담의 축조는 잡석을 활용한 ‘허튼쌓기’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허튼쌓기’란 다듬지 않은 돌들, 혹은 약간 손을 본 자연석의 장점을 살리면서 자연석 끼리 서로 잘 맞물리게 하여, 돌과 돌이 서로 의지하도록 쌓는 자연축조 방식을 말한다. 제주의 지형과 기후조건상 오히려 ‘허튼쌓기’ 방식이 지면의 상황이 변하더라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주의 산담은 거의 ‘허튼쌓기’로 만들어졌다. 돌담 쌓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잔돌을 밑에 넓고 촘촘하게 깔고 다시 그 위에 큰 돌을 외줄로 엮는 방식인 잡급담 쌓기, 발담이나 올래담을 쌓을 때 크기가 비슷한 자연석을 맞물리면서 반복하여 외줄로 엮어놓는 방식인 잡담 쌓기, 밭에서 나온 수많은 잔돌을 처리하면서 밭과 밭 사이 성벽위의 길처럼 평평하게 쌓는 방식인 잣길(城路)쌓기, 읍성이나 관아의 돌담을 쌓을 때 다듬은 돌을 바르게 쌓는 바른돌 쌓기, 산담처럼 양옆에 큰 돌로 지지하며 가운데를 채우는 겹담쌓기 등이 전통적인 돌담 쌓기 방식이다. 그러나 제주의 돌담 쌓기는 20세기에 와 한일합병이 되면서 일본식 돌담 쌓기로 많이 대체되었다. 일본식 돌담 쌓기라 할 수 있는 ‘정치쑈(精緻つ-む)’이나 ‘경치(傾緻) 쌓기’는 일본인 기술자에게서 배운 제주의 ‘돌쟁이(石工)’들의 와음(訛音)으로, 다이아몬드식으로 꽂 끼어 쌓는 방식을 ‘경치(傾緻)돌담’이라고 한다. 이 경치돌담은 잘 다듬은 사각형의 돌을 사선으로 꼭 맞게 부쳐 정교하게 쌓는데, 비가 많이 오고 지반이 약한 곳일 경우 기초가 흔들려 돌담 중간으로 무너지기 십상이다. 20세기에 주로 축조된 이런 경치돌담은 경관 면에서나 바람 많고 비가 많이 오는 제주도의 기후조건과 자연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돌담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겹담으로 쌓은 산담 가운데 비교적 표준치에 가까운 산담의 크기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산굼부리 북동쪽 100m 지점에 위치한 전력부위도수진무강공지묘(展力副尉都首鎮撫康公之墓)는 단묘(單墓)인데 가경(嘉慶) 경오(庚午; 1810) 정월(正月)에 생을 마치고, 같은 해 3월 초삼일에 장례를 지냈다. 이 묘는 앞 변의 길이가 11.7m, 뒷 변이 9.5m, 옆 변은 12.5m의 부등변 사각형이다. 산담의 넓이는 1.9m로 비교적 넓은 편이다. 높이는 앞 변 쪽이 95cm, 뒷 변 쪽이 70cm이며, 능선의 경사가 약 8도 가량 된다. 봉분의 높이는 1m 정도이다. 시문의 넓이는 50cm 정도, 정돌은 원래 있었으나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산담의 석재는 검고 붉은 빛이 도는 용암석으로 축조되었다. 무덤의 석물은 비석, 문인석 2기, 동자석 2기가 있으며 동자석은 조면암류, 문인석은 다공질 현무암류로 조각되었으며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산담의 조성은 장례 당일 마치는 수도 있고,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이후에 조성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마을 단위에 청년들이 주축이 된 ‘산담접(契)’이 있어 산담 축조의 주문이 오

면 공동으로 ‘산담 역시(役事)’를 하여 집살림의 자금을 마련했다.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에서 운영했던 ‘산담집’은 산담을 쌓는 도구를 공동으로 구입한 후 무덤 주변에 산담을 협동해서 쌓는 일 외에도 집담을 쌓는 일도 병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에 계원 모두가 나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出役’이라 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出役記’라고 한다. 이 출역기에는 돌담 축조 연월일, 의뢰자, 지명, 돌담 형태, 동원인원이 기록되어 있다.

出役記

一九六六年三月日任00祖母築牆時十四人動員

一九六七年正月日朴00祖母築牆時十四人動員

一九七三年二月日夫00果樹園築牆時十四人動員

一九八〇年二月二十日高00붉은 동산 산담十三人動員

一九八八年舊三月十一日高00뒗밭成築十四人動員

一九八九年舊二月二十九日梁00父親築牆十三名出役

一九八九年舊三月十七日李00長男築牆時十二名出役⁶⁹⁾

그리고 산담의 축조 비용은 1939년 5월 24일 ~ 6월 3일에 걸쳐 노다 시로(野田志朗)가 조사한 바에 따라 경비를 유추할 수 있다.

높이:2척 5촌, 폭:1간(6척), **1.축조시기:**2, 3월, 1일 공정은 1간. 8, 9월, 1일 공정은 5척, 노임은 집담장과 같다(돌챙이:현금 60전, 현물 60전, 식사 3번 24전, 담배 6전, 술 30전, 계 1원 20전/보조:현금 50전 현물 40전, 식사 3식 24전, 담배 6전, 술 30전, 계 90전).

2.캐기:2,3월 - 하루에 3간분을 캔다. 8,9월 - 하루에 2간분을 캔다. 돌챙이 1명, 보조 1명. 노임은 집담장과 같다.

3.운반:1간분의 운반(남자 1명, 노임은 집담장과 같다)

유지연수는 무한이며 수선하면 화를 입는다는 관습이 있어 수선은 전혀하지 않는다. 묘의 돌챙이는 노동조합(산담집; 필자)이 이를 맡는다. 노동조합은 이 때문에 조직되어 화북리 한 곳에 있다.⁷⁰⁾

또한 서귀포시 토평마을에서는 산담을 쌓는 일을 하면 일당은 서숙(黍粟)쌀 1말, 보리쌀 1말 정도를 받는데 서숙쌀 1말이면 7kg 정도, 장정이 1주일 정도 먹을 식량이라고 한다.⁷¹⁾

산담은 돌을 다루는 일이라서 매우 힘이 든다. 하루 종일 이런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피로도 잊을 겸, 좁쌀 막걸리 한잔과 노동요가 곁들여져야 한다.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전해오는 <산담 옮겨 쌓을 때 부르는 흥애기소리>는 과거 제주사람들의 공동체 정서가 물씬 배어있다.

어여뒀여 산이로다(후렴)

인심좋은 우리동네

69) , 1998, <경제생활>, 《濟州의 民俗5-民間信仰·社會構造》, 627~628쪽, 濟州道.

70) 洪性穆 譯, 2000, <濟州島調查報告>, 《朝鮮半島의 農法과 農民》, 217~219쪽, 濟州市 愚堂圖書館.

71) 서귀포시 토평마을편집위원회, 2004, 《토평마을》, 358쪽, 제주:서귀포시 토평마을회.

메와들면(모여들면) 일심동체(一心同體)
 오늘날도 요산담을
 부지런히 다와보자(쌓아보자)
 한덩어리 두덩어리
 주서다가(주워다가) 메와놓고(채워놓고)
 돌자귀나 돌도치(도끼)로
 다듬어서 다와노민(쌓아놓으면)
 산화(山火)도 방금(防禁)되고
 우마출입(牛馬出入) 방지(防止)된다.
 살아생전 못한 효도
 만분지(만분의) 하나라도
 사후라도 보답하리
 상석비석 갖춰노민(갖춰 놓으면)
 늬보기(남보기)도 좋아지꼭
 후세에게 유전(遺傳)함이
 자손의 도리로다.⁷²⁾

그렇다면 지금까지 축조된 제주도의 돌담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1930년에 부산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제주도의 경제》라는 책에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책은 우에다 코오이치로오(上田耕一郎)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3주간 체류하면서 ‘될 수 있는 데로 보고, 될 수 있는 한 듣고 알게 된 것을 모아’ 펴낸 책인데, 특히 그가 기록한 풍속에 관한 글 가운데 돌담의 길이가 나와 있다. 그 길이의 측정은 어떻게 산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무척 호감이 가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우에다 코오이치로오에 의하면, 제주의 돌담은 “대(垓)·전(田)·목장·분묘에 1구획마다 높이 1m내지 2m의 화산암의 돌담을 두르고 있는데 그 총연장 합계는 9천 9백리(약 3만8천8백km)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算定)된다”고 하였다.⁷³⁾ 제주의 들녘을 온통 가로줄과 세로줄, 그리고 자유곡선 등으로 대지에 그려놓은 돌담의 검은 선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몇 있을까. 혹자가 제주의 돌담을 가리켜 ‘흑룡만리’라 부르는 것도 새삼스럽지 않은 대목이다.

6. 산담의 구조

1) 올래

올래는 신문(神門)을 말한다. 올래, 올래-도, 도, 신문(神門)이라고도 한다. 올래는 제주의 골목을 부르는 말로 집으로 들어가는 기다랗고 구부러진 길을 말하는 것이다. 묘지의 신문이 출입하는 골목과 같다하여 올래라 부르고 있다. 신문은 신문(神門)의 와음(訛音)이다. 신문은 종묘나 향교에 신이 다니는 길인 신문(神門)을 모방하여 한학자들이 부르는 것이 음택의 산담에 정착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도는 출입구를 이르는 제주어이다.

신문의 넓이는 40~50cm정도이며, 산담을 쌓을 때 이를 감안하여 공간을 남겨두고 산담을 두른다. 향토 사학자 故 박용후 선생에 따르면 신문은 일반적으로 ‘여자의 묘는 오른 쪽에, 남자의 묘는 왼쪽에 50cm가량 담을 튼다’고 한다. 그러나 풍수가 정성필은 이에 대해 다른

72) , 2001, 《鄕土 江汀》, 307~308쪽, 제주:도서출판 디딤돌.

73)釜山商工會, 1999, 《濟州島の 經濟》, 洪性穆 譯, 105쪽, 제주:濟州市愚堂圖書館.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는 ‘남좌여우(男左女右)는 원래 음양의 이론으로서 남자는 양(陽)에, 여자는 음(陰)에 해당하여 좌측은 양이 되고 우측은 음이 된다’. 따라서 무덤(혈장)에서 좌청룡은 양으로 남자의 자손을 주관하고, 우백호는 음으로 여자의 자손을 주관하기 때문에 좌는 양이 되어 남자가 되고, 우는 음이 되어 여자가 된다. 또 황제내경 등에 의하더라도 남자는 신체의 좌측이 허약하고 여자는 우측이 허약하므로 남자의 좌측과 여자의 우측이 서로 허약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롯된 것이 신문을 설치할 때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곧 신문과 비석의 위치를 살펴볼 때, 역의 중심 원리는 중화(中和)이기에 중화는 실한 것을 덜어 주고 허한 것을 보태어서 균형을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비석의 위치는 허한 곳, 즉 산좌(山坐)를 위주로 하여 명당에 물이 들어오는 방향과 삼합(삼각형)이 되는 곳으로 대개의 경우 청룡이 백호보다 짧거나 명당수가 우측에서 흘러 들어오면 비석의 위치는 좌측이 되고, 반대로 백호가 청룡보다 짧거나 명당수가 좌측에서 흘러들어올 때는 우측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신문의 위치 역시 좌우의 허실에 의하여 디딤돌을 놓는 경우는 허한 쪽에 놓고, 신문 구멍을 내는 경우는 실한 쪽으로 하여 허실을 보완하고 중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⁷⁴⁾

그러나 쌍묘나 합묘를 보면, 망자(亡者)인 경우 남녀의 위치는 우상좌하(右上左下)의 원칙에 따라 생존 시의 개념인 좌상우하(左上右下)와는 정반대로 바뀐다. 현실세계에서는 좌측이 상위인데 죽어서는 우측이 상위가 된다. 곧 망자가 누운 위치에서 보면 남자는 오른쪽에, 여자는 왼쪽에 무덤을 쓰는 것은 우상좌하(右上左下)의 원칙 때문이다. 신문 또한 우상좌하(右上左下)의 원칙이 적용된 것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신문은 망자의 성별(남, 여)에 따라 다르지만, 매장 방식(합묘, 쌍묘)에 따라서도 다르다. 또 지형지세를 고려하기도 하고, 망자와의 관계에서 방위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산담 정면이나 정측면(正側面)에 올래를 트기도 한다. 신문의 기능은 영혼의 출입구이며, 1~3개의 길쭉한 정돌을 올려놓아 사람이나 마소의 출입을 금한다. 신문에는 잔돌을 깔거나 납작한 돌을 놓아 정갈하게 하여 풀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 신문을 만들지 않을 경우 그 위치에 돌계단을 놓는다. 가령 신문의 위치가 되는 쪽이 앞면이면 앞 쪽에, 측면일 경우 측면 쪽에 놓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대략 20세기 이후에 조성된 산담에는 신문을 만들지 않고 그냥 막아버린 경우가 많다. 그리고 드물지만 신문에 평평한 사각형의 댕돌을 놓은 사례가 있다. 밖에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신문의 끝 편에 사각형의 댕돌을 놓아 신발을 벗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라는 표시처럼 그 댕돌의 의미가 매우 새롭다.

2) 정돌

영혼이 다니는 신문(神門)의 길을 막는 돌을 정돌이라고 한다. 정돌은 신문 위에 얹어놓는 돌인데 길지만 모난 듯이 둥근 돌이다. 지름 20~30cm, 길이 50~60cm 돌을 1개, 혹은 2개, 많은 곳은 3개를 올려놓아 마소나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제주의 전통적인 산담은 모두 이 신문에 정돌이 놓여 있었으나 20세기에 오면서 신문을 폐쇄하여 산담을 조성하면서 그 자리에 돌계단을 만들어 두고 있다. <사진>

3) 어긔돌

어긔돌, 혹은 꺾돌이라고도 한다. 산담 네모퉁이에 정초석 역할을 하는 팡돌이다. 이 돌은

74) , 64세, 풍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파1리 25번지.

산담의 중심을 잡아주며 무덤 출입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무덤은 산담 뒤편의 두 개의 어긋돌을 중심으로 길게 돌담을 이어 놓는다. 이 어긋돌은 산담 축조시 장사(葬事) 지내는 집안의 사위들이 마지막으로 갖다놓는 돌이라고도 한다. <사진>

7. 산담의 미학(美學)

제주 들녘의 가장 장관 중의 장관은 산담이다. 산담은 봉긋한 봉분을 포개어 안고 있고 그 배경에는 주산에 해당하는 오름의 자락이 있어 특이한 경관을 보여준다. 그렇다. 산담은 제주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조형물이다. 그러므로 산담은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쌓아놓은 돌무더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수백 년 이어온 제주사람들의 미감과 풍토적인 정서가 스며들어 있다. 가까이에서 못 느끼는 산담의 조형미는 눈을 들어 자세히 보면, 기교 없는 기교의 감흥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바로 산담의 미감(美感)은 비균제(非均齊)의 미학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 산담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적이에요. 그렇다고 선과 형태에 소홀함이 없는 유려(流麗)함 때문에 조형주의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사실 선의 기능은 밀고 나가는 것과 끌어당기는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담은 원거리에서는 선으로 보이고, 가까이에서는 중량감 있는 괴체(塊體)로 입체를 이루고 있지만 전체적인 덩어리 속에는 사각형의 선적(線的)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산담의 사각형의 선은, 배경이 되는 오름의 원형 안으로 감싸듯이 끌어당겨진 느낌을 주게 되며, 다시 사각형의 산담 안 봉분의 둥근 선은 진출하지 못해 정지된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름(큰원), 산담(사각), 봉분(작은 원)의 상관적(相關的)인 선의 조화는 보다 경관적으로 더 어울리게 되는 것이다.

1) 산담의 자연미

산담은 모두 제주의 화산석으로 만들어지지만,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화산암재로 만들어진 다. 곧 그 지역의 지질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다. 가령 용암석이 많은 지대의 산담은 붉은 색 용암석으로, 조면암이 풍부한 산방산 인근 지역에서는 그곳의 돌로 만들어지며, 가파도 같은 섬 지역이나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둥근 바다의 먹돌로 축조된다. 그리고 제주의 풍토적인 재료를 쓴다는 점에서, 산담은 제주의 자연과 가장 친연성(親緣性)이 높다. 그래서 산담은 제주의 자연 지형을 잘 활용하여 축조하기 때문에 언제보아도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태연하게 느껴진다. 산담을 평원법(平遠法)의 원경(遠景)으로 바라보면, 배경이 되는 부드러운 오름의 여성적인 선과 초원의 느낌, 사각형의 남성적이고 투박하게 보이는 재질의 거친 느낌은 서로 보완해주는(相補) 풍토적인 경관을 형성케 한다. 오름은 산담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름다운 경관을 스스로 만들 줄 알고, 오름의 산담이 있더라도 그 어울림이 예사롭지가 않게 느껴지도록 배려한다. 산담이 많은 오름은, 그 선의 겹침과 비조화(非調和)가 있을 것 같으나 역시 자연은 자연의 속성을 아는지 자연의 재료와 인공의 선을 모두 포개어 안으며, 그 많은 산담을 자연으로 귀의하게 만든다. 봉긋한 오름 자락에 홀로 있는 산담들은 어떤가? 산담이 죽음의 문화와 직결되는 조형물이라는 사실 때문인지 어딘지 모르게 그 풍경은 스산하고 애절한 정서를 자극한다. 그러나 곡선은 직선으로 해서 더욱 그 선이 아름답게 흐르고 직선은 곡선으로 해서 더욱 박력이 있게 멈춘다. 따라서 오름의 곡선은 산담의 직선을 더욱 강직(強直)하게 하는 주체이고, 산담의 직선은 다시 축소된 오름과 같은 봉분의 곡선을 다시 부드럽게 어름 쓰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제주의 자연 경관 속에 어울

리는 강함과 부드러움, 직선의 급함과 곡선의 느낌으로 표현되는 산담의 존재는 모두 제주의 자연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산담의 자연미는 제주 풍토미의 살아있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

2) 산담의 조형미

산담은 제주사람들의 돌을 다루는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인공물로서 일반적인 돌담과는 그 품격이 다르다. 산담은 죽음의 문화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단순한 방풍벽이나 울타리가 아닌 영혼의 집이자, 산 자와 경계를 짓는 담장이라는 점 때문에 어떤 조형적인 미학이 들어 있다. 그 조형성은 한국미의 특질로도 볼 수 있는 선의 미(美)로 말할 수 있다. 가령, 한국의 기와집은 처마의 선이 좌우로 갈수록 하늘을 향해 들려 있고, 또한 버선코처럼 끝이 살짝 하늘을 향해 가볍게 날아 갈 것 같은 운동감도 있다. 그리고 누운 활처럼 휘어 있는 긴장감도 한국의 선의 미라고 할 수 있다. 산담의 선도 이와 유사한 형세를 보이는데, 산담은 높이가 낮은 뒤쪽에서부터 길게 들리듯 구부러져 흘러서 산담 앞쪽 끝에 오면 산담의 작은 하늘을 향해 살아나 유연해지는 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높은 앞쪽 좌측 끝에서 중앙으로 이동할수록 서서히 잠기듯 낮아지다가 반대편 우측 끝으로 갈수록 선이 다시 살아나 산담 좌측 끝과 대칭을 이루어 멈춰 서는 것이 제주 산담의 선이다. 더 나아갈 수 없이 살짝 멈춰버린 산담의 선은 바라볼수록 평온함을 주는 정감으로 꼭 차 있다.

다시 산담 앞 쪽을 눈여겨보면, 산담 밀변에 비해 산담 윗변이 보다 앞으로 내밀듯 나와 있어서 삼각형의 뱃머리와도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런 느낌은 앞으로 쓰러질 듯 하면서도 언제라도 날아갈 준비가 돼 있는 역동적인 조형미로 표출되고 있다. 산담은 가까이에서는 자연석의 무질서한 돌출 때문에 제대로 된 선의 미감을 못 느낀다. 그러나 조금만 떨어져서 이를 바라보면, 무질서하게 보이던 자연석의 선이 살아나면서 감각적인 선이 되어 부드러운 선으로 모양새를 바꾼다. 즉 가까이에서 은유(隱喻)되었던 선이 거리를 두면 계획된 선으로 화하는 것이다.

VI. 제주 민묘의 석물

1. 망주석

망주석(望柱石)은 산담 안 무덤 앞 양 쪽에 세우는 표식용 돌기둥이다. 망두석(望頭石), 석망주(石望柱), 망주석표(望柱石表), 화표주(華表柱)라고도 한다. 망주석은 말 그대로 무덤이 있는 곳을 멀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세워 놓은 기둥이다. 왕릉의 망주석은 기둥부분과 대석(臺石)으로 나뉘는데 기둥 윗부분에는 봉우리 진 연꽃을 새기고 바로 밑에는 활짝 핀 연꽃과 그 아래에는 구름 문양을 새긴다. 기둥 중간 지점에 세호(細虎), 또는 다람쥐, 쥐 등을 표현하고 좌상 우하(左上右下) 원칙에 따라 좌측의 망주석에는 위로 오르는 세호나 쥐를, 우측의 망주석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세호나 쥐를 새긴다. 만일 쥐일 경우 낮을 흰 쥐로, 검은 쥐를 밤으로 보아 <禮書>에서 말하는 좌측은 東(陽(낮))/上을 의미하며, 우측은 西(陰(밤))/下를 의미하여 좌측의 쥐는 위로 올라가는 형상을 취하고, 우측의 쥐는 아래로 내려가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좌우배치 문제에서 음양론과 불교적 상징으로 볼 때 낮과 밤을 상징하는 쥐를 새긴 것은, 무덤을 찾는 후손들에게 세월이 흘러감, 즉 죽음이 다가옴을 암시

하고 있는 것으로써 무덤을 찾는 후손들에게 삶에 열심히 하라는 교훈적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다.⁷⁵⁾ 또한 망주석의 세호는 격상의 의미까지 있다고 한다.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망주석에는 좌우의 세호가 모두 위로 향하는 모습이며 이는 폐비 윤씨에서, 제헌왕후(齊獻王后)로 격상된 까닭에 이렇게 새겨진 것이라고 한다. 그 이후에는 세호가 다양한 위치와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⁷⁶⁾

제주의 망주석인 경우 다공질 현무암과 조면암질 현무암, 용암석 등으로 만들어지며 형태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다. 높이는 1m 50cm 정도이며 기둥머리는 연꽃 봉우리, 종(鐘), 깃가슴, 남성성기 모양 등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들이 있다. 이런 모양들은 원래 연꽃봉우리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모방 변형된 것으로 종 형태나 유방 형태가 돼버려 제주식 망주석의 전형이 된 것들이다. 기둥 형태는 8각형, 원형, 6각형, 4각형이며 세호나 쥐는 생략되었다. 대석(臺石)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기둥머리인 경우 모자를 씌운 것 같이 분리되어 제작된 경우가 많다. 한반도부의 망주석보다는 단순한 것이 특징인데 이 또한 재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망주석이 있는 경우 거의 문관석이나 동자석이 있는데 망주석을 포함한 무덤의 석물은 집안의 경제력과 정치력이 있을 때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석

원래 묘비는 죽은 사람의 이름과 행적, 가계, 묻힌 장소 및 세운 연도 등을 기록하여 묘역에 세운 돌이며, 진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비는 대체로 두 갈래의 연원이 있는데 장례의례 절차에서 유래한 풍비와 묘정(廟庭)에 건립되는 일영비(日影碑)이다. 고대에 장례를 치를 적에 관(棺)을 도르레에 달아 광중(壙中)에 내렸는데, 도르레를 매달기 위해 광중 옆에 세우는 나무가 바로 풍비였다. 또 고대에 사묘(祠廟)의 뜰에는 해 그림자를 관측하여 시각을 알리기 위한 표석을 세워 두고, 사묘에서 제를 지낼 적에 사용하는 희생물을 거기에 매어 두기도 하였는데 이를 일영비라고 한다. 청동그릇에 글을 새겨 조상의 공훈과 은덕을 기리는 제도가 사라지면서 일영비에 글을 새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묘정비(廟庭碑)의 시작이라 한다.⁷⁷⁾

비의 형태는 상개(上蓋)의 형태에 따라 이름을 부른다. 이무기를 새긴 것은 이수(螭首), 지붕 모양의 가첨석(加添石), 감투 모양의 관석(冠石)을 얹는데 비의 종류에 따라 그 신분별 쓰임새가 다르다. 하대(下臺), 즉 대석에는 사각형의 네모난 방부(方趺)나 거북이 모양의 귀부(龜趺)를 받침대로 쓴다.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석은 끝이 각진 말각형(末角形), 반원형의 월두형(月頭形), 팔작지붕형이 있다. 특히 월두형 비석은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수록 넓게 퍼진 형상으로 선이 역동적이다. 팔작지붕형의 비석은 비신(碑身)과 상개(上蓋)인 팔작지붕이 함께 붙어 있고 그 모양도 작고 귀여울 정도로 제주의 소박함이 돋보인다.

이 비석은 그야말로 제주에서 밖에 볼 수 없는 토착적인 비석인데 비신의 높이는 39cm, 넓이 20cm, 두께 13cm, 팔작지붕은 높이 8cm, 길이 27cm이며, 좌대는 가로 37cm, 세로 12cm 정도이다. 이런 비석은 대부분 조면암으로 만들어지며 좌대는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다.

75)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01, 《용인의 분묘문화》, 93쪽, 경기도:용인시.

76) 장영훈, 2000,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153~154쪽, 서울:대원미디어.

77) 鄭景柱, 2000, 《한국고전 의례 상식》, 359~366쪽, 서울:신지서원.

비석의 재료는 글자를 새기에 알맞은 조면암이 많이 쓰인다. 간혹 기공이 적은 면을 활용한 현무암 비석이 있으나 드물게 보인다. 조면암은 풍화에 약하여 비문이 빨리 훼손되거나 쉽게 부서지며 아예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 대석(臺石)으로는 직사각형과 거북이 모양이 있다. 직사각형의 대석은 현무암이나 조면암을 비신 두께의 크기만큼 흙을 파서 끼워 세운다. 사각형의 대석은 주로 현무암이 많이 사용되며, 용암석, 다음으로 조면암을 사용하지만 드문 편이다. 거북이 형상(龜趺)의 좌대는 주로 용암석이 많이 사용되는데 용암석은 현무암에 비해 형상을 새기기가 용이한 때문이다. 현무암제는 세부 묘사가 무척 어려운 까닭에 기피하고 있고, 조면암은 생산지가 제한되어 있어서 석재가 귀하여 받침대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간혹 입도조 묘에는 조선 초기에 유행했던 귀부하엽형(龜趺荷葉形) 묘갈도 보인다. 이 묘갈은 상개부분이 연꽃잎과 줄기로 문양화 된 것으로 비신 위를 덮은 형상이다.

그리고 제주의 비석에는 간혹 문양이 새겨져 있다. 비석에 새겨진 문양은 우아미(優雅美)나 세련미 보다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고 조각 기법도 음각으로 새겨진 것들이 많다. 이들 문양들은 입체적이고 화려한 한반도의 문양에 비해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문양의 형태는 풀잎 문양(草文), 고사리 문양, 기하학 문양, 연꽃 문양, 괴운(怪雲)문양, 운두(雲頭)문양, 비조(飛鳥)문양, 파도문양, 서로 교차한 뱀 문양 등이 있다. 제주의 비석은 한반도부의 화려한 비석과는 달리 매우 단순화된 특징을 띠고 있으며 그 다양성도 제한되어 있다.

3. 상석

상석은 봉분 앞에 넓은 현무암이나 조면암으로 된 사각 판석으로 만들어 놓는다. 제물을 진설하여 영혼을 대접하기 위한 상(床)이다. 묘제 때나 별초, 결혼식을 올린 때 등 특정한 날 무덤을 찾으면 으레 상석에 제물을 진설하여 제를 지낸다.

4. 돌잔

제주의 무덤 석물 가운데 특이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돌잔이다. 이 돌로 만든 잔은 18~19세기에 조성된 무덤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돌잔은 대개 상석 바로 밑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상석 가운데 붙어 있는 경우도 드물게 보인다. 4각형의 판석 위에 두 개의 돌잔이 한몸으로 붙어 있게 제작되었다. 돌잔은 주로 산방산 조면암이나 검붉은 용암석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석재로 돌잔을 만드는 이유는 현무암에 비해 강도가 낮고 형태를 만들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돌잔은 상석을 만들 때 함께 만든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정읍에 있는 벽사찰방 오영관의 묘에 잘 표현되어 있다. 영구불변의 돌잔은 조상숭배의 가상한 면모를 보여준다.

5. 돌벼루

묘지의 석물로 전해오는 돌벼루 또한 유일하게 제주시에 있는 무덤에서 볼 수 있다. 이 무덤에는 병것 쓴 돌하르방형의 문관석이 두 기 있고 무릎을 꿇어 공부하는 자세의 학동(學童) 석상이 두 기가 있었으나 그 동자석은 도굴되어 지금은 볼 수 없다. 이 무덤의 주인이 학식 있는 선비라서 그런지 돌로 벼루와 글을 배우는 학동(學童)을 만들어 놓았다.

6. 장명등

장명등은 제주의 무덤에서는 무척 보기가 힘든 석물이다.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제주 석으로 만든 석등은 드물게 몇 곳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7. 주가석, 향로석, 축판석

바로 지절(階節) 밑으로 세 개의 사각형 돌이 있는데 주가석(酒架石), 향로석, 축판석(祝板石)이라고 한다. 주가석(酒架石)은 잔대에 받친 술잔을, 향로석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향로를, 축판석은 쟁반에 받친 축문(祝文)을 올려놓는 작은 사각형의 돌이며 상석 앞 지절(階節)에 바짝 붙어 40~50cm정도 가량 떼면서 차례대로 나란히 놓는다. 크기는 보통 각기 가로 25cm, 세로 22, 높이 15cm이며, 재질은 다공질 현무암으로 만든다.

8. 혼유석

혼유석(魂遊石)은 영혼이 앉는 자리를 말한다. 앞의 너른 상석에 제물을 차리고 배례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드물지만 작은 혼백상자와도 같은 모양의 돌로 만들어 영좌(靈座)라고 새기고 봉분 앞에 세우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혼유석은 바로 상석과 붙여 위쪽에 가로×세로 20cm 가량의 사각형 각주석(角柱石)으로 만들고 돌출시켜 놓는다. 주로 비석에 쓰는 조면암재로 만들거나 현무암을 잘 다듬어서 만들어 세운다.

9. 토신단

묘지에서 가장 중요한 제단이 있는데 토신단이라고 한다. 무덤을 바라보며 배례하는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 무덤 후면 오른쪽 산담 구석에 작은 사각형의 광돌과도 같은 제단이 있다. 이 제단은 산담 안 묘지의 땅 주인인 토지신에게 조상 제사에 앞서, 제물을 올려 제를 지내는 곳이다. 묘지를 찾아 제례를 올릴 때 제일 먼저 간단한 제물과 토지신축을 차려 제를 지내야 한다. 그 다음에야 조상 제례를 시작할 수 있다.

희귀하지만 한라산 1600m 고지에 있는 처사(處士) 마희문(馬喜文)의 묘에는 토신단 대신에 정자관을 쓴 토지신상이 있다. 검은 색 용암석으로 만든 이 토지신상은 도내에서 유일한 토지신상이라는데 자료 가치가 매우 높다. 마희문의 묘는 앞은 각이 지고 뒤는 하나로 모아서 둥글어 지는 전방후원(前方後圓)형 산담을 둘렀다. 무덤 앞쪽으로 돌하르방처럼 병것을 쓴 문인석 2기와 동자석 2기가 있다. 돌은 주변의 붉은 빛의 현무암 자연석으로 잡석 쌓기를 하였다.

10. 문관석

1) 제주 문관석의 특징

문관석은 말 그대로 문관(文官)의 모습을 만든 석상이다. 문관석은 무관석, 석양, 석호 등 왕릉에서부터 세우기 시작하여 사대부 묘지, 그리고 조선후기에 와서는 낮은 벼슬아치 무덤인 민묘에까지 세우던 석상이다. 말 그대로 문관의 형상으로 정중하게 홀을 쥐고 왕을 배알 하듯 무덤 앞에 서 있다. 언제라도 묘주의 명령을 받들 것 같은 자세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 묘지에도 문관석을 포함한 석물들이 있다. 문관석은 동자석과 마찬가지로 제주 현무암재로 만들어져 있다. 동자석보다는 어림잡아 2배에 못 미치는 크기인데 대개가 머리에는

복두를 쓰고 있다. 무덤에 있어서도 동자석처럼 마주보고 서 있으며, 동자석의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문·무관석의 기원은 신라시대 왕릉에서부터 세우기 시작하여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른다. 한반도부의 문관석은 대체로 복두공복상(幞頭公服像)이 먼저 등장하고, 금관조복상(金冠朝服像)이 후반에 와서 나타나며, 이후 이 두 형식이 병존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대부묘의 복두공복상이 먼저 출현하는 배경은 조복의 착용이 왕 앞에서만 가능하다는 선초(鮮初)의 법령으로 인해 착용이 제한된 반면, 고려말 왕릉의 문관석의 영향과 함께 보다 자유롭게 입었던 공복이 먼저 문관석에 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16세기 후반 금관조복상의 유행과 더불어 두 형식이 병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는 복두공복상이, 조선후기에 와서는 금관조복을 입은 문관석으로 차차 변화해 갔다.⁷⁸⁾

그러나 제주에는 조선후기의 금관조복상을 입은 문관석은 보이지 않는다. 거의 모든 문인석이 복두공복상을 입었다. 정확히 말하면 제주의 문관석은 공복이나 조복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표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 쓴 복두로 이를 구분할 뿐이다. 따라서 복두에는 공복을 입었기에 복두공복상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 제주에는 금관조복을 입은 문관석이 없고 복두공복상만 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입도조(入島祖) 묘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경주김씨 입도조 5세손 김보(金譜)공의 묘지에는 화강석으로 된 복두공복상의 문관석 2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이 묘는 한반도부에서 운반해온 오래된 문관석이다. 따라서 제주의 문관석은 여말선초(麗末鮮初)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입도한 각 성씨들의 입도조에 한반도부에서 가져온 화강석의 문관석을 세우면서 제주 묘지의 석상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입도조의 석물들은 그 이후, 그 가문은 물론 주변에서 복두공복상이 모델이 되어 집안 내력으로 이어지고, 화강암재가 없는 제주의 조건 때문에 차차 제주의 풍토와 결합하면서 현무암의 복두공복상으로 대체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주의 문관석은 한반도부의 왕릉이나 사대부 무덤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지만 제주 현무암의 특성상 자연미를 살리고 있는 것, 변방의 ‘돌챙이(석공)’들의 기술적인 문제에 의한 변형된 고졸미(古拙美)가 크게 도드라져 보인다. 특히 문관석이 들고 있는 지물(持物)이나 복식 면에서, 그리고 재료가 주는 느낌과 단순한 형식미 등에서 제주 문관석은 한반도의 문관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제주의 문관석을 굳이 양식적으로 분류한다면, 비록 제주석으로 만들었지만 양식 자체가 한반도부에 가까운 ‘한반도형 문관석’과 제주의 풍토와 결합한 ‘제주형 문관석’, 그리고 제주의 문관석과 동자석이 혼합된 ‘문관·동자혼합형 문관석’이 있다. ‘문관·동자혼합형 문관석’은 동자석을 그대로 크기만 확대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있고, 문관석에 대한 묘사가 서툴러 동자석 분위기가 나는 문관석이 돼버린 경우이다. ‘문관·동자혼합형 문관석’의 지물은 동자석의 영향을 받아 동자석과 동일한 지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흠을 가진 한반도부의 문관석보다는 다양한 지물의 양상을 보여준다.⁷⁹⁾

2) 문관석의 분류

(1) 한반도형 문관석

제주의 문관석은 원래 한반도부의 문관석을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의미에서 머리에는 복

78)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01, 《용인의 분묘문화》, 503쪽, 경기도:용인시.

79) 김유정, 2001,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66~67쪽, 제주:파피루스.

두(帑頭)를 정갈하게 쓰고 공복(公服)에 관대(冠帶)를 단정하게 매었다. 간혹 사모(紗帽)를 쓴 문관석이 보이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다.

제주 조면암으로 만든 ‘한반도형 문관석’의 손에 든 지물(持物)은 문신(文臣)의 상징인 홀(笏)을 들고 있다. 조면암류(粗面岩類) 문관석은 돌의 속성상 비교적 상세하게 세부 묘사를 시도하여 한반도부 문관석의 지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다공질(多孔質) 현무암(玄武岩類)으로 만들어진 문관석은 조면암류의 문관석보다 거칠고 선이 굵게 표현되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부 문관석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른 문관석보다 조면암류로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세부 표현을 비교적 충실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2) 제주형 문관석

제주형 문관석은 한반도부의 문관석에서 영향을 받은 듯 하나 표현 방식이 매우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복두의 형식이 상당히 생략되거나 왜곡되어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또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거나, 울쇠를 들고 있으며, 양손을 가슴 위로 모은 것, 양손을 몸통에 붙인 것들도 있으며 세부표현이 단순하게 처리된 것이 특징이다. 복식이 거의 생략되며, 간혹 복대를 매고 있거나 모자만으로 문관석임을 알 정도이다. 또한 해학적인 모습의 문관석, 돌하르방 같은 문인석이 있다. 이런 제주 토착형 문관석은 또 하나의 제주 석상 양식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3) 문관·동자혼합형 문관석

문관·동자혼합형 문관석은 얼굴로 보서는 동자석이지만 석상의 크기와 무덤 내에 동자석이 따로 세워 있는 경우를 보아 문관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이한 양식은 제주형 문관석과 함께 제주 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파격적인 제3의 석상 형식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관석은 조면암, 다공질 현무암, 붉은 색 용암석으로 만들어지며 제주의 산담과 잘 어울리는 자연적인 소박미가 있다. 그러나 풍토적인 가치, ‘모방변형’ 되면서 굳어진 새로운 형식의 조형미는 새롭게 주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필자가 오래전부터 동자석과 함께 이를 주목하면서 얻은 결론은 문관석 또한 동자석과 같이 한반도부의 문관석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모방변형’이라는 기술적인 문제, 제주의 환경적인 요인, 화산암 재료에 의해 탄생한 제주의 독특한 석상이라는 것이다. 제주의 문관석은 동자석만큼 다양한 변화와 표정과 지물을 들고 있다. 제주의 문관석은 이미 토착화 되어 우리 곁의 머무는 석상이지만 그 가치에 비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석상이다.

11. 동자석

제주의 동자석에는 여러 종교가 습합되었는데 불교, 무교, 도교, 민간신앙의 요소가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제주의 동자석은 유교문화의 중심권에서 잉태되었으나 지역의 독특한 풍토와 여러 신앙이 어우러져 만들어졌고, 지방호족에 의해 융성해지면서 제주의 양식으로 정착하게 된 무덤 조각이다.

동자석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남(童男), 동녀(童女)의 형상이다. 동자석은 동제석, 동즈석, 동주석, 동제상, 애기동자, 자석 등으로 제주도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부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자석’이라고 부른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 출발한 동자석의 시대적 편년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발흥기(15~17세기), 융성기(18~19세기), 쇠퇴기(20세

기~1970년까지), 소멸기(1970년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주의 동자석은 15세기를 시작으로 16세기~17세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발흥하기 시작하여 18세기~19세기에 이르러 최고의 정점에 달하였고, 20세기 후반까지 그 맥을 이어오다 현재에는 한반도부에서 완성되어 들어온 화강석 동자석으로 대체되었다. 이 동자석들은 제주의 동자석이 있던 자리를 차지하였지만 자연과의 부조화 때문에 제주의 무덤을 더욱 어색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동자석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예를 갖추는데 기능을 살펴보면 숭배적 기능, 봉양적 기능, 수호적 기능, 장식적 기능, 주술적 기능, 유희적 기능이 있다.

동자석의 형태는 동남형(童男形), 동녀형(童女形), 금수형(禽獸形)이 있고, 내용에 따라 문자형(文字形), 기물형(器物形), 기하학 무늬형, 배례형(拜禮形), 무사형(武士形), 의례형(儀禮形), 해학형(諧謔形)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자석의 양식적 변천을 살펴보면, 원통형 동자석은 편년이 오래된 발흥기의 동자석이다. 반원형은 앞면은 부드럽게 각이 지고 뒷면은 반원형이거나, 앞면은 반원형이고 뒷면은 각진 동자석으로 융성기의 동자석이다. 각주형은 쇠퇴기의 동자석으로 사각기둥 형태이거나 민머리가 많고 조형성이 떨어지고 거칠며 표현이 조악하다.

동자석의 크기는 보통 지상에 세웠을 때 40cm~90cm 정도이며 땅속에 묻힌 정도가 10cm~20cm가 된다. 동자석의 비례는 2.5등신에서 4등신으로 얼굴부분이 전체 몸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동자석은 일반적으로 산담 안 상석과 묘비 앞 배계절(拜階節)에 세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세운다. 묘지에 동자석을 세우는 형식에는 기본형, 변형형, 특수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형에는 비석과 동자석 2기를 세우는 경우와 비석, 동자석, 망주석을 세우는 경우, 그리고 비석, 동자석, 문관석, 망주석 등의 순서로 세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다. 변형형에는 비석, 동자석 4기, 문관석이 있거나, 그리고 비석 없이 동자석만 있는 경우나, 비석과 문관석만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원래 제주의 묘지의 석물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석과 토신단이다. 상석은 그야말로 망자를 위한 제상(祭床)이고, 토신단은 토지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필수로 갖추어야 한다. 그나마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돼야 비석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과거 진상과 탐관오리 착취, 가문에 시달리던 제주의 경제적 조건에서는 동자석, 문관석, 망주석은 기본적인 재력이 있어야 세울 수 있는 고급 석물이었다. 산담이 웅장하게 만들어졌거나 그곳에 석물을 골고루 갖추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그 집안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다. 결국 묘역의 크기와 거기에 맞게 잘 갖춘 석물은 가문의 위세를 나타내는 기념비적 조형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동자석에는 여러 종교가 습합되었는데 불교, 무교, 도교, 민간신앙의 요소가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제주의 동자석은 유교문화의 중심권에서 잉태되어 변방인 제주에 까지 흘러와서 지역의 독특한 풍토와 여러 신앙과 만난다. 특히 한반도의 동자석이 불교적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채 지역마다 약간의 특징만을 남기고 있는 데 반해, 제주의 동자석은 분명, 한반도로부터 온 입도시조나 부임하는 목사, 제주출신의 양반토호, 정배객들에 의해 전파되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제주의 풍토와 사상에 의해 재탄생한 제주적인 석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제주의 동자석은 지방호족에 의해 융성해지면서 토착적인 민간신앙이 결합되어 제주의 양식으로 정착하게 된 무덤 조각이다.⁸⁰⁾

80) 책, 67~86쪽.

VII. 제주의 장묘 문화

죽음은 존재에게 있어 가장 중대한 문제이며, 존재들의 시간과 공간에 관계된 문제이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으로 향하는 시간의 초침을 돌리고 있다. 모든 존재에게는 한계 수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 한계수명은 생물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인간에게는 사고사가 아니라 자연사인 경우, 공통적인 평균 수명을 미리 상정할 수 있다. 물론 남과 여의 수명의 편차는 있더라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시간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존재의 한계 시간인 수명(壽命)이 다하면, 인간은 다시 돌아온 곳으로 떠나가야 한다. 그 곳이 어디이건 우리는 죽음을 ‘돌아간다’라는 말로 표현하며, 알지도 못하는 그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분주히 ‘채비’를 차린다. 한 번 가면 언젠가는 한 번 돌아가야 하는 자연의 법리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 죽음의 문화를 성찰하게 한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의 축제와도 같이 화려한 얼굴로 꽃상여를 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죽음의 문화가 결국 삶의 문화의 반쪽이라는 의미에서, 상보적으로 인간의 역사의 끈을 계속적으로 이어준다면, 죽음에 관한 문화는 삶의 생명력을 돋우어 주기 위한 철학적 성찰의 태도를 배우게 한다. 삶의 문화가 자만과 영욕의 거드름으로 나아갈 때 죽음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함과 숙연함으로 인간에 대해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삶에서 얻은 사악한 심성이라도 죽음에 이르면 착한 심성으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삶과 죽음이라는 이 양면의 문화가 인간사의 본 모습이지만 사람들은 항상 자신은 죽음에서 제외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살며, 자신은 죽음의 문화와는 상관없는 초월된 존재라는 오해로 세상을 살아가기 일쑤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신과 관계된 죽음의 문화와 닿게 되면 비로소 죽음이 모든 존재의 문제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삶의 소중함은 죽음 때문에 인식되며 죽음의 문화에는 산 자의 염원이 장례문화의 곳곳에서 되살아난다.

1. 토룡(土壟)

망자의 택일이 좋지 않거나 명절이 다가와 부정(不淨)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도울 수 없어 택일이 길어지는 때 택하는 가매장(假埋葬) 방법으로 이를 토룡(土壟)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30년 전만해도 흔히 볼 수 있는 가매장 방법이다.

서귀포시 토평 마을인 경우 토룡하는 이유를 먼저 장례 택일의 문제로 상주의 참여 수, 막은 절기, 상주의 운을 들고 있다. 그리고 홍수나, 폭설 등 천재지변인 경우, 명당이나 묘자리를 고르지 못한 택일의 문제, 전염병이나 난리에 의한 운상(運喪) 문제, 만상주가 출타하여 없는 주상(主喪)의 부재, 혼사나 상주가 없는 집안의 사정, 포제, 명절 등의 관습의 문제를 들고 있다.⁸¹⁾

토룡은 먼저 풍수지리와 상관없이 마을 가까이에 있는 적당한 밭을 지정하여 관 크기에 맞게 광중을 파서 관이 땅에 닿지 않게 소나무 가지를 깔고 입관 한 다음, 다시 소나무 가지로 관을 덮고 흙을 조금 뿌린 후 비가 들지 않도록 띠로 엮어 만든 ‘노람지’를 그 위에 두르고 고깔 같은 ‘주제기’를 씌운다. 소나무 가지는 쥐가 들지 못하도록 덮는 것이다. 흔히 남해안의 초분(草墳)같기도 하지만, 초분처럼 2차장인 세골장(洗骨葬)이 아니라, 시신을 임시 두었다가 장례 기일이 되면 정식 장례를 치른다는 점에서 가매장이라고 할 수 있다. 토

81) 토평마을편집위원회, 2004, 《토평마을》, 348쪽, 제주:서귀포시 토평마을회.

룡은 용미지절(龍尾除節)은 내지 않고 토신제도 지내지 않으며 막은 방위는 피해서 행한다.

2. 출타해서 죽은 사람의 장례

간혹 출타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은 집안에 두지 못하고 집 가까이 밭이나 들판에 장막을 치고 빈소를 삼아 장례를 치른다. 만일 상주(喪主)가 시신을 집안으로 들여놓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어딜 갔다가 이렇게 늦었는가? 식사를 차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 평소처럼 대한 다음, 시신 앞에 먼저 식사를 차려 놓고 난 다음에 집안으로 들여 장례를 치른다.⁸²⁾

3. 죽은 혼사(死婚)

결혼할 연령이 되어 죽은 남녀를 맺어주는 의례이다. 이를 ‘죽은 혼사(婚事)’라 한다. 먼저 남자 집안에서 여자 집안에 청혼을 한다. 그래서 응락이 되면 날을 잡아 혼례를 치를 제삿상을 마련한다. 그 앞에서 독축으로 배필이 되었음을 고한다. 간단한 약식 잔치가 치러지는데 이 때 친족들은 부조로 답례한다. 신랑 신부의 묘는 이장하여 합장한다.

4. 아이의 장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아이의 장례식으로 15세 이전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의 시신을 대로 엮어 만든 아기 채우는 ‘아기구덕’에 넣고 양지바른 야산의 매장지까지 가서 시신만 따로 묻고 아기구덕은 그 자리에서 소각한다. 아이의 장일(葬日)에는 그 아이가 평상시 쓰던 식기를 마당이나 울레에서 깨뜨려 버려야 한다는 속신이 있다. 아이를 묻을 때는 큰 바가지에 밥, 수저, 고기를 넣고 아이의 가슴에 안겨준다. 아이의 봉분은 잘 만들지 않지만 간혹 자그마하게 만들어 두기도 한다. 이런 봉분은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평지처럼 돼버려 무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된다.

5. 함박제

제주도 서부지역에 해당하는 대정 지역에서는 ‘함박제’라는 것이 있었다. ‘함박’이란 함지박을 말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나무 함지박에 ‘메(제사밥)’를 가득 담고 그 앞에 술잔을 올려 죽은 사람 숫자만큼 손가락을 꽂아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제사의 대상은 여러 대(代)의 조상 수만큼 수저를 꽂으면 된다. 이런 ‘함박제’는 문자를 모르는 집안에서 행해졌다. 이런 제사법은 과거 해신제를 지낼 때와 비슷하다고 한다. 바다에서 표몰(漂沒)한 무주고혼(無主孤魂)을 달래기 위해 큰 그릇에 밥을 가득 넣고 한번 술을 올려 절 할 때마다 수저를 하나씩 꽂는 방법으로, 그릇주위를 빙 두르도록 꼽아 제사를 지냈다 한다. 이런 함박제 형식은 식구들이 한 그릇에 모여앉아 나눠먹는 제주의 과거 식사법과도 유사하며, 장례일 아침이나 장지(葬地)에서 둘러앉아 식사하는 방법과도 같다. 이런 제사법은 유교식 의례가 아닌 것이다.⁸³⁾

6. 빗돌(碑石) 마련

예전에는 빗돌 마련의 풍습이 있었다. 자신의 집 울레 어귀에 평평하고 각진 사각형의 돌

82) , 58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3053-1.

83) 송수방, 58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3053-1.

을 미리 준비해 쌓아둔다. 비석은 주로 부드러운 조면암재로 만들었고 돌자귀로 비석을 평평하게 기초를 다스린 다음 무쇠 솔뚜껑으로 연마하였다 한다. 이후에 자신의 묘지에 비석으로 쓰기 위함이며 자손의 짐을 덜기 위한 배려의 마음이 엿보인다. 제주의 여성들은 생전에 삼베나 무명, 모시 등 상례용 제수(祭需)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제주의 풍습이었다.

7. 개판(蓋板)마련

개판은 판을 덮는 일종의 지지대이다. 봉분의 흙의 무게가 직접 판에 쏠리지 않게 완충 역할을 하는 판자를 의미한다. 개판으로는 비자나무, 구슬갓밤나무, 가시나무, 뽕나무, 느티나무, 뽕나무, 노가리 나무가 상품(上品)이라고 해서 선호하였는데, 특히 노가리나무 개판을 쓸 경우 약 30년 이상 나무의 강도를 지탱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소나무 판자를 주로 사용한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창고에 개판용으로 약 7개 정도의 판자를 한 묶음으로 하여 미리 ‘큰일(喪葬)’에 대비해 두었다.

8. 철리(遷移)

철리는 여러 가지 사유로 묘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달리 이장(移葬), 천장(遷葬)이라고도 한다. 집안에 자주 흉험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조상묘를 잘못 쓴 탓이라 생각될 때 다른 곳으로 묘지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또는 부부가 서로 합장을 하기 위해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근래에는 가족공동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조상묘들을 일률적으로 옮겨 단장하고 있다.

9. 이장된 묘지의 석물 처리

이장된 묘지의 동자석과 망주석은 그 자리에 묻는다. 구비석(舊碑石)이 심하게 훼손되어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때 비석을 다시 세운다. 이때 구비석은 산담 구석에 눕혀 놓거나 산담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아 둔다. 요즘에는 이장된 장소까지 석물을 가져와 세우고 있다.

10. 골충(古塚)

제주의 들녘에 가면 봉분이 보이지 않게 풀이 앙상하게 자란 묘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묘지들이 바로 골충(古塚)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돌볼 사람 없어 방치된 무덤을 통칭한다. 골충은 갑자기 대가 끊겨 묘지를 돌볼 자손이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리고 조상의 묘지 위치를 잃어버려 돌보지 못하는 경우, 친인척들이 출타하여 돌볼 수 없는 경우 묘지가 황폐해지고 임자가 없게 된다.

11. 새각담

고노(古老)들에 의하면, 새각담은 방제담(防止垣), 방쉬담(防邪垣)이라고도 한다. 이 새각담은 망자의 입장에서 나쁜 방위 쪽으로 돌담을 쌓는데 두가지 형태가 있다. 이미 쌓은 산담 위에 한쪽으로 잡담을 약 80cm~1m 높이로 쌓아 올려 ‘새각(邪氣)’ 비치는 곳을 막기 위해 쌓은 돌담 형태가 있다. 또한 이와 다르게 쌓는 경우는 묘지의 산담과 2~3m 떨어진 곳에 따로 돌담을 쌓는다. 높이는 1.2m 정도로 측면 산담 길이만큼 쌓아 사기를 방지한다.

VIII. 문화유산으로서의 제주 민묘

제주의 민묘는 산담이라는 돌로 된 울타리를 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민묘 구조와 다르다. 여기에서 산담이라고 하면, 단순히 봉분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 개념이 아니다. 제주에서 산담이라는 의미는 사자(死者)의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산담은 사자의 묘역을 모두 포괄하는 죽음의 문화적 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담은 집담, 울담, 발담 등의 돌문화의 물질적 유형을 넘어서는 제주 사람들의 정신문화가 담긴 문화적 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반도로부터 유교의 장묘문화가 건너와 화산섬의 지질·풍토적인 요인과 산업적 이유로 만나면서 돌로 된 산담의 대역사(大役事)를 이루어 낸 것이다. 제주의 문화 가운데 가장 찬란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이 산담은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제주의 경관을 대지 예술의 장관으로 바꿔놓았다. 앞으로 이런 경관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남은 산담은 오히려 개발과 장묘제도의 시대적 추이에 따라 빠르게 훼손되거나 변화하고 있다.

하나의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문화는 그 사회 내 상층의 지배적 요소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영향을 수용하거나 변형하는 기층의 생활요소들이 결합하면서 어떤 때는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생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일찍이 산담의 출현이 충효라는 예사상의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지배질서의 산물이기는 하나, 그 형식에 있어서는 당대의 제주의 산업적 측면을 염두에 둔 토착적인 형식의 돌문화라는 사실에서 문화의 독자성과 자생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산담은 하나의 독자적인 양식으로 굳어졌다. 이 양식은 풍토적인 특성으로 말할 수 있는데, 풍토적 특성이란 지역의 기후, 지리, 지질, 그리고 그 사회의 경제구조, 산업, 문화적 가치를 특징짓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적 성격이다. 이런 문화적 특성은 문화형식을 통해서 시대적인 양식이 구현된다. 그러나 그런 문화형식들은 급작스럽게 나타나 특정 문화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오래전에 생긴 형식들의 변형에 의해 비로소 하나의 문화형식이 완결된다. 결국 하나의 문화적 코드의 완결은 지나간 공동체의 문화적 의미를 포함하는 시간의 연속이며, 이후 그 공동체가 나아갈 문화적 마인드의 출발 코스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산담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대(前代)가 남긴 유물이라는 점에서 문화유산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화유산이란 한 사회의 전통적인 언어가 담겨있는 우리 앞에 남겨진 과거의 축적물이다. 문화유산은 그 가치의 범주를 제대로 평가할 때 오래 기억되며, 제대로 보존된다. 제주도 전역에서 어느 방향을 둘러봐도 산담은 흔한 돌무더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산담의 문화적 독창성은 제주 사회의 전모(全貌)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인공물로서 어느 돌담과 달리 삶과 죽음의 문화를 넘나들고, 제주의 산업적 의미와 사회적 의식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돌담 가운데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담은 중세의 시간을 넘어서 존재하는 제주 섬의 가장 절실한 사연을 담고 있는 생사(生死)의 철학적 공간이며, 제주 사람들의 생사관의 지표라는 점에서 그 어떤 유형문화재보다도 조형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를 풍부하게 내재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무덤의 출현이 단순히 사체 처리 방식에서 시작되어 그 축조된 무덤을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 하나의 기념비가 되는 모습을 보았다. 바로 산담문화가 이에 해당하는데 산담은 목축문화의 산물이었으나 후대에 올수록 가문의 위세를 알리는 기념비성을 띠는 조형물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문화는 지배적 시기, 잔존 시기, 부상하는 시기

를 거치는 것이 역사과정의 법칙인 것처럼 조선시대 그 화려했던 산담문화도 지금은 잔존문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다. 이제 산담은 중세의 주류문화에서 오늘의 잔여(殘餘)문화로 남게 되었다.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달라지는 장묘문화에 대한 현재의 사고방식은 속도의 사회에 살면서 실용주의로 흐르고 있다. 실용주의는 공동체적인 결속보다는 개인의 편의성을 우선시 생각한다. 과거 공동체 문화의 산물인 산담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문화적 변화를 맞게 되면서, 돌의 나라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사실, 이미 예견된 것처럼 근래에 산담은 인류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화되는 개발로 인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도로 건설, 골프장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으로 초지와 밭들이 사라지면서 그 안에 있던 산담 역시 땅에 매몰되거나 복개지의 재료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족 공동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조성됐던 묘지들이 이장되면서 산담의 원형이 빠르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산담이야말로 제주의 정체성과 경관 미학적인 면에서 뛰어난 관광자원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남의 일처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산담은 제주 공동체가 함께 이룩한 거대한 문화 프로젝트라는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훌륭한 인류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도 남는다. 그러기에 산담은 인간의 삶의 가치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어느 것보다 먼저 문화재로 지정돼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의 묘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서 산담의 가치는 더욱 보배롭게 빛난다. 그러므로 제주의 산담 중 역사적인 의의와 문화적인 가치, 조형적인 진가(眞價)가 있는 산담들을 선별하여 서둘러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 산담은 돌문화의 표본으로써 제주의 자연주의적인 문화 모델이 되어 대중적으로 그 가치를 널리 인식시켜야만 될 것이다.

이제 아름다운 제주의 들녘은 점점 자연미 넘치는 제주 현무암의 민묘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장묘문화가 부상하면서 흰색의 화강암 납골묘가 넘쳐나고 있다. 제주의 현무암 문화가 중국제 동자석이나 문관석으로 대체되는 것은, 단순한 문화의 교류와 같이 일시적인 공간이동을 넘어서는 공간 점유의 문화적 변동이며, 이런 문화적 변동은 실용주의와 속도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모습처럼, 결국 우리를 우리의 들녘으로부터 점점 소외시킬 것이며, 자연과 멀어져 가게 하는 문화적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무학, 1995, 《한국세시풍속기》, 서울:집문당.
- 姜龍三 編著, 1980, 《濟州의 人脈》, 13~14쪽, 서울:太光文化社.
- 慶州金氏益和君濟州派世譜編纂委員會, 1978, 《慶州金氏益和君濟州派世譜券一》, 서울:大耕出版社.
- 국립제주박물관, 2001, 《濟州의 歷史와 文化》, 서울:통천문화사.
- 권영필, 1997, 《실크로드 미술-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 서울:열화당.
- 金奉玉 編譯, 1986, 《朝鮮王朝實錄中耽羅錄》, 濟州文化放送.
- 金尙憲, 1985, 《南槎錄》, 朴用厚 譯, 濟州:濟州道教育研究院.
- 金錫俊, 1998, <경제생활>, 《濟州의 民俗5-民間信仰·社會構造》, 濟州道.
- 金錫亨 著, 1993, 《朝鮮封建時代-農民의 階級構成 - 兩班論》, 서울:도서출판 신서원.
- 김열규, 2002,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서울:궁리.
- 김원룡, 1999, 《한국의 고분》,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유정, 2003,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제주:파피루스.
- 金仁顯, 1997, 《韓國 濟州 歷史·文化 뿌리學》, 서울:宇鏞出版社.
- 김장생, 2000, 《국역 사계전서》, 서울:민족문화추진회.
- 金榮治 編著, 2002, 《濟州史人名事典》, 濟州文化院.
- 金榮治 編著, 2000, 《20世紀 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 김학범, 장동수, 1994, 《마을숲》, 서울:열화당.
- 金惠右·高時洪 譯, 1994, 《高麗史耽羅錄》, 제주:제주문화.
- 니겔 발리, 2001, 《죽음의 얼굴》, 고양성 옮김, 서울:예문.
- 로버트 앳킨스, 1994, 《현대미술의 개념풀이》, 박진선 옮김, 서울:시공사.
- 문화재관리국, 1975, 《문화재대관-사적편》, 서울:삼화인쇄주식회사.
- 민족문화추진회, 1993, 《新增東國輿地勝覽》, 이행외 옮김, 서울:솔출판사.
- 法制處, 1983, 《經國大典》, 서울:일지사.
- 釜山商工會, 1999, 《濟州島의 經濟》, 洪性穆譯, 제주:濟州市愚堂圖書館.
- 토평마을편집위원회, 2004, 《토평마을》, 제주:서귀포토평동마을회.
- 양관, 2005, 《중국역대능침제도》, 장인성·임대희 옮김, 서울:서경.
- 용인시사편찬위원회·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01 《용인의 분묘문화》, 경기도:용인시.
- 우홍, 2001, 《순간과 영원-중국고대의 미술과 건축》, 김병준 옮김, 서울:아카넷.
- 유중립, 1997, 《산림경제》, 민족문화추진회편, 서울:솔.
- 은광준, 2004, <석물, 영혼을 위로하고 진리를 밝히는 돌>, 한국의 석조문화》, 서울:다른 세상.
- 이기백, 1990, 《한국사신문》, 서울:일조각.
- 이덕일, 2003, 《살아있는 한국사》, 서울:휴머니스트.
- 李晔光, 1998, 《芝峰類說》, 南晚星 譯, 서울:乙酉文化社.
- 李膺鎬, 1975, <毛羅國書>, 《濟州年鑑》, 제주:濟州年鑑社.
- 李瀾, 1998, 《성호사설 精選》, 丁海廉 編著, 서울:현대실학사.

李重煥, 1994, 《擇里志》, 李翼成 譯, 서울:을유문화사.
 李增, 2001, 《南槎日錄》, 金益洙 譯, 제주:濟州文化院.
 장영훈, 2000,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서울:대원미디어.
 장철수, 1995, 《한국의 관혼상제》, 서울:집문당.
 鄭景柱, 2000, 《한국고전 의례 상식》, 부산:신지서원.
 조선미술가동맹, 1989, 《조선미술사》, 서울:한마당.
 朝鮮總督府, 1999, 《朝鮮古蹟圖譜》, 서울:民族文化.
 趙貞喆, 1824, 《靜軒瀛海處坎錄》.
 지그프리트 겐테, 2000, <겐테박사의 한라산 등반기>, 《옛사람들의 登漢拏山記》, 제주:濟州文化院.
 村山智順, 1996, 《朝鮮의 風水》, 鄭鉉祐 譯, 서울:明文堂.
 한국문원편집실, 1995, 《왕릉》, 서울:한국문원.
 한국사연구회, 1997,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청년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웅진출판.
 尹京老, 2001, 《鄕土 江汀》, 제주:도서출판 디딤돌.
 황선명, 1985, 《조선종교사회사연구》, 서울:일지사.
 泉靖一, 1966, 《濟州島》, 日本:東京大學出版部.

2. 기타

김찬흡, 1995, <濟州 三邑 牧民官總覽 3>, 《제주도》, 통권 제97호, 제주:濟州道.
 김인호, 1991, <제주에 왜 고분이 없나? 3>, 《월간제주 5·6월호》, 제주:월간관광제주사.
 金宗業, 1966, <歷史的으로 본 墳墓의 變遷過程>, 《濟州道》, 겨울호, 65쪽, 제주:제주도.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7, 《탐라성주고봉례묘추정지(耽羅星主高鳳禮墓推定址)-제주시 화북동 분묘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 도움을 주신 분들

김옥천, 75세, 제주시 삼도 1동 541번지
 송수방, 58세, 향토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3053-1번지
 정성필, 64세, 풍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 1리 25번지